

2017년도 제21차 정기총회

2017년도 제21차 정기 총회 자료집

일 시 : 2017년 2월 9일(목) 18:00~21:00

장 소 : 여성미래센터 지하 교육장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2017년도 제21차 정기총회

2017년도 제21차 정기 총회 자료집

일 시 : 2017년 2월 9일(목) 18:00~21:00

장 소 : 여성미래센터 지하 교육장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차 례

■ 정기총회 순서	3
■ 제20차 정기(제21차)총회 회의록	5
■ 2016년 감사 보고	9
■ 2016년 사업보고 및 평가	15
I. 사업 총평	17
II. 사업보고 및 평가	22
[1] 조직 사업	22
[2] 평화·통일 사업	28
[3] 정보·홍보 사업	43
[4] 회원 사업	47
[5] 재정 사업	49
[6] 연대 및 협력사업	49
[7] 부산 갈등해결센터	71
[8] 부산 한국어성평화연구원	126
■ 조직개편의 건	127
■ 2016년 결산보고	131
■ 임원 인선안	135
■ 2017년 사업계획안	139
I. 2017년 사업기조 및 방향(안)	141
II. 2017년 사업계획(안)	142
[1] 조직 사업	142
[2] 평화·통일 사업	144
[3] 정보·홍보 사업	145
[4] 회원 사업	145
[5] 재정 사업	145
[6] 연대 및 협력사업	145
[7] 부산 갈등해결센터	146
[8] 부산 한국어성평화연구원	150
■ 2017년 예산안	153
■ 부록	157
평화여성회 정관	161
평화여성회 조직 현황	168
2016년 성명서 목록	169
2016년 발간자료 목록	270
회원가입서	271

정기총회 순서

I 부 회원등록 및 식사 나눔, 인사나누기 (오후 6:00 ~ 오후 7:00)

II부 본 회의 (오후 7:00 ~ 오후 9:00)

1. 개회선언
2. 서기임명
3. 성수보고
4. 회순재택
5. 전차회의록 낭독
6. 2016년 감사보고
7. 2016년 사업보고와 승인
8. 조직개편의 건
9. 2016년 결산보고와 승인
10. 임원 선출 및 승인
11. 2017년 사업계획안 보고와 승인
12. 2017년 예산안 보고와 승인
13. 기타토의
14. 모범 회원상 수여
15. 회의록 발음
16. 폐회

**제20차 정기(제21차) 총회
회의록**



제20차 정기(제21차)총회 회의록

□ 서기: 김진희, 이덕경

1. 일시: 2016년 1월 29일(금) 19:00 ~

2. 장소: 여성플라자 2층 NGO 열린마당

3. 주요내용

- 1) 개최선언 : 안김정애 의장이 오후 7시 개최 선언을 하고, 정기총회를 시작하다.
- 2) 서기 임명 : 김진희, 이덕경 회원을 총회 공동서기로 임명하다.
- 3) 성수보고 : 김지호 총무가 재직회원 52명 중 참석 21명, 위임 15명, 총 36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안김정애 의장이 정관에 의거 성회 되었음을 선언하다.
- 4) 회순채택 : 안김정애 의장이 자료집의 회순을 낭독하고, 모두 가하여 이를 받기로 하다.
- 5) 전차회의록 낭독 : 김진희 회원이 요지를 낭독하다. .
- 6) 감사보고 : 문수경 감사가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대표보고하다.
- 7) 2015년 사업보고와 승인에 관한 건
: 총회 자료집 17쪽에서 113쪽을 도대로 양지, 김선애 회원이 영상자료로 요약보고하다.

정원백 회원이 20쪽의 WOMEN CROSS DMZ는 국제평화회의의 연장선상에서 평화여성회가 실행위원으로 참여했고 평화여성회가 국제여성평화회의의 주관했음을 강조하여야 하며 영상보고의 자료도 수정하여 내년 회의록에서 바로 잠을 수 있도록 하자고 하다. 이것을 회의록에 남기기로 여혜숙 회원이 동의하고 김정수 회원이 내년의 회의록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다.

앞으로 남북교류와 관련된 사업은 운명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김정수 회원이 제안하였고 안김정애 의장이 이를 받기로 하다.

2015년 사업보고에 대해 최진희 회원 동의, 김성은 회원 재청하고, 모두 가하여 받기로 하다.

8) 2015년 결산보고 및 승인에 관한 건

: 별도 자료를 토대로 김지호 총무가 결산보고하다.
정현백 회원 동의, 김명신 회원 재청하고, 모두 가하여 받기로 하다.

9) 임원 선출 및 승인에 관한 건

: 여혜숙 인선위원장이 정관을 토대로 인선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보고하다. 여혜숙 인선위원장이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으로 김정수, 배삼희 사업감사, 윤수경 회계감사를 연임을 제안하고 모두가 박수로 동의하다.

이사 추가 인선은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정현백 회원이 제안하고 이를 받기로 하다.

10) 2016년 사업계획 및 승인에 관한 건

: 안김정애 대표가 총회 자료집 123쪽부터127을 보고하다.

129쪽을 토대로 2016년 사업계획안을 보고하다. 김선혜 갈등해결센터소장이 총회 자료집 129쪽부터 131쪽을 토대로 사업계획안을 보고하고, 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이 총회 자료집 132쪽을 토대로 사업계획안을 보고하다.

123쪽 사업기초 2-2)를 빼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더 논의과정을 거치기로 하다.

정현백 회원이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32쪽 계획의 2-3 개별연구를 연대발동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이를 받기로 하다.

유은주 등의.전상희 재청, 모두가 가하여 이를 받기로 하다.

11) 2016년 예산안 승인에 관한 건

: 김지호 총무가 별도 자료를 토대로 예산안을 보고하다.

2016 예산안은 정현백 동의, 김성은 재청, 모두 가하여 이를 받기로 하다.

12) 평화여성회 신임활동가로 지애, 갈등해결센터 부소장 전상희, 신임활동가 정유미를 소개하고 승인받다.

12) 모병회원상 : 전상희에게 회원상을 수여하다.

13) 회의록 발음 : 정현백 회원이 총회 회의록을 본회 1차 운영위원회에 검토하기를 제안하고 이를 전제로 김정아 동의, 정현백 재청하고 모두 가하여 받기로 하다.

14) 폐회 :안김정애 의장이 오후 9시 20분 폐회를 선언하다.

2016년 감사 보고



2016년 평화여성회 사업감사 보고

1. 2016년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남북교류 전면 중단으로 치달은 한 국정부의 적대적 대북경제 강화, 국회와 해당 지역 주민의 동의도 없이 강행된 THAAD 배치, 이를 빌미로 한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정책 시작으로 한국경제의 큰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발생 등 부침이 끊임없는 국내·국의 정 세 속에서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이하 평화여성회)는 국내외 여성/평화/통일운동 단 체들과 연대하여 2016 여성평화 걷기 행사를 진행하고, 서울시 2016 평화통일 시민교 육 프로젝트의 참여를 통하여 여성주의적 평화통일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이루는 등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2. 또한 평화여성회는 UN CSW, Ulaanbaatar Process 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 이를 알리는 등 여러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 평화여성회는 인적·물적 지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강정평화대행진, THAAD 배치 반 대 시위, 10월말부터 시작된 촛불집회 등 국내평화운동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노력하 고 있는 정과 회원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무엇보다 여성의 일상적 삶과 연결된 평화 의제 발굴 및 평화적 갈등해결 교육과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등 2016년에도 사업기조 와 방향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잘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많은 사업과 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내시길 기대합니다.

2017. 1. 31.

감사 배삼희



2016년 평화여성회 회계감사 보고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귀중

감사 기간 : 2016.1.1.-2016.12.31.
 감사 일시 : 2017.1.23.
 감사 장소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무실
 감사인 : 윤수경

2016년 (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회계감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회계감사는 본 회를 비롯, 부설 갈등해결센터, 부설 한국어성평화연구원을 포함합니다. 본인은 월별 수지 결산서, 금전출납부, 수입지출결의서와 그 영수증을 검토한 결과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고 통장과도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1. 평화를만드는여성회와 2016년 총 수입액은 145,332,830원이며, 총 결산액은 137,137,212원으로서 이월액은 7,829,225원 입니다.
2. 평화여성회 2016년 수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총 수입	총 지출	이월금	비고
본회	일반회계	58,912,284	55,422,529	4,249,635	
	특별회계	12,610,000	10,945,725		(반납금) 1,664,275
	소계	71,522,284	66,368,254	4,249,635	
부설 갈등해결센터	일반회계	69,087,978	66,046,658	3,041,320	
	특별회계	4,122,300	4,122,300		
	소계	73,210,278	70,168,958	3,041,320	
부설 한국어성평화연구원		600,268	600,000	538,270	
합계		145,332,830	137,137,212	7,829,225	

3. 본 회의 경우, 수입대비 항목별 비율은 회비 59.2%, 후원금 15.21%, 서울시 프로젝트 17.45%, 차임금 7.26%로서 회비의 비율을 적어도 70%이상으로 올리기를 희망합니다.
4. 본회의 경우, 총액대비 지출 비율은 사업비 30.95%, 운영비 54.36%, 퇴직직립금 4.98%로서 특히 사업비 중 연대사업비 비율이 11%입니다. 이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부설 갈등해결센터는 사업비 31.8%, 운영비 59.6%인데, 이는 사업 성격상 기획·관리·교육 등은 금액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5. 여성평화연구원은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빈 이름이 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6. 본회에서 지원하는 갈등해결센터 6,000,000원, 여성평화연구원 600,000원은 내부거래로서 이중으로 기재되어 왔습니다. 이의 적절한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7. 2017년 평화여성회 재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차 제안합니다.
재정규모가 작고 활동가의 손이 아쉬운 현 상태에서 회계정리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회계장부를 가능한 한 단순화시키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2017년 1월 23일

감사 윤 수 경 

2016년 사업보고 및 평가

I. 2016년 사업 총평

II. 2016년 사업 보고 및 평가



I. 2016년 사업 총평

2016년은 광복 71주년이자 분단 71주년, 한국전쟁 발발 66주년과 정전체제 성립 63주년이 되는 해였다.

2016년은 여전히 분단체제가 지속되는 한 해였으며, 국내외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요동치고 신냉전 시대로 돌입함으로써 한반도 여성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2016년의 한반도 상황은 국내적으로는 두 차례에 걸친 북핵 실험과 한국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 강화,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교류 전면 중단, THAAD 배치 출속 강행과 국내외 반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발생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및 헌법재판소 심리 등 국내 정치 뿐만 아니라 군사 및 외교·안보 정책의 실종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한반도와 관련된 2016년의 국제적인 상황은 미국정치계의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과 주한미군주둔 방위비 증액 가능성,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 분쟁과 난민 발생 문제, 영국의 EU 탈퇴, 유럽 국가들의 난민유입 반대와 포퓰리즘 증대 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으로 특징지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드레스덴 선언' '통일은 대박' 등의 표언으로 마치 평화적인 대북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포장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대미종속적인 틀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정책을 그대로 추종하는 행태를 보였다. 단적인 예가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대북정책에서는 적대적인 양상을 띠었다.

북한은 올해 1월 6일과 9월 9일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개성공단 전격폐쇄와 민간인교류 및 인도적인 대북지원 전면 중단, UN 안보리 대북제재 적극 동참 등으로 적대적이고 전방위적인 대북압박정책을 폈다. 개성공단 전격폐쇄로 인해 123개 공단 입주 기업이 타격을 입었으며 5000 여 개의 원부자재 납품업체가 줄도산을 하는 등 피해액이 2조원을 넘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MD체제 구축의 일환인 주한미군 THAAD 배치를 결정하였고, 한국정부는 이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여 국회동의와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경북 성주와 김천에 THAAD 배치 부지 결정을 내려 해당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발도 사고 있다. 성주의 경우, '사드배치 반대 여성투쟁위'가 광화문 촛불 광장에서 일반인의 서명받기, 일간지에 '한반도 사드배치 철회를 위한 여성 1만인 선

인. '롯데-국방부 간 부지 교환 반대 시위' 등의 활동을 벌인 바 있다. 중국의 경우, 한반도 THAAD 배치를 자극을 겨냥한 미국의 대중포위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한한론(限韓論)으로 상용비자 발급 중단, 무역 제재, 한류 연예인 공연제한 등 한국에 대한 보복정책을 펼침으로써 한국경제는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압력을 받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서둘러 체결하였으며, 이는 THAAD 배치와 더불어 밀실함의, 야합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대미종속과 군사 외교적인 무능함, 그리고 무책임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는데, 9월 이후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여실히 보여 주었듯이 박근혜 정권의 비민주적 통치행태와 관련이 있다.

국제적으로는 중동지역 분쟁사태의 계속, 난민발생과 유럽으로의 난민 유입, 경제적 침체, 영국의 EU 탈퇴, 미국 대선 후보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은 주한미군철수를 빌미로 한 병위비 분담 증가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계속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투쟁의 증가, 일본 아베 정권의 재무장 시도 등으로 동북아를 비롯한 한반도는 전쟁 위험이 한층 높아진 해였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2017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사업기조와 방향(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예정하였으며 그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다.

1. 평화여성회 창립 20주년 준비

김윤옥 선생님 등 창립 초기의 인물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영상 기록화, 문서 정리, 사진 정리 등을 진행하였다.

2. 남북여성의 지속적인 교류 추진

1월 초의 북한의 핵실험, 3차례 핵실험, 2월 개성공단폐쇄 등 대북강경책으로 인해 2015년 말에 개성 남북여성상봉모임에서 제안되었던 2016년 남북여성상봉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수립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북핵문제, 일본의 군국주의화 추진,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갈등으로 인한 동북아 정세 불안정, 그리고 한국정부의 부정적/적대적 대북정책은 남북여성의 평화적 교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단 민화협 여성위원회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

최하여,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다. 2017년 대선 후, 대북정책 변경, 북한과의 민간인 접촉 전면 허용, 남북여성의 경제적 자립화와 평화적 감수성 제고, 자율성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로 본 회의 주요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3. 분단/정전체제 종식을 위한 캠페인과 국제적인 연대활동 모색

1) 2016여성평화 걷기 행사

국내외 여성/평화/통일운동 단체들과의 연대 속에서 진행한 본 행사를 통해 한반도 분단/정전체제 종식을 위한 국내외의 협조를 이끌어 냈다.

2015년에 있었던 WomenCrossDMZ를 계속 이어서 2016년에는 총 30여 개의 한국여성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여성평화걷기(Women Peace Walk)행사를 진행하였다. WCD에서 5명의 국제대표단도 동참하여 진행된 행사는 5월 24일 세계여성평화군속의 날 심포지움과 5월 28일 임진각과 평화생태길 걷기로 진행되었으며, 걷기행사에 성별과 나이를 초월한 1000 여 명의 일반인이 참여함으로써, 생명·평화·상생을 기원하는 목적과 취지를 잘 살았다고 평가된다. 이 행사에서 평화협정체결 서명전도 함께 진행하고 이를 UN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촉구 서명 행사에 전달하였다.

2) 서울시 2016 평화 통일 시민교육 프로젝트

'여성의 목소리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본 프로젝트는 그동안 여성이 부재한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문제점을 점검·진단하고, 총 8강의 강의를 모두 여성들이 진행함으로써 전문성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의 한반도 평화통일안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한반도 분단/정전체제의 부당성과 극복 방법,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 한반도 비핵화 등을 주제로 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 형식을 취함으로써 모든 참가자들이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 참여자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으며, 여성의 평화 감수성과 소통, 배려성을 남성 참가자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20년 동안 꾸준히 활동해 온 평화여성회의의 활동을 알리고 여성주의적 평화통일정책 수립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DMZ 현장 탐방도 결들임으로써 본단의 현장과 분단지역 현지여성주민의 역할을 함께 공감하였다.

3) CSW, Ulaanbaatar Process 회의 참석

3월 UN CSW 회의에서 WCD, WILPF, UN Women 등과 함께 한반도 평화정책 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논의하였다. 한반도 분단문제, 평화협정 체결의 필

요청 등 알려내기 성과가 있었다.

11월 GPPAC 동북아 대표단과 몽고 평화시민단체인 Blue Banner주최로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Ulaanbaatar Process 회의에서 북측에서 참석한 대표단 등 6차회담국 평화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 동북아 평화문제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같이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4.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연안보리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모니터링 계획수립 등 대응 모색

주제 역량의 부재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고, 정부 측도 제대로 된 자문회의 한 번 하지 않고 있다. 연말에서야 일정을 통보하는 등 부실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5. 회원 참여 구조와 사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여성평화수다방을 모델로 노력하였다.

6. 갈등해결 교육과 훈련, 대화를 통한 평화적 갈등해결 문화만들기

2003년 이래 지속적으로 실시하던 갈등해결센터 주관의 '평화적 갈등해결을 위한 강사드레이닝'강좌 대신 '차이와 불일치를 다루는 갈등해결' 교육으로 개설하고, 갈등해결에 초점을 두어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특히 마을공동체나 행동조합과 같이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는 조직에서 갈등해결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 조직 내 갈등다루기에 초점을 둔 교육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갈등해결교육 못지않게 대화, 회의, 갈등 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해결을 위한 현장 활동이 활발했다. 특히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와 열린 대화와 같이 일상의 갈등 이슈를 다루는 대화의 현장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문제해결 만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사회적 신뢰와 관계형성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청소년 교육은 교육과 삶이 더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 대안학교 등에서의 갈등해결교육을 집중하는 것으로 교육방향 전환을 논의하였다.

한편 사회적·역사적 조건에 따른 갈등해결교육 요구를 학습하기 위해 북아일랜드 평화 교육 연수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이 연수는 활동회원들이 갈등해결 교육의 일상성이나 역사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필요에 대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7. 기타 : 국내평화운동 연대

1) 강정평화대행진 참석.

8월 1일부터 6일까지 참석. 해군기지의 부당성과 구상권 철폐 등을 요구함으로써 제주 해군기지의 문제를 알려 내고 참석한 국내외 평화단체와의 군사주의 반대 연대 확인

2) THAAD 배치 반대 시위 참석, 성명서 연명

종속배치에 대한 문제점 제시. 박근혜 정권의 무책임성, 말실함의, 록히드 마틴과 최순실 연계 등 문제점 비판.

3) 촛불집회 참가

10월 말부터 시작된 박근혜 퇴진 시위 참석. 국정 농단 비판. 검찰 및 언론개혁, 적폐청산 등의 문제점 제기.

8. 조직

본회는 기존의 평화통일사업을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였으나, 본회의 각종 위원회가 위원 구성이나 총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조직 역량의 한계를 드러냈다.

한편 부설기구인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은 연구원장의 비상근 상황에서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기 어려웠고, 갈등해결센터는 일상적 갈등해결영역에서 교육, 대화, 조정 등 활발하게 진행하였으나, 공동체 내 갈등해결 영역으로 활동이 집중되고 있어 본 회와의 공통 접점이 낮아져 본 회의 부설기구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II. 사업 보고 및 평가

【1】 조직사업

1. 회 의

1-1. 총회

1) 역할: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의 기본 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 계획 및 보고의 승인, 기타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2) 구성: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3) 내용 : 2016년 사업계획 수립, 공동대표 및 임원 선출 등

4) 사업내용

(1) 정기총회

- 일시: 2016년 1월 29일(금) 19:00-21: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동방

- 성원보고: 재적회원 52명 중 참석 21명, 위임 15명, 총 36명

- 주요 내용: 2015년 사업 및 결산보고, 2016년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 임원 선출 및 승인, 모병회원상 수여 등

(2) 총회준비위원회

- 구성 : 김성문(이사장), 김선혜(부설 갈등해결센터소장), 김정수(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장), 여혜숙(본회 이사), 안김정애(본회 상임대표), 정경란(국제협력위원장), 천상희(부설 갈등해결센터부소장) 총 7명.

- 1차 : 2016년 12월 19일(월) 18:00-20:00 , 2016년 사업 총평 및 초안 , 2017년 사업 기초 및 방향, 인선위원회 구성, 한국여면 통일평화위원회의 위원장 중안, 조직 논의

건

- 2차 : 2017년 1월 11일(수) 18:00~20:00, 갑등해결 조직논의 안건, 이사회 날짜, 총회 당일 순서, 모병회원상, 총회서기
- 3차 : 2017년 2월 2일(목) 18:00~20:00, 2016년 결산안, 2017년 예산안, 총회 당일 안건

1-2. 이사회

1) 역할: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위원회와 부설 기구의 설치, 정관의 변경 발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재산관리, 총회 부의 안건의 작성, 회원의 제명, 총회 위임 사항,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구성

- 이사장: 김성은
- 이사: 김선혜, 김정수, 김지영, 박유희, 박현선, 안김정애, 여혜숙, 이나영, 정현택, 조영희, 한정숙(존칭생략, 가나다순)

3) 회의

(1) 1차(제41차) 이사회

- 일시 : 2016년 1월 18일(월) 18:00 ~ 20:00
- 장소 :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참석 : 김성은(이사장), 김선혜, 김정수, 박유희, 안김정애, 한정숙
- 배석 : 김지호, 류지연
- 내용 : 2015년 사업보고 및 평가, 2015년 결산보고 및 평가, 2015년 이사회 평가, 임원 안선 등

(2) 2차(제42차) 이사회

- 일시 : 2016년 5월 17일(화), 19:00-21:00
- 장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근처 카페
- 참석 : 김성은(이사장), 김선혜, 김정수, 정현택, 여혜숙
- 배석 : 김지호
- 내용 : 창립 20주년 준비, 2016 여성평화건기, 청경란 국제협력위원장 제2회 박영숙 삼림이상 평화부문 수상, 이우정 선생 14주기 추도회 공지 등.

(3) 3차(제42차) 이사회

- 일시 : 2016년 11월 21일(월), 19:00-21:00
- 장소 :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참석 : 김성은, 김선훈, 김정수, 김지영, 박유희, 박현선, 안김정애, 이혜숙, 정현택, 조명희
- 내용 : 1~9월 사업보고 및 평가, 결산보고 및 평가, 10~12월 사업 계획 검토, 추경예산(안) 검토

1-3. 운영위

1) 역할: 본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주요사업과 기타 정관에 명시한 본회 목적사업과 관련한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2) 구성 : 공동대표, 각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장, 서기, 회계,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 안김정애 (상임대표)
- 위원 : 안김정애(상임대표), 김선훈(부설 갈등해결센터소장), 김정수(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장), 김지호(본회 총무국장), 전상희(부설 갈등해결센터 부소장), 정경란(국제협력위원장)

3) 사업내용

- (1) 제1차 : 3/3(목), 1,2월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보고, 2016년 운영위원회 운영방식 논의, 총회 위임 사안/총회 회의록 검토 논의, 정기 총회 평가, 2016년 3월 사업계획 검토 건
- (2) 제2차 : 4/6(수), 3월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보고, 2016년 4월 사업계획 검토 건, 총평과 사업기초 수정부분 검토, 20주년 준비위원회 구성 등
- (3) 제3차 : 5/17(화), 4월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보고, 2016년 5,6월 사업계획 검토 건, 20주년 준비 관련 내용, 2016 여성평화걷기 행사 관련
- (4) 제4차 : 6/10(금), 5월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보고, 2016년 6,7월 사업계획 검토 건, 하반기 운영위원회의 날과 정하기, 2016 여성평화걷기 행사, 여성평화심포지엄 평가, 현재 운영비 상황 및 하반기 운영비 해결방안 논의
- (5) 제5차 : 8/30(화), 6~7월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보고, 2016년 9월 사업계획 검토 건

- (6) 제6차 : 9/30(화), 8월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보고, 10월 사업계획 검토, 북한 수해 지원 관련 본 회와 여성계의 계획 논의, 20주년 기념 자료집 발간 논의
- (7) 제7차 : 10/25(화), 9월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보고, 2016년 11월 사업계획 검토 건, 20주년 기념행사 건, 총회 준비 건, 재일본여명의 '정산대' 문제 협의 제안 건

1-4. 사무국회의

- 1) 역할 : 본회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 진행사업 점검 및 공유 등을 진행한다.
- 2) 구성 : 공동대표, 실무집행 책임자, 실무활동가 등으로 구성한다.
 - 위원 : 안김정애(상임대표), 김지호(총무국장), 이지혜(활동가), 신민시(청년센터활동가)
- 3) 내용 : 주 1회 혹은 격주 1회 시행, 일정 및 업무 공유, 주간 사업 논의.

2. 법인.행정

2-1. 감사

- 1) 역할 : 본 회 사업과 재정을 감사한다.
- 2) 구성 : 사업감사 (배삼희 변호사), 회계감사 (윤수경 전 공동대표)
- 3) 결과 : 감사보고서 참조

2-2. 법인, 행정, 사무

- 1) 목표
 - 본 회 법인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이행한다.
 - 여성평화운동의 안정적 추진과 실천, 회원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 2) 통일부 법인 업무
 - (1) 통일부 2015년도 법인현황 제출
 - 일시 : 2016년 2월 29일
 - (2) 북 조천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의 연대사 접수건 신고
 - 일시 : 2016년 3월 28일
 - 내용 : 평화여성회 창립19돌 연대사 접수

3) 법인 세무 업무

- (1) 2015년 기부금 내역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
 - 일시 : 2016년 1월 7일
- (2) 2015년 원천세 내역 신고 및 납부
 - 일시 : 2016년 1월 7일
- (3) 퇴직소득세(2인) 신고
 - 일시 : 2016년 1월 7일
- (4)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 일시 : 2016년 1월 12일
 - 대상 : 정연진
- (5)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 일시 : 2016년 2월 2일
 - 대상 : 유지연
- (6) 4대보험 가입신고
 - 일시 : 2016년 2월 12일
 - 대상 : 전상희, 정유미, 이지혜(2.1일 기준)
- (7) 퇴직금 지급
 - 일시 : 2016년 2월 12일
 - 대상 : 유지연 (2014년 12월~2016년 1월 근무)
- (8) 건강보험료 총액신고 ('16.4~'17.3월 반영)
 - 일시 : 2016년 3월 10일
 - 신고처 : 국세청 홈택스
- (9)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신고
 - 일시 : 2016년 3월 31일
 - 신고처 : 국세청 홈택스
 - 내용 : 2015년도 기부금 발행분에 대하여 그 항목별 세부지출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 하고 홈페이지에 공지, 게시함.
- (10)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 일시 : 2016년 7월 31일
 - 대상 : 정유미 활동가 사직
- (11) 4대보험 가입신고

- 일시 : 2016년 8월 18일(목)

- 대상 : 오주연(8.8 기준)

(12)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 일시 : 2016년 10월 11일

- 대상 : 김지호(9.30 기준)

(13) 4대보험 자격상실 변경신청

- 일시 : 2016년 11월 1일

- 대상 : 김지호(9.30 기준)

- 내용 :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 이직신고서 작성

4) 행정 업무

(1)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청년센터활동가 인턴십 현장활동 사업협약서' 체결

- 일시 : 2016년 4월 8일

- 인턴인원 : 1명

- 사업기간 : 2016. 5. 30 ~ 2016. 10. 31일 중 최대 40일간

- 인턴업무 : 20주년 준비자료 정리 등

(2)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성평등도서관 여기」 '자료공유 약정서' 체결

- 일시 : 2016년 4월 28일

- 내용 : 평화여성회 발간도서를 「성평등도서관 여기」에 기증하여, 성평등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사업소개 및 평화여성회 사업을 홍보하기 위함

(3) 오즈메일러 사용본 결제

- 기간 : 2016년 6월 23일 ~ 2017년 6월 22일

- 금액 : 178,200원

(4)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청년센터인턴십 신청

- 일시 : 2016년 3월 30일

- 인턴십 기간 : 2016년 5월 30일(월) ~ 10월 31일(월)

- 근무일수 : 최대 40일 (= 8주간), 주말 근무 불가

3. 위원회

3-1. 정책위원회

1) 구성 : 김정은, 김정수, 안김정애, 여예숙, 윤경원, 조영희

3-2. 국제협력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 정경란

【2】 평화·통일 사업

1.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활동

<2016년 사업계획(안)>

한반도의 평화조성과 동북아, 세계의 평화 만들기 활동을 조직하고 실천한다.

- 1) 한반도 분단 극복을 위한 여성들의 평화통일외지와 역량 강화
- 2) 군사비 감축 활동: 군사비 동결을 위한 세계행동의 날 공동행동, 524 세계평화와 군축을 위한 여성의 날 평화행동
- 3) 남북관계의 개선과 동아시아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평화적 관점의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정책분석 활동
- 4)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인브리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 관련 활동
- 5) 핵 없는 세계를 위한 달핵, 탈원전 활동 등.

1-1. 한반도 분단 극복을 위한 여성들의 평화통일외지와 역량 강화

1) 2016 여성평화결기 관련

- 주제 : 전쟁 없는 한반도! 생명 평화 상생의 한반도를 기원하는 평화결기
- 주최 : 2016 여성평화결기조직위원회
- 조직위원회 참가 단체 : 평화물안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경기여성네트워크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따죽민족화해센터, 문화세상이요로피어,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주여성인권센터, 너머서, 어린이어깨동무, 여성역사무덤, 여학인후동우회, 해코메니칼 청년네트워크, 21세기서울여성대, 새로운백년을여는통일여맹(수도권본부), 세계교회협의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성연, 참어머니,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평화어머니회, 평화외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협의회, 한국성신

대문제대책협의회

- 주관 : 경기여성네트워크(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고양 따주여성인우회, 따주연속화해센터, 우리연속서모듬기운동, 경기지역 12개 YWCA, 문화재단이브도미아

(1) 조직위원회

가. 회의

- 1차 : 3월 10일(목) 16:00-18:00, 2015 WCD행사 백서 발간 건, 2016년 '5·24기념 여성평화걷기' 진행방안
- 2차 : 3월 29일(화) 10:00-12:00, 2016 CSW NGO Forum 발제 내용, 행사 준비 역할 분담
- 3차 : 4월 15일(금) 10:00-12:00, 진행상황 보고, 여성평화걷기 선언문 검토, 백만인 서명운동 검토, 걷기행사 이벤트 아이디어 논의
- 4차 : 4월 29일(금) 10:00-12:00, 조직위원회 공동대표 구성, 평화걷기 행사 준비
- 5차 : 5월 20일(금) 10:00-12:00, 진행상황 보고, 최종점검, 신청자현황 공유, 추가 신청관련 논의
- 6차 : 7월 18일(일), 14:00-16:00, 회의체 존속 여부(동의), 매월 1회 정기회의 개최 여부, 하반기 사업 논의
- 7차 : 9월 19일(일), 15:00-17:00, 사진전 개최, WCD 제언(반기문 유엔총장에게 보내는 한반도 문제 해결 촉구 청원/서한) 연명 여부 검토, 내년도 평화걷기 구상, 복한수해 지원 모금 관련 등
- 8차 : 10월 7일(금), 16:00-18:00, 사진전시회 관련 단체별 역할 분담, UN Petition 관련 내용 공유
- 9차 : 12월 20일(수), 15:00-17:00, 사진전 결산 및 총평, 2017년 계획 논의

나. WCD국제대표단 간담회

- 일시 : 2016년 5월 24일(화) 10:00-13:00
- 장소 : 산다미야노 카페
- 참석 : 안김정애, 지혜
- 내용 : WCD국제대표단 간담회

다. '2016 여성평화걷기' 조직위 총평가회의

- 일시 : 2016년 6월 20일(일) 14:00-16:00
- 장소 : 한국YWCA연합회 강당

- 참석 : 안김정애, 지혜
- 내용 : 2016 여성평화걷기 평가, 향후 계획 및 방향 논의

라. 여성평화걷기 사진전 준비회의

- 일시 : 2016년 9월 27일(화), 14:00-16:00
- 장소 : 명동 YWCA 회의실 203호
- 참석 : 안김정애(최인숙, 한미미, 김은영)
- 내용 : 2016 여성평화걷기 사진전 관련 사진 선별 등 작업

(2) 실행위원회

- 실행위원회 구성 : 안김정애(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 공동실행위원장), 한미미(세계YWCA연합회 부회장, 공동실행위원장), 이정애(고양파주 여성민우회 대표), 최병일(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아예정(우리민족서로돕기 정책부장), 최민숙(문화세상이프도파아 대표, 기획담당)

가. 회의

- 1차 : 4월 6일(수) 10:00-12:00, 걷기 행사 관련 논의
- 2차 : 4월 26일(화) 19:00-21:00, 심포지엄 준비상황 공유, 평화걷기 준비상황, 홈페이지 준비, 청원서 진행 및 기자회견 개최여부
- 3차 : 5월 4일(수) 13:30-15:30, 최보결씨 미팅, 기자간담회 준비 및 언론대응전략, 공동대표, 추진위원 확정
- 4차 : 5월 10일(수) 13:00-14:00,

나. 평가회의

- 일시 : 2016년 6월 16일(목) 16:00-18:00
- 장소 : 한국YWCA연합회 강당
- 참석 : 안김정애, 지혜
- 내용 : 2016 여성평화걷기 사전 평가

(3) 행사

가. '2016 여성평화걷기' 언론초청 간담회

- 일시 : 2016년 5월 10일(화) 11:00-12:00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430호
- 참석 : 안김정애, 지혜

- 내용 : 2016 여성평화걷기 행사 알림

나. '2016 여성평화걷기'

- 일시 : 2016년 5월 28일(토) 09:00~12:00

- 장소 :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 참석 : 김천혜, 김성은, 안김정애, 여해숙, 전상희, 지혜, 박수선, 김명신

- 내용 : 일정 및 프로그램

09:00~09:30	등록 및 접수
09:30	평화의 열림(인사, 길놀이)
10:00~12:00	평화걷기(6km)
12:00~12:30	평화의 어울림(여성평화걷기 선언문, 평화 플래시몹) 경기여성 평화합창단, 함께누리 풍물대, 평화 플래시몹이 함께합니다.

다. 2016 여성평화걷기 사진전 오프닝 리셉션

- 일시 : 2016년 10월 13일(목) 10:00~19:00

- 장소 : 명동성당 1898 갤러리

- 참석 : 안김정애, 신민서

라. 고양 파주 사진전

- 일시 : 2016년 12월 12일(월) - 12월 26일(월)

- 장소 : 고양 시청 갤러리

2) 2016 여성평화심포지엄

- 주제 : 여성, 3.0 평화 시대를 열다 - 유엔 안보리결의안(UNSCR) 1325를 중심으로

- 주최 : 평화물만드는여성회,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여성평화외교포럼, 한국 YWCA 연합회

- 목적 : 이번 심포지엄은 5.24 세계여성평화군축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 for Peace and Disarmament)을 맞아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 이행의 의미와 중요성을 공유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지평 확장에 요구되는 여성평화 리더십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1) 회의

가. 준비팀 회의

- 1차 : 4월 6일(수) 12:00~14:00, 심포지엄 관련 논의
- 2차 : 4월 22일(금) 10:00~14:00, 행사의 기본 취지 및 목적 검토, 행사 일정 및 분담
- 3차 : 5월 4일(수) 10:00~12:30, 행사 일정 체크 및 역할 분담

나. 실무회의

- 1차 : 4월 22일(금) 14:00~16:30, 각 단체별로 맡은 주제 발제자 섭외, 행사 진행 책임 (평여 담당, 현수막 및 홍보물 디자인 (최인숙), 발제 의뢰서 작성 (YWCA 담당), 온라인 홍보 (평여 담당), 원고 취합, 자료집 편집 및 제작(미정)
- 2차 : 5월 13일(수) 10:00~13:30, 프로그램 정리, 역할분담
- 3차 : 5월 23일(월) 10:30~14:00, 최종점검, 행사 일정확인 및 역할분담

다. 평가회의

- 일시 : 2016년 6월 15일(수) 17:00~19:00
- 장소 : 한국YWCA 연합회
- 참석 : 안김정애, 지혜
- 내용 : 2016 여성평화심포지엄 평가

(2) 행사

가. '2016 여성평화심포지엄'

- 일시 : 2016년 5월 24일 14:00~18:00
- 장소 : 프린치프스코 회관 410호, 212호 등
- 참석 : 김성은, 김지호, 안김정애, 지혜, 김명신
-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13:30	등록	
14:00	인사말	사회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낙균 (여성평화외교포럼 이사장) - 장필화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소장) - 김성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 이영혜 (한국YWCA 연합회 회장)

		개회영상 한국 YWCA 연합회
14:15	기조연설	여성, 3.0 평화시대를 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UNSCR) 1325를 중심으로 - 이현숙 (前대한적십자사 부총재)
14:45	단체사진촬영	
15:00	주제별발제	사회 김나연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연구원) ○ 화해와 평화과정의 리더십 - 장필화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소장) - 강화경 (하자직업장학교 청년과정) ○ 위장하는 군사주의 - 김엘리 (평화연구활동가) - 최정민 (두려움/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말려의 길, 생명의 길 - Ann Wright (미 육군비밀장교/여성평화활동가) -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UNSCR) 1325 - Kozue Akibayashi (여성국제평화자유연맹WILPF 회장) -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 식탁에서 평화협정 테이블까지 - 최명실 (성공회대학교 명예교수) -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대표)
16:00	주제별토론	
17:30	종합토론	사회 한미미 (세계YWCA부회장)
18:00	폐회	

- 총평 : 여성평화결기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는 여성/평화/동일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524 기념 심포지움과 여성평화결기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2015 WCD의 연속성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WCD 대표단의 참석도 이루어졌다. 심포지움의 경우 총북논란과 심포지움 장소 대관 취소 등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행사 종료 후 3차례에 걸친 사진전 개최를 통해 사진 기록을 정리하였다. 여성평화화기기 행사는 한반도의 생명 평화 상생을 목적으로 구체적으로는 평화협정 체결, 전쟁반대 등의 가치를 내걸었으며, 학생과 시민의 호응은 긍정적이었다. 2017년에도 평화통일의 주요사업으로 계속할 예정이다.

3) 서울시 <2016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 관련

(1) <2016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 선정

- 사업기간 : 2016년 7월-10월
- 지원금액 : 12,610,000원
- 사업명 : 여성의 목소리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다
- 사업목적:
 - o 한반도 분단 71주년을 맞아 평화 통일 분야 활동가와 시민들에게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며 실천하도록 함.
 - o 현재 활동 중인 해당 분야 여성활동가/전문가를 강사로 선정,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경험 전수
 - o 한반도 평화-통일에 필요한 여성의 평화 감수성과 소통, 배려심 공유와 함양
 - o 라운드 테이블 형식을 통한 민주적인 토론문화 정착
- 사업주요내용
 - o 기획회의(3회) 및 평가회의(1회)
 - o 강연 및 라운드테이블(6회): 각 대상과 풀어가는 스토리텔링 형식의 라운드테이블 진행, 광복과 분단, 전쟁에서의 여성의 경험이야기하기, 듣기, 공유하기 등
 - o DMZ 현장답방(1회)
 - o 비폭력 트레이닝(1회)

(2) 회의

가. 기획회의

- 1차 : 8월 23일(화) 12:00-14:30. 프로그램 내용 검토, 홍보방안 및 홍보 문안 논의, 효과적인 진행방향 논의
- 2차 : 8월 29일(월) 12:00-16:00. 차시별 내용 및 질문 논의, 운명 방안 논의

- 3차 : 9월 6일(화) 18:00~21:00, DMZ현장탐방 기획

나. DMZ 현장답방 당사

- 일시 : 2016년 9월 20일(화) 11:00~16:00
- 장소 : 파주 통일촌 일대
- 참석 : 안김정애, 신민시, 지혜
- 내용 : 식당방문 및 예약, 통일촌 탐방

다. 실무자회의(참석: 지혜)

- 1차 : 9/28(월) 16:00~18:00, 사업 진행상황 공유, 서울시에 건의하는 사항 공유
- 2차 : 10/24(월) 15:00~18:00, 사업 진행상황 공유, 보고회 관련 논의

라. 평가회의

- 일시 : 2016년 11월 23일(수), 12:00
- 장소 : 코코빈스
- 참석 : 신민시, 안김정애, 오경진, 윤채영, 조혜민, 지혜
- 내용 : 사무국 평가내용 공유, 사업 평가 논의

마. 성과간담회

- 일시 : 2016년 12월 15일(목), 10:30~12:30
- 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9층 공동회의실
- 참석 : 지혜, 안김정애
- 내용 : 사업 성과보고, 프레젠테이션 발표(지혜), 건의사항 논의

(4) 프로그램

차시	주제	내용	강사명	날짜
1	오리엔테이션 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 : 한반도 분단사와 여성, 그리고 한국전쟁	참가자 환영, 자기소개, 프로그램 소개 o한반도 분단사 o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전쟁은 어떤 의미와 영향을 갖는가	김귀옥 (한성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9/8 (목)
2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길: 통일에서의 여성의 역할	o 현재 남북관계 상황 진단 o 통일 정책 살펴보기	박현선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겸임교수)	9/21 (수)

3	한 마리 작은 새 '크리킨디'가 되어 : 평화활동가가 이야기하는 평화리대첩	o 평화활동가가 들려주는 평화이야기 o 평화실현전략은 무엇인가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국축센터 팀장)	9/28 (수)
4	DMZ와 평화 율령길 : 문단 현장 탐방과 여성평화결기	o 문단의 현장을 찾아 문단사와 그 의미 살펴보기 o 인종선 인근 여성과의 만남 o 평화율령길 가능성 타진	최미정 (DMZ 문화해설사)	10/1 (토)
5	발핵의 길, 생명의 길 : 북핵과 남북문제	o 북핵문제, 원전과 핵우기의 실제 o 여성이 만들어 가는 발핵사회의 청사진	김해정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운영위원장)	10/5 (수)
6	식탁에서 평화협정 테이블까지 : 여성과 한반도 평화협정, 무엇을 할 것인가?	o 평화협정은 왜 필요한가 o 젠더 관점에서의 평화협정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대표)	10/12 (수)
7	여성의 관점에서 본 남북한 여성의 삶 : 북한여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o 북한/이탈여성 배로보기, 대화하기, 민주주의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기 o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김은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소장)	10/19 (수)
8	젠더와 비폭력 : 비폭력 프레이닝	o 젠더 관점으로 폭력 바라보기 o 평화를 위한 활동에서 젠더 시각이 중요한 이유 o 참여형 워크숍	최정민 (두려방/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최현진 (전쟁없는세상 피망덤 활동가)	10/26 (수)

- 평가 : 여성의 목소리 드러내기 프로젝트로, 그동안 무시되고 들리지 않았던 여성의 목소리와 시각으로 한국 현대사 돌아 보기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기존의 한반도 평화 통일문제가 남성·국가 민족·군사 안보 등의 시각과 담론을 제시하고 있었던 문제점을 지적, 본 사업은 모든 강의를 여성 활동가/전문가로 선정하여 여성·시민·안전·비폭력·평화의 시각과 담론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담론 전환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 형식을 취함으로써 기존의 일방적이고 단선적인 강의 형태를 지양하였다.

4) 프로젝트 제출 현황

- (1) 한국여성재단 "한반도 분단극복을 위한 여성평화통일전략 만들기 : 과거·현재·미래 세대의 목소리 듣기와 방안 수립 (1500만원) - 선정되지 않음
- (2) 49통일평화재단 "응답하라! 한국전쟁 발발 66주년 : 한국여성평화통일운동의 원로들에게 듣는다(500만원) - 선정되지 않음.

1-2. 군사비 감축 활동

1) 제6회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2016 세계군축행동의 날 준비위원회 - 남북평화재단,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도서관 나무, 평화바다, 평화공동체는여성회

(1) 회의

가. 준비회의 (창석 : 지혜)

- 1차 : 3월 16일(수), 14:00-16:00, 목표 논의, 기초 및 캠페인 브레인스토밍, 웹사이트 업데이트 논의, 추후 일정
- 2차 : 3월 23일(수), 11:00-13:00, 기초 및 메인슬로건 논의, 웹사이트 업데이트 관련 자료조사 검토, 온/오프라인 캠페인 논의
- 3차 : 3월 29일(화), 19:00-21:00, 자료조사 검토-누리과정, 기초노령연금, 에너지자립, 공공임대주택, 인도적 지원 기금 총 3-4가지로 정리해 얼로드 하기로 함. 웹사이트 업데이트 맡은 부분 정리, 캠페인 논의

나. 평가회의 (창석 : 지혜)

- 일시 : 2016년 5월 3일(수), 16:00-18:00
- 내용 : 활동 내역 보고, 결산 보고, 제6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전체 평가

(2) 사업 및 행사

- 일시: 2016년 4월 5일(화) 11:15-12:45
- 장소: 광화문 사거리

- 담당: 지혜
- 내용: 알폰신 모양 피켓 들고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피케팅
- 평가: 2016년 GDAMS 캠페인은 참가 단체들이 축소되고 활동가들 수도 줄어들었다는 악조건 속에서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세계군사비 보고서 발표되는 날에 맞추어 역대에 맞추어 실행가능한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여러 언론사에 기사가 보도되는 성과가 있었다.

1-3. 남북관계의 개선과 동아시아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평화적 관점의 통일, 외교, 안보분야 정책분석 활동

- 평가: 남북관계 개선과 동아시아 평화형성은 북핵문제와 정부의 대북강경책,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 청사되기 어려웠고, 정책분석 활동은 부진하였다.

1-4.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 관련 활동

1) 2016년도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 점검 민관협의회회의

- 일시: 2016년 12월 28일 16:00-18:00
- 장소: 정부종합청사 18층
- 담당: 정경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제협력위원장
- 참석: 8개 부처 및 기관(여성가족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법무부, 교육부, 국민안전처, 한국국제협력단), 시민사회 전문가 6명
- 내용:

1)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행평가

가. 지표

- 국가행동계획에는 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정부가 지표를 사용해 세부과제를 평가하고 있는 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2015년 5월 민관 이행 점검회의에서 지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어서 정부가 지표를 만들었다고 함.
- 모든 과제를 지표를 토대로 평가해야함.
- 정부가 이행한 과제 중심으로 하는 평가는 부분적인 평가에 불과함.

나. 국가행동계획의 이행메커니즘

- 국가행동계획이 각 부처별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통합되는지 온 영메커니즘을 알려달라.

- 이행되는 부분을 부처별로 모아 통합함.

다. 국가행동계획 총괄 주무부처(lead agency) 문제

- 국내적인 차원에서는 국가행동계획 조정을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외교부가 1325와 관련하여 발언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정보를 어떻게 공유, 통합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됨.

라. 예산이 없고 1325호 전달 담당자가 없는 상태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모니터가 진행됨. **시**, KOICA 사업의 경우 각 사업에 젠더 담당관이 있다고 함.

마. 이행점검회의에서 민관협의회의 위상 문제

- 이행점검회의가 1년에 2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관협의회는 불규칙하게 개최되고 있음.

- 이행점검회의에서 민관협의회가 차지하는 위상이 무엇이며, 민간전문가는 observer 인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바. 행동계획 이행 보고 문제

- 행동계획의 이행 현황을 외부공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

- UN 안보리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계획도 없음.

사. 분쟁예방, 여성의 인권보호, 평화과정의 여성 참여 등 1325호를 이행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중요함.

2) 부처별, 세부과제 차원에서 이행 평가 문제

- 다루어야 할 주제가 많고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정부는 관련된 민간단체와 전문가가 결합하여 별도로 이행평가가 필요함.

- 통일부, 국민안전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세부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

- 자연재해가 추가되어야 함.

3) 이행평가의 기준

- 국가행동계획 이행 모니터와 평가는 세부과제 하나하나의 활동(activity) 위주가 아니라 성과/결과(result)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활동 그 자체보다는 국가행동계획이 의도한 성과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통해 평화와 안보의 주체로서 여성의 권한이 강화되고 성평등을 추진하여 여성의 삶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4) 기타

- 2017년에 기존 국가행동계획을 재검토하고 보완하기로 함.
- 국가행동계획 작성과정에서 민간협의 일정 등 잘못 기재된 점 수정요청.
- 국가행동계획의 전체적인 틀이 정리가 만되어서 문제제기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

1-5. 핵 없는 세계를 위한 탈핵, 탈원전 활동 등.

- 평가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회원단체로 연대활동을 진행했다. 서명 동참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1-6. 평가

2016년도 핵심적인 평화통일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016 여성평화결기를, 하반기에는 <여성의 목소리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다>를 꼽을 수 있다.

먼저 한반도 분단 극복을 위한 여성들의 평화통일의지와 역량 강화 활동으로 2016여성 평화결기를 여성-평화-통일 단체들과 함께 5월 24일 세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진행하였다. 2016여성평화결기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왔던 2015 Women Cross Demz와는 다르게 남한 단체들이 주축을 이루어 파주에서 결기행사로 이루어졌다.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외부 조건에 관계없이 남한에서 만이라도 지속적인 여성들의 평화-통일 의지를 드러냈고,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해 갈 수 있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실행위원회 단체로 참가했고 김성은 이사장은 공동대표를, 안김정애 대표는 공동실행위원장을 맡았다. 타 단체에 비해 인적-물적으로 비해 부족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2016여성평화결기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활동했으며 1,000여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이 약6km 코스를 걷는 행사는 무사히 성료되었다. 하반기에는 서울시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여성의 목소리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사업을 진행했다.

군사비 감축 활동으로는 2015년에 이어 세계군축행동의날 캠페인을 2016 세계 군축행동의날 준비위원회와 함께 진행하였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동아시아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평화적 관점의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정책분석 활동은 미비했다.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연안보리걸의 1325 국가행동계획 관련 활동으로 유연안보리걸의안 1325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행을 촉구하는 에드보커시 활동은 진행하지 못했으나, 12월 28일에 정부 주관으로 진행된 국가행동계획 이행점검 민간협의회의가 한 차례 열리기도 하였고, 여성평화결기 심포 행사에서도 유연안보리걸의1325를 주제로 하는 등

일정부분 관련 활동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핵 없는 세계를 위한 달핵, 달원전 활동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회원단체로 서명에 연대하기는 했지만 적극적인이고 활발한 활동은 하지 못했다.

2. 평화여성회 창립 20주년 준비

<2016년 사업계획>

2-1. 2017년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 준비

- 과거 돌아보기와 현재 진단 및 미래 그리기
- 창립 멤버들의 목소리 듣기
- 현재 평화여성회의 위상에 대한 평가 및
- 미래 평화통일 활동가 그룹의 목소리 듣기와 평화통일 청사진 만들기

2-2. 사진, 앨범, 자료 정리

2-1. 평가

창립 초기 멤버 김용옥 선생님과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과 앨범 정리 등 20년사 정리 작업이 진행되었다. 상, 하반기 주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역량을 투입하느라 20주년 기념 자료집 회의가 진행되었지만 자료집 출간계획은 실행이 어려웠다. 인터뷰 대상을 넓히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3. 남북여성협력사업

<2016년 사업계획>

남북여성어 함께 살기 위하여 남북여성연대 차원에서 북한여성과의 교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만남을 기획하고 시행한다.

3-1. 평가

1월 초부터 시작된 북핵위기로 인해 남북여성교류는 전무하였고, 따라서 지속가능한 남북여성 함께 살기 등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불가능하였다. 2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예정되었던 WCD 국제회의에서의 남북여성 상봉 무산. 3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UN CSW 회의에 북측 여성대표단 참석 불발 등으로 남북여성의 만남의 장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다만 민화협 여성위를 통해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다.

4. 대중교육

<2016년 사업계획>

평화로운 한반도를 지향하는 인재를 길러 내고, 여성평화운동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평화운동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평화운동을 알리는 대중교육을 진행한다.

4-1. 청년들을 위한 여성평화 강의, 교육: 찾아가는 여성평화교실

4-1. 강연

1) 해외여성학자 초청 강연회

- 일시 : 2016년 3월 9일(수) 15:00~18:00

- 장소 : 서강대학교 다산관 209B

- 내용 : 호프 메이 교수는 21세기 평화를 위한 전지구적인 제도적 유산을 지난 19세기의 기록에서 복원하며, 기억의 의무와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유연 안보리 결의안 1325를 비롯한 현재의 글로벌 시민사회의 규범이 과거의 평화를 위한 노력의 성과라는 점을 기록의 발굴을 통해 밝히며, 평화운동을 위한 노력이 지니는 지속성과 힘을 이야기한다.

- 프로그램

15:00 ~ 15:10	개회		
15:10 ~ 17:00	사회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발표	Hope May	Central Michigan University
	토론	김엘리 조영미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한국 YWCA 연합회
17:20 ~ 18:00	자유토론		

- 주관: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주최: 평화를만드는여성회/센터정치연구소 여.세.연

4-2. 평가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관하고 여세연과 공동주최로 호프 메이 교수 강연회를 진행했다. 여성평화운동의 역사성에 대해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2016년 사업계획 '찾아가는 여성평화교실'은 기획과 실행이 어려웠다.

5. 일상의 평화문화 확산 운동

<2016년 사업계획>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폭력적 문화가 확산되는 사회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일상에서 평화문화를 확산시키는 활동을 전개한다.

5-1. 군사적 폭력 문화 대응

5-1. 평가

군사적 폭력 문화에 대응하는 활동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실행이 미비했으며, 일상의 평화문화를 확산하는 대중 캠페인은 진행되지 못했다.

[3] 정보·홍보 사업

<2016년 사업계획>

1.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관리, SNS 평화활동 등
2. 소식지 발행 및 온라인 소식지 발송
3. 데일을 통해 본 회 소식 전달

1. 온라인소식지 발송 (담당: 지혜)

1) 2월호

- 발송일 : 2016년 2월 3일(수)
- 내용 : 1월 활동보고 및 공제(송희보고, 백남기농민 재유기원 여성 1000배, 위안부 합의무효 여성간금행동, 활동가 변동사항 등), 후원회비 납부자 명단보고

2) 간금 뉴스레터 발송

- 발송일 : 2016년 2월 18일
- 내용 : 사드배치반대 평화행동, 여성대회 소식

3) 뉴스레터 발송

- 발송일 : 2016년 2월 25일
- 내용 : 테러방지법 반대서명, 한일합의 전국행동의날 알림

4) 3월호

- 발송일 : 2016년 3월 2일

- 내용 : 2월 활동보고 및 공지(여성평화건기WCD 발리회의 보고, 사드배치반대 평화행동 보고, 김지호총무국장 통일부장관 표창 수상소식, 여성대회 공지, 해외학자초청강연회 공지, 12차 여성평화수다방 공지 등), 후원회비 납부자 명단보고
- 5) 4월호
- 발송일 : 2016년 4월 6일
 - 내용 : 3월 활동보고 및 공지(해외학자초청 강연회 보고, 12차 여성평화수다방 보고,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NGO포럼, 시민평화포럼 토론회 보고, 13차 여성평화수다방 일림등), 후원회비 납부자 명단보고
- 6) 5월호
- 발송일 : 2016년 5월 11일
 - 내용 : 4월 활동보고 및 공지(GDAMS 캠페인 보고, 여성평화수다방 보고, 여성평화건기, 심포지엄 소식, 6/8 수요시위 주관 알림 등), 후원회비 납부자 명단보고
- 7) 6월호
- 발송일 : 2016년 6월 7일
 - 내용 : 5월 활동보고 및 공지(2016 여성평화심포지엄 및 여성평화건기 보고, 갈음중 학교 학생 방문 보고, 정경관 국제협력위원장 박영숙살림이상 수상 보고, 6/8 수요시위 주관 알림, 6월 25일 평화 플래시 옴 등), 후원회비 납부자 명단보고
- 8) 회원정보 재정비 알림 매일 발송
- 발송일 : 2016년 6월 23일(목)
 - 내용 : 회원정보(전화번호, 주소 등) 설문
- 9) 7월호
- 발송일 : 2016년 7월 11일(월)
 - 내용 : 6월 활동보고 및 공지(제 1234차 수요시위 보고, 14차 여성평화수다방+영화연개, 평화를 추추자 플래시옴 보고, 회원정보설문 진행알림, 신인시 청년센터활동가 소개 등), 후원회비 납부자 명단보고
- 10) 평화를 추추자 공지에일 발송
- 발송일 : 2016년 7월 23일(토)
 - 내용 : One Billion Rising 광화문 플래시옴과 사드 반대 청원 동참 요청
- 11) 8월호
- 발송일 : 2016년 8월 11일(목)
 - 내용 : 7월 활동보고 및 공지(사드배치 결정철회촉구 시국회의 보고, 15차 여성평화

수다방 보고, '화해와 치유재단' 설립규탄 기자회견 보고, 2016생명평화대행진 보고,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소식, 제 4차 일본군 '위안부'기림일 맞이 세계행동 알림 등), 후원회비 납부자 명단보고

12) 평화여성회 후원회원 대상 후원요청 편지 발송

- 발송일 : 2016년 8월 30일(화)

- 내용 : 회비증액 요청

13) 9월호

- 발송일 : 2016년 9월 11일(일)

- 내용 : 8월 활동보고 및 공지(여성의 목소리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다>1차시 소식, 4차 나비문화제, 8.15대회, DMZ한정탐방 알림, 9월 평화물춤추자 등), 후원회비 납부자 명단보고

14) 한가위 인사 매일 발송

- 발송일 : 2016년 9월 12일(월)

- 내용 : 한가위 인사

15) 10월호

- 발송일 : 2016년 10월 10일(월)

- 내용 : 9월 활동보고 및 공지(정부의 북한수혜지원 촉구 기자회견, 백남기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 북한 큰 물 피해 성금 모으기, 2016 여성평화결기사진전 등), 후원회비 납부자 명단보고

16) 11월호

- 발송일 : 2016년 11월 18일(금)

- 내용 : 10월 활동보고 및 공지(여성평화결기사진전 오프닝 리셉션, 시국선언 소식, 사드저지 전국민평화행동 보고, 여성평화결기사진전 공지, 11월 평화물 춤추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캠페인 등), 후원회비 납부자 명단보고

17) 12월호

- 발송일 : 2016년 12월 9일(금)

- 내용 : 11월 활동보고 및 공지(박근혜퇴진 국민행동의 날 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 시민사회 시국선언, 한반도 사드배치 철폐를 위한 여성 1만인 선언 공지, 군의문사 유족 연극 동창요청, 12월 평화물 춤추자 공지 등), 후원회비 납부자 명단보고

2.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관리

1) 홈페이지·페이스북 업데이트

- 내용 : 본 회 활동 알림, 사업 공지 등 지속적으로 홍보함.
- 비고 :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버튼을 누른 사람 수 741명
(2016년 12월 16일 기준/2016년 1월 1일 기준 535명)

3. 평화여성회 소개 및 방문 인터뷰

1) 김음중학교 사회참여 체험학습 NGO단체 방문

- 일시 : 2016년 5월 25일(수) 10:00~13:00
- 내용 : 평화여성회 소개(프레지 활용), 수요시위 참석
- 장소 : 여성미래센터 1층 소풍방
- 대상 : 김음중학교 학생, 민솔교사
- 참석 : 안김정애, 김지호, 지혜

4. 기타

1) 제 2회 박영숙 살림어상 평화부문 수상 : 정경란 국제협력위원장

- 내용 : '박영숙 살림어상'은 여성활동가 故 박영숙 선생을 기리고 현장 여성활동가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지원 자격은 성평등, 생명(환경), 평화 3개 분야에서 관련활동을 3년 이상 한 여성활동가로 각 분야에서 1인씩 수상자가 선정되며 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3백만 원이 수여된다.
- 시상식 : 2016년 5월 27일 18:00~20:00
- 참석 : 안김정애 외 6명(2016여성평화경기 WCD 측 참석자 Meri Joyce, Kozue Akibayashi, Ann Wrihgt, Choi Aeyoung 등)

5. 평가

홈페이지 관리, SNS계정 관리, 온라인 소식지와 공지메일 발송이 꾸준히 이루어 졌다. 2015년에 이어 김음중학교 학생들이 사회참여수업으로 평화여성회에 방문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화여성회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2016년 1월 500명대에서 12월에는 700명대로 증가했다. 온라인상에서 인지도가 조금씩 올라간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보완할 점은 기사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홍보활동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4】 회원 사업

<2016년 사업계획>

회원 간의 소통과 활동의 정보교류를 통해 회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양성과 역량을 확대 강화한다.

1. 여성평화모임: 여성평화수다방

1. 여성평화수다방

1) 목표:

- 여성의 입장에서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평화라는 개념을 구체화하고, 일상에서 평화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탐구.
- 여성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 모색.
- 여성이 평화로운 일상, 사회,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시각과 대응방식이 필요한지 논의.
- 젠더적 관정을 통한 한국사회 고찰

2) 방식:

- 여성과 평화 관련된 영화나 책, 강의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며 여성주의, 여성주의적 평화, 평화운동 안에서의 여성주의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눔.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내고 현재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눔.
- 꾸준한 참여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성장하고, 관점을 확장시키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나감.

3) 모임 (담당 : 지혜)

가. 여성평화수다방 모임

- 12차 : 3월 12일(토) 11:00~15:00, '이민자'
- 13차 : 4월 23일(토) 11:00~15:00, '캐럴' 2명
- 14차 : 6월 18일(토) 11:00~15:00, '이웃집에 신이 신다' 8명
- 번개 : 6월 18일(토) 11:00~15:00, '서프러제드' 6명
- 15차 : 7월 23일(토) 11:00~15:00, '왓즈다' 5명
- 16차 : 9월 10일(토) 10:30~14:00, '왓일드' 5명

- 17차 : 12월 17일(토) 13:30~17:00, '미생', 4명

2. 회원가입 및 탈퇴현황

1) 회원 가입

(1) 회비종액 : 1명

한산석

(2) 가입 : 26명

1월- 최형숙, 김주일

2월- 유지연, 정현아, 이드화, 유덕정, 이명화

3월- 정유미, 송은아, 최경희, 이인선

4월- 이지혜, 김명신

7월- 윤선희, 김은하

8월- 유병수, 구명신

9월- 오주연, 김선미, 차지은

10월- 박금숙, 고은광순, 심용선, 오경진, 이인영

11월- 박미란

12월- 진인자

2) 회원 탈퇴 : 15명

(1) 탈퇴 : 정진화, 황말희, 한복임, 김선일, 이미자, 이춘, 김현숙, 박한, 심규선, 김양순, 장윤경, 이은하, 이은진, 율미량, 한명리, 박종호, 이진우

3. 회원사업 준비

1) 회원 사업, 주제 : 타로로 이야기하기

(1) 1차 기획회의

- 일시 : 2016년 2월 18일 18:00-19:00

- 장소 : 사무실

- 참석 : 김지호, 이항림

- 내용 : 타로로 이야기하기, 회원마당 or 워크숍으로 진행하기

4. 평가

회원사업으로 여성평화수디방은 총 7차례 진행되었다. 영화를 보며 안전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3년이 넘게 지속되면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평화수디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을 실행하지 못한 것이다. 2016년 회원 현황은 가입 26명, 탈퇴는 15명으로 탈퇴인원이 지난 해보다 증가했다.

【5】 재정 사업

<2016년 사업계획>

1. 꽃감 판매 등
2. 창립 20주년 기념 기금 마련

1. 꽃감판매

- 판매 기간 : 12월-판매중

1-1. 평가

재정사업으로 꽃감 판매가 진행 중이다. 창립 20주년 기금 마련 사업은 진행되지 못했다.

【6】연대 및 협력사업

1. 국내 상설연대

- 1) 한국여성단체연합: 총회, 이사회, 통일평화위원회(임원회의), 사무국장연석회의, 여성미래센터 운영위원회, 3·8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 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의원총회, 수요시위 주관
- 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남측위원회 운영위원회, 여성본부
- 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대의원회, 여성위원회, 집행위원회

1-1. 한국여성단체연합

• 담당

- 이사, 통일평화위원장, 여성미래센터 운영위원: 안김정애
- 사무국장연석회의,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김지호
- 여성미래센터 입주단체 공동체회의: 김지호

1) 회의

(1) 정기총회

- 일시 : 2016년 1월 12일 ~ 1월 13일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 참석 : 안김정애, 김지호

(2) 사무국장 연석회의

- 일시 : 2016년 2월 16일(화) 14:00-17:00
- 장소 : 1층 소풍방
- 참석 : 김지호 총무국장
- 내용 : 연대활동 소개, 38관련 안내, 회계교육, 회의일정 잡기 등

(3) 평화통일사업 관련 논의

- 일시 : 2016년 8월 9일(화), 13:00-14:30
- 장소 : 여성미래센터 허스토리홀
- 참석 : 안김정애, 김금옥, 박차옥경

(4) 2016년 정책수련회(3차 이사회)

- 일시 : 2016년 8월 25일(목)-8월 26일(금)
- 장소 : 대전 동학신장
- 참석 : 안김정애

(5) '한국여성단체연합 통일평화운동 30년사'(김정수) 초고 검토 회의

- 일시 : 2016년 10월 4일(화), 17:30-19:00
- 장소 : 여성미래센터 1층 Herstory hall
- 참석 : 안김정애(김정수, 김금옥)
- 내용 : 여변 30년사 중 통일평화운동(병역 관련 부분)에 대한 집필 방향, 서술 방법 등 논의

(6) 4차 이사회

- 일시 : 2016년 11월 2일(수)-11월 3일(목)(1박 2일)

- 장소 :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원
- 참석 : 안김정애
- 내용 : 1) 2016여성운동아카데미-'마법의 스프' 만들기 리더십 두 스콘
2) 4차 이사회

(7) 여연 1차 총준위

- 일시 : 2016년 11월 24일(목), 11:00-15:00
- 장소 : 여성미래센터 지하 교육장
- 참석 : 안김정애

(8) 여성미래센터

가. 입주단체공동체회의

- 1차 : 3월 29일(화), 수도권 과대발생에 대한 누수상황 안내, 공용부분 청소에 대한 부담 안내, 대관사항 안내 등
- 2차 : 5월 27일(금) 11:00~13:00, 바자회를 겸한 포드럭 파티로 미래센터 활동기간의 인사 나눔
- 3차 : 10월 18일(화), 15:00-16:00, 미래센터 업무관련 보고 및 차후 일정 논의

2) 기자회견

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여성단체 시국선언

- 일시 : 2016년 11월 3일(목), 14:00-15:00
- 장소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 참석 : 안김정애, 지혜, 신민시
-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3) 행사 및 활동

(1)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가. 여성대회 관련 긴급 실무임원회의

- 일시 : 2016년 2월 25일(목), 10:00-12:00
- 장소 : 여성미래센터 지하 교육장
- 참석 : 안김정애

- 내용 :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관련 대응(여성가족부의 명칭 후원 불가, 행사 후 재정지원 조건부 지급 등에 대한 대책 논의)

나. 제 32회 한국 여성대회

- 일시 : 2016년 3월 5일(토), 13:00~16:00
 - 장소 : 서울시청 다목적홀
 - 슬로건: "희망을 연결하라 - 모이자 행동하자 바꾸자"
 - 참석 : 안김정애 대표 외 10여명 회원
- (2) 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의 밤
- 일시 : 2016년 10월 6일(목), 18:00~20:00
 - 장소 :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 참석 : 안김정애

1-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 회의

(1) 대표자회의

- 일시 : 2016년 2월 2일(화) 15:00
- 장소: 정대협 교육관
- 참석: 안김정애, 지혜

2) 행사 및 활동

(1) 정의와 기억재단 모금활동

- 일시: 2016년 2월 17일
- 인원: 12명
- 모금액: 238,660원

(2)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무효 전국행동의 날

- 일시: 2016년 3월 1일(화) 15:00~17:00
- 장소: 청계광장
- 참석: 지혜, 안김정애

(3) 제 1234차 수요시위 주관

- 일시 : 2016년 6월 8일(수) 12:00~13:00
- 장소 : 평화로 일본대사관 앞
- 참석 : 김명신, 김성은, 김지호, 김진희, 안김정애, 이권명희, 지혜
- 사회 : 이권명희 회원
- 단체소개 : 안김정애

- 성명서 작성/낭독 : 지혜
- (4) 제 1243차 수요시위 및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집회
 - 일시 : 2016년 8월 10일(수) 12:00~13:00
 - 장소 :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 참석 : 지혜, 안김정애
- (5) 기림일 맞이 나비문화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 일시 : 2016년 8월 14일(일) 17:00~19:00
 - 장소 :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 참석 : 지혜
- (6)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제 단체 시국선언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11월 3일(목), 11:00-12:00
 - 장소 : 광화문광장
 - 참석 : 지혜, 신민시
 - 주최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및 연명단체
- (7) 제 1256차 수요시위 주관
 - 일시 : 2016년 11월 9일(수) 12:00~13:00
 - 장소 : 평화로 일본대사관 앞
 - 참석 : 김명신, 김성은, 신민시, 안김정애, 이권명희, 지혜, 박수선, 김철아
 - 사회 : 이권명희 회원
 - 단체소개 : 안김정애
 - 성명서 작성/낭독 : 신민시

1-3.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 담당

- 남측위원회 운영위원, 여성본부: 안김정애(상임대표), 지혜/신민사(집행위원)

1) 회의

(1) 상임대표단 회의

- 일시 : 2015년 2월 27일(금) 08:00 - 10:00
- 장소 : 6-15 남측위원회 사무실
- 내용 : 6-15민족공동위원회 실무접속 보고, 사업보고

- 참석 : 안김정애

(2) 6기 1차 운영위원회

- 일시 : 2015년 3월 20일(금) 15:00-17:00

- 장소 : 6-15 남측위원회 사무실

- 참석 : 안김정애

- 내용 : 6-15민족공동위원회 실무접촉 보고, 사업보고

(3) 대표자 회의

- 일시: 2015년 4월 1일(수) 10:00-11:00

- 장소: 광학문 프레스센터 20층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광복 70돌 민족 공동행사 준비위 발족식 추진, 사업보고 및 공유

2) 여성본부

(1)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의 여성본부 총회준비위원회

-일시: 2016년 2월 17일 10:00-13:00

-장소: 2층 여성교회

-참석: 안김정애

(2)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의 여성본부 총회

-일시: 2016년 2월 18일 15:00-18:00

-장소: 여성미래센터 지하 교육장

-참석: 안김정애, 지혜

- 내용 : 개성 남북여성모임 영상 상영, 소감 발표, 총회(상임대표 사임/자기 상임대표
장상연합회 권외희 수녀)

(3) 여성본부 회의

- 1차 : 5월 3일(화), 14:00-16:00, 남북여성교류 관련 건, workshop 관련 건

- 2차 : 6월 3일(금) 10:00-12:00

- 3차 : 8월 22일(월) 14:00-15:00, 남북여성교류 관련 논의, 사드반대여성행동, 1박 2

일 수련회

- 4차 : 10월 17일 (월), 남북여성교류 추진의 건, 10.2 심양, 실무접촉 보고의 건

- 5차 : 11월 23일(수), 남북여성교류 추진 계획 및 11.30. 심양실무회담 참가 건, 연석
회의 추진과 관련한 여성본부계획, W/S 일정 등 논의

(4) 사드배치 반대 여성행동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8월 22일(월), 11:00-12:00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참석 : 신민시, 이지혜, 안김정애
- 내용 : 사드배치 반대 여성계 목소리 내기, 춤 플래시몹, 기자회견 등

(5) 백남기농민 국회청문회 촉구 여성계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8월 22일(월) 12:00-13:30
- 장소 : 새누리 당사 앞
- 참석 : 안김정애, 신민시, 지혜

(6) 재일조선여맹의 위안부협약 제안 관련한 긴급회의

- 일시 : 2016년 10월 28일(금), 09:30-11:00
- 장소 : 정대형 회의실
- 참석 : 안김정애
- 내용 : 재일조선여맹의 11월 말 심양회의 제안에 대한 토의(현 복잡한 국내상황 통보, 내년으로 미룰 것 결정)

3) 행사 및 활동

(1) 핵안보정상회의와 한미일정상회담에 즈음한 727인 평화선언 연명

- 일시: 2016년 3월 31일(목)
- 참가: 김지호, 안김정애, 지혜

(2)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방향과 과제

- 일시 : 2016년 6월 2일(목) 14:00-18:00
- 장소 : 프란치스코 회관 220호
- 참석/발표 : 안김정애,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조약 체결을 위하여 : 2015 WCD와 2016 여성평화건기"

(3) 615민족공동행사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6월 8일(수) 11:00-12:00
- 장소 : 광화문 정부 청사 앞
- 참석 : 안김정애

(4) 1일 농성

- 일시 : 2016년 6월 13일(월) 10:00-22:00

- 장소 : 광화문 정부 청사 앞
 - 참석 : 안김정애
 - 내용 : 615 민족공동행사 보장을 위한 시위 및 농성/촛불 문화제
- (5) 615여성본부 남북경협 농성지지 방문
- 일시 : 2016년 10월 19일(수), 10:00-12:00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농성장
 - 참석 : 안김정애
- (6) 민간교류원천봉쇄규단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11월 9일(수), 10:00-11:00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 참석 : 안김정애
 - 주관 : 615 등 남북교류재개 촉구 단체

1-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담당

- 대의원회, 여성위원회

1) 회의

(1) 여성위원회 회의(참석: 안김정애)

- 1차 : 2월 19일(금), 10:00-13:00, 2016년 여성위 사업 검토
- 2차 : 3월 31일(목), 10:00-12:00, (가칭)'여성평화생태마을' 관련 보고 및 논의, 지역 여성들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사업 논의 등
- 3차 : 8월 31일(수), 10:30-12:30, 부산여성포럼 결과 보고/하반기 사업 논의

(2) 정기 대의원회

- 일시: 2016년 2월 24일 14:00~16:00
- 장소: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
- 참석: 안김정애, 김지호, 정유미
- 내용: 통일부장관상 수상(김지호 총무국장), 2015년 사업/결산보고, 2016년 사업/예산 보고

2) 행사 및 활동

(1) 제2차 회원단체 간담회

- 일시 : 2016년 3월 23일(수), 10:30-13:00
- 장소 : 민화협 회의실
- 참석 : 김지호
- 내용 : 북핵 실험 이후 동북아 정세 변화와 남북관계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2) 2016 민화협 회원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수요조사

- 일시 : 2016년 3월 7일
- 대상 : 김지호 국장

(3) 여성위원회 <여성평화 생태마을> 추진을 위한 간담회

- 일시 : 2016년 5월 11일(수), 10:30-12:00
- 장소 : 민화협 회의실
- 참석 : 안김정애, 김지호
- 주제발표 : 김일한 / 동국대 DMZ 평화센터 연구교수

(4) 2016 민화협 회원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向上

- 일시 : 2016년 5월 3일(화), 17:30-20:30
- 장소 : 민화협 대회의실
- 참석 : 지혜
- 프로그램 : 3강 「컴퓨터 및 구글 활용법」 (강사: 이동현)

(5) 2016 여성평화통일 부산포럼

- 일시 : 2016. 6. 21 ~ 6. 22
- 장소 : 부산 코모도호텔
- 내용 : (부제) 왜 여성들이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가
- 참석 : 안김정애

(6) 여성위원회 - 통일을 희망하는 '거제통영기행'

- 일시 : 2016. 8. 26(금) ~ 8. 27(토)
- 장소 : 경남 거제, 통영일대
- 프로그램 :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한산도 제송당, 동피랑 탐방 등
- 참석 : 이덕경

2. 국내 사안별 연대

<2016년 계획>

2-1. 핵없는 세상을 위한 시민공동행동

2-2.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반대 전국대책위원회

2-1. 핵없는 세상을 위한 시민공동행동

1) 회의

(1) 핵없는사회 공동행동 집행위원회

- 일시: 2016년 2월 4일 11:00~12:30
- 장소: 환경운동연합 사무실
- 참석: 지혜
- 내용: 후쿠시마 행사 관련 논의

2-2. 제주도 해군기지건설반대 전국대책위원회

1) 행사 및 활동

(1) 강정마을 후원주점 “모여라 평화의 달인들!” 연대활동

- 일시: 2016년 6월 4일 19:00~23:30
- 장소: 울지로 태청골명이
- 참석: 지혜 (서빙 지원)

(2) 강정생명명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

- 일시: 2016년 7월 31일(일)- 8월 6일(토)
- 장소: 제주도 일대
- 참석: 안김정애, 지혜

2-3.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대화와 소통

1) 북한 수해 지원,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2016년 9월 26일(월), 10:00-11:00
- 장소: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 참석: 안김정애(여성계 대표 발언)

2-4. 사드 배치 관련 대응

1) 회의

(1) 사드배치 시민사회 공동대응방안논의 회의

- 일시 : 2016년 7월 11일 09:00-10:00
- 장소 : 참여연대
- 참석 : 지혜

(2) 사드 대응 시민사회 워크숍

- 일시 : 2016년 7월 20일 16:00-18:00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참석 : 지혜, 안김정애

- 내용 : 참여연대, 민변, 녹색연합에서 쟁점 공유/ 사드배치 대응 활동 관련 논의

(3) 사드 관련 시민사회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간담회

- 일시 : 2016년 7월 29일 10:00-12:00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참석 : 지혜

- 내용 : 사드 관련 시민사회 공동대응기구 구성 논의

(4) 사드 공동대응기구 제안단체 회의

- 일시 : 2016년 8월 9일 14:00~16:00
- 장소 : 참여연대 이룸드림홀
- 참석 : 지혜

- 내용 :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전국대책기구 결성 준비, 각 단체 사업계획 제안

(5)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가) 결성을 위한 집행책임자 회의

- 일시 : 2016년 8월 18일 14:00-16:00
-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 참석 : 지혜

- 내용 : 성주 대책위 현황 및 사드한국배치관련 정세, 사드한국배치반대 전국대책회의 (준) 활동 경과 공유/ 참가단체 현황 및 확대 논의/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가) 구성(안) 논의

- 참가단체 : 평화와통일동아는사람들, 사이사션, 전국학생행진, 한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인보연대, 진정연대평화실용국민행동, 민주주의자유통일대생협합회, 통일지경, 10·28선대중생기념사업회(준),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사드배치철폐청년학생연대(준), 한국청년연대, 사회연혁노동자당, 민주주의국민행동, 노동자연대, 열린군대총회한사연대, 평화실현하는여성회, 참여연대, 전국실거인협의회, 이명박근혜실권운동본부, 사월여명회

2) 행사 및 활동

(1) 사드 배치 반대 평화 행동

- 일시: 2016년 2월 19일 19:00-20:30
- 장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참석: 지혜

(2) 전국 88개 시민사회단체, 사드 배치 예정지역 20대 총선 후보자 입장 공개질의 연명

- 일시: 2016년 3월 30일

(3) 전국 88개 시민사회단체, [보도자료] 사드 배치 예정지, 국회의원 후보들은 어떤 입장일까? 연명

- 일시: 2016년 4월 11일

(4) 사드 한국배치 반대 시민사회-지역단체 공동 워크숍

- 일시: 2016년 6월 1일 15:30-19:00
- 장소: 민주노동 15층 교육원
- 참석: 지혜

(5) 기자회견연명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한미일 MD 및 군사동맹 구축, 일본군의 남한 재상륙을 반대한다!"

- 일시: 2016년 6월 5일

- 연명참가단체: 사드한국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 사드한국배치반대 전북대책위, 노동자연대, 사립학평회, 사회진보연대, 배수상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물언트는여성과, 평화연합군인회

(6)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 일시: 2016년 7월 13일(수) 10:00-12:00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한국정치연구회
- 참석: 지혜

(7) 사드배치철폐 범국민평화행동

- 일시: 2016년 8월 14일(일) 19:00-21:00
- 장소: 서울시청광장
- 참석: 지혜

(8)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가) 대표자 회의 및 기자회견

- 일시: 2016년 8월 18일(목) 19:00-21:00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참석 : 지혜
- 사드배치 저지 전국행동 참가단체

(사)한국전쟁추진간담회(사)한국노총회 1028대학추진연대(행기)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건강건설원유원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청년고실련년련의사회) 경제총연합회 구족노동자위원회 금강굴민권연대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원회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전선 녹색당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단군교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헌천족운동단체인한 국조단군기념사업회 독립운동기념사업회 민족문화추진회) 민족정신수호위원회 백두산국선도단군문화원 배달정년연합 총의생명사랑의 단군권선안위원회 배달공동체 단군고구려연구회 고조선연구소 헌천족통일연구소 한독당동지회 한독당연구소 한민족여성대학 민족선도기초촌 단군문화연구소) 연가협합성수위원회 민족연우협의회(생자후요(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사주생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총회의 민주인생문화통일추진연대 민주사회문화재단연구소) 민주연론시안연합 민주주의국민연맹 민주주의자유총연대학생협의회 민주화운동추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연합당 불교평화연대 빈민해탈실천연대 시도해치실화장관학생진군행동 사월혁명회 사이시선 사회연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새마을이나 새사회연대 서울민주행동 시민생화포럼 열린군대물류봉사단연대 매수살기 우리미래학사(지)운동본부 우리민족연방통일추진회의 황포교사회(개)교무단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킹 이명박근혜실천반국민행동본부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지) 전국민권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생시민협의회 전국카톨릭농민회 전국학생평민 진평연대평화실천국민연맹 제주군사기지사지(우)평화회실천원유원보건의료단체협의회(국)교육학부모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본부 제주경제인권생애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제주참여환경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맹 4.3연구회 제주주인자치연대 일다자치연대 제주NGO 제주완결운동연합 제주민해소 노조대항총 4.3도민회 제주연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회본부 양승찬법사주무사업회 서귀포야외지 기독교장로회정의평화위원회 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천주교평화특위 민주주의제주연대 노동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녹색당제주 곳자활사업회 제주연인회 제주통일실천회 제주주인자치연대 호국통일민족연합남측본부 추방야군병희군실종본본부 진보대통합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신위위원회 천주교청화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청화구현한국연합 통일실상 통일참여 통일지침 명예스카인평화연대 평화교육포럼(주)평화포럼 평화네트워킹 평화실현뜨는이성의 평화야당 평화사랑 평화의동행유머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한국연맹 한일군사합동연대(국)인명동 AWC(한국)위원회

(9) 서울지역 사드저지 촛불

- 일시 : 2016년 8월 26일(금) 19:30~21:0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앞
- 주최 :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 참석 : 지혜(발언담당)

(10) 국회 사드 특위 구성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9월 5일(월) 11:00~12:00
- 장소 : 국회 정문
- 주최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참석 : 안김정애(기자회견문 낭독)
- 내용 : 국회에 사드특위를 구성할 것

(11) <사드성주배치 발표 및 촛불 60일에 즈음한 전국 60곳 평화행동>

- 일시 : 2016년 9월 9일(금) 19:30~21:0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앞
- 주최 :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 참석 : 신민시

(12) 사드 배치 '제3부지' 발표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9월 30일(금) 13:30~15:00
- 장소 : 국방부 정문
- 참석 : 안김정애, 지혜
- 주최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13) 사드저지 범국민평화행동

- 일시 : 2016년 10월 22일(토) 14:00~16:00
- 장소 : 청계천 광통교
- 참석 : 지혜
- 주최 :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2-4. 기타

1) 평화·통일운동, 여성운동, 군축활동 등 관련 활동

(1)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건 관련

가. 백남기농민 재유를 바라는 도보행진

- 일시 : 2016년 2월 26일(금) 13:00~19:00
- 장소 : 안산~안양
- 참석 : 지혜
- 내용 : 도보 행진 및 안양역 앞에서 촛불집회

나. 백남기 농민 추모 촛불집회

- 일시 : 2016년 9월 28일(수), 23:00~24:00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 참석 : 지혜, 신민시
- 주최 : 백남기 투쟁본부

다.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

- 일시 : 2016년 9월 29일(목), 11:00~12:00

-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 참석 : 안김정애
- 주최 : 백남기 투쟁본부

라. 10.8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

- 일시 : 2016년 10월 8일(토), 15:00~18:00
- 장소 : 서울 대학교이화사거리앞(종로까지 행진)
- 참석 : 지혜
- 주최 : 백남기 투쟁본부

마. 백남기 농민 추모 촛불집회

- 일시 : 2016년 10월 17일(일), 19:00~20:00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 참석 : 지혜, 안김정애
- 주최 : 백남기 투쟁본부

바. 백남기농민 민주사회장 영결식

- 일시 : 2016년 11월 5일(토), 14:00~16:30
- 장소 : 광화문광장
- 참석 : 안김정애, 지혜, 신인시
- 주최 : 백남기 투쟁본부

(2) 시민평화포럼

가. 1차 정책포럼

- 일시 : 2016년 3월 30일(수) 14:00~17:00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내용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형정의 미래를 묻는다>라는 주제로 토론회 진행
안김정애 대표 발제 - '여성의 힘으로 평화를: WomenCrossDMZ
- 주관 : 시민평화포럼
- 주최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 참석 : 안김정애, 지혜

나. 대화포럼 "한국시민사회가 본 남북관계 개선방안"

- 일시 : 2016년 6월 22일 10:00~12:00
- 장소 : 티마크 그랜드 호텔
- 참석 : 지혜

다. 2차 정책포럼

- 일시 : 2016년 11월 16일(수) 14:00-18:00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참석 : 지혜
- 주최 : 민주주의국민행동, 시민평화포럼, 평화네트워크
- 내용 : 미국 대선 이후의 한반도, 한반도 평화협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라. 2016 평화-통일활동가 워크숍

- 일시 : 2016년 11월 25일(금), 14:30-19:40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참석 : 지혜
- 주최 : 시민평화포럼
- 내용 : 한반도 정세, 현대전략토론회

(3) 평화를 총추자 One Billion Rising 플래시몹 (참가 : 안김정애, 지혜)

가. 플래시몹

- 6월 : 6월 25일(토) 14:00-15:00, 광화문 광장
- 7월 : 7월 25일(월) 19:00-20:00, 광화문 광장
- 8월 : 8월 25일(목) 19:00-20:00, 광화문 광장
- 9월 : 9월 25일(토) 14:00-15:00, 광화문 광장
- 10월 : 10월 25일(화) 18:00-20:00, 광화문 광장
- 11월 : 11월 25일(금), 18:00-19:00, 광화문 광장
- 12월 : 12월 25일(일), 14:00-15:00, 광화문 광장

(4) 2017 김포매항제

- 의미 : 매항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신앙풍습으로 고려 초기인 11세기 초부터 민간에서 행해지고 있었으며, 고려 충선왕대부터 조선 세종 때까지 널리 행해졌음. 지역적으로는 한반도의 동서남해안 모두에 걸쳐서 대항이 이루어졌음. 매항제의 의미는 사회적 으로는 국가의 태평과 안녕 또는 공동체적 유대의 회복, 강화에 대한 현실적 소망이 담겨있음. 세계의 어느 민족도 알뜰이 민중이 스스로 이러한 일을 한 적이 없으므로 매항의 위대한 정신을 이어가고자 함.
- 2017 김포매항제의 의미 : 한반도에서 자행된 침탈과 분단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신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 고통의 한과 망향의 그리움을 관용, 용기, 자비, 사랑, 평화의 상징으로 승화하여 그 의미를 우리 삶 속에 되새겨 보려함.(위안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생명,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김포대항제)

가. 준비회의 (참석: 여혜숙)

○ 1차 회의(예비모임):

- 일시: 2016년 7월 14일(목) , 김포여성의전화 사무실
- 참석: 최은숙, 안영미(김포여성의전화), 여혜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 내용: 김포 대항제역 재안 및 주관단체를 여민문화연구소, 김포여성의전화, 평화를만드는여성회로 하기로 하고 참여단체 확대, 정대협과 연락하여 길원옥 할머니의 신발을 받기로 하다.

○ 2차 회의

- 일시, 장소: 2016년 7월 19일(화) 15:00-17:00, 김포여성의전화 사무실
- 참석: 김수주(여민문화연구소), 최은숙, 안영미(김포여성의전화), 여혜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 내용: 앞으로의 일정확인, 단체 확대건, 조강개방촉구건

○ 3차 회의

- 일시, 장소: 2016년 8월 5일(금) 15:40-17:00, 김포여성의전화 사무실
- 참석: 김수주(여민문화연구소), 최은숙(김포여성의전화), 여혜숙(평화여성회)
- 내용: 홍보시기 방법 논의, 정대협이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당일 길원옥 할머니 참석.

○ 4차 회의

- 일시, 장소: 2016년 9월 20일(화) 15:00-16:30, 김포여성의전화 사무실
- 참석: 김수주(여민문화연구소), 최은숙, 안영미, 임은옥(김포여성의전화), 여혜숙(평화여성회)
- 논의내용: 홍보, 길원옥 할머니 방문 날짜 정하기

○ 10월 14일(금) 13:00-15:00 길원옥 할머니 방문, 신발 받고 발본 뜨기

- 참석: 김수주, 대학생 4명(여민문화연구소), 임은옥, 안영미 (김포여성의전화), 김성은, 여혜숙(평화여성회), 김포TV, 사진작가

○ 11월 18일(금) 15:00-16:00 길원옥 할머니 한 쪽 발 본뜨기

- 참석: 김수주, 대학생 (여민문화연구소), 임은옥, 안영미(김포여성의전화)

○ 11월 20일(일) 정대협 후원의 날 : 임은옥, 안영미 (김포여성의전화) 참석

○ 5차 회의

- 일시-장소 : 2016년 11월 25일(금) 15:00-16:30 , 김포여성의전화 상담실
- 참석: 김수주(여민문화연구소), 임은옥, 안영미(김포여성의전화) 여혜숙(평화여성회)

- 논의내용 : 추가참여 확정 단체 확인-평화어머니회, 정신대대책협의회, 김포아이공생협, 김포여성단체협의회, 김포차인회, 김포경실련, 이학산 목사(작은자의교회), 김포TV, 김포 더민주 여성위원회, 추가확대단체와 연락 역할분담: 참교육학부모회 김포지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평화여성회), 김포시민단체연대 (김포여성연진화)

나. 김포매향제추진위원회 1차 확대모임

- 일시, 장소: 12월 7일(수) 17:00, 김포시의회 북카페
- 참석: 평화여성회, 김포여성연진화, 여민문화연구소, 김포여성단체협의회, 김포차인회, 김포TV, 작은자의 교회, 황인문
- 논의내용: 명칭, 조직, 분담금

(5) 탈선

가. '탈선'과 미팅

- 일시 : 2016년 11월 10일(월), 10:00-11:30
- 장소 : 여성교회
- 참석 : 지혜
- 내용 : 고양예고 문단 내 성폭력 폭로한 '고발자5인' 지지 졸업생연대 탈선 성명 발표회 관련 자문

나. '탈선' 성명발표회

- 일시 : 2016년 11월 11일(금), 14:00-16:00
- 장소 : 서울약사실험 회의실
- 참석 : 지혜
- 내용 : 탈선 '고발자5인' 지지 졸업생연대 성명 발표, 질의응답 사회담당(지혜)

(6) 2016 66th UN DPI/NGO Conference

- 일시 : 2016년 5월 30일(월)-6월 1일(수)
- 장소 : 경주 화백센터
- 참석 : 안김정애
- 내용 : "포괄적이고 조화로운 사회와 지속가능한 평화: 4개 단체 활동 사례" 발표

(7)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개원 2주년 심포지엄

- 일시 : 2016년 6월 23일(목), 14:00-18:00
- 장소 :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 내용 : 평화, 여성, 미래-제주 사회 평화실현

- 참석 : 안김정애(발표 : 여성평화와 화합과 소통을 위한 실천전략)
- (8) 평화네트워크 마스터피스 안김정애 대표 강연
 - 일시 : 2016년 6월 29일(수) 19:00~22:00
 - 장소 : 신촌 트즈
 - 내용 : 여성안전과 한반도 평화
 - 참석 : 안김정애, 지혜
- (9) 2017민주평화포럼 1차 국민토론회, '북핵위기와 한반도 안전'
 - 일시 : 2016년 10월 31일(월), 14:00~17:00
 - 장소 : 서울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 참석 : 안김정애
 - 내용 : 토론문 발표 - '북핵과 한반도 안전 관련한 여성들의 입장'
 - 주최 : 민주국민행동
- (10) 전쟁없는 한반도를 염원하는 평화여성들의 시국선언
 - 일시 : 2016년 11월 3일(목), 13:00~14:00
 - 장소 : 평화문광장
 - 참석 : 안김정애, 지혜, 신민시
 - 주최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어머니회, 너머서, 젠더문제연구소여성연, 이화민주동우회, 이프토피아
- (1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 시민사회 시국선언
 - 일시 : 2016년 11월 16일(수), 11:00~12:00
 - 장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 참석 : 지혜, 신민시
 - 주최 : 한반도평화회의

2) 세월호 참사 대응

- (1) 세월호 특별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6월 28일(화) 13:00~14:00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 참석 : 안김정애, 지혜

3) 박근혜 정권 퇴진활동 관련

(1) 민중총궐기

- 1차 : 10월 29일(토) 15:00~19:00, 안김정애, 지혜
- 4차 : 11월 12일(토) 16:00~19:00, 안김정애, 지혜

(2) 박근혜퇴진 범국민행동

- 2차 : 11월 5일(토), 16:30~20:00, 안김정애, 지혜, 신민시
- 4차 : 11월 19일(토), 18:00, 안김정애, 지혜
- 5차 : 11월 26일(토), 15:00, 안김정애, 지혜
- 6차 : 12월 3일(토), 16:00~20:00, 안김정애
- 7차 : 12월 10일(토), 16:00~20:00, 안김정애
- 9차 : 12월 24일(토), 13:00~20:00, 안김정애, 지혜(시리아 관련 퍼포먼스 진행)

(3) 범시민단체 공동행동의 날/ 광화문광장 범국민집회

- 일시 : 2016년 11월 30일(수), 12:00~20:00
- 장소 : 청운동, 광화문
- 참석 : 안김정애, 신민시

4) 기타 연대단체 후원 및 모금활동

(1) 한소리회 30주년 맞이 행사

- 일시 : 2016년 10월 11일(화), 17:00~20:00
- 장소 : 라온비채(종각역 인근)
- 참석 : 안김정애(축사)
- 내용 : 반성때매 운동단체로 출발한 한소리회 30주년 축하와 동영상, 외국인(Margo), 남윤민순 의원, 김광진 전 의원 등의 축하, 안혜경의 축하공연, 자문위원(하주희 민변 변호사 등 2인) 위촉

(2) 기지촌여성인권연대 회의 및 국가배상소송 재판정 참관

3. 국제연대

<2016년 사업계획>

3-1. GPPAC(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3-2. WomenCrossDMZ

3-3. Women Peacemakers Program

3-1. GPPAC 활동

1) 울란바타르 프로세스 회의

- 일시: 2016년 11월 14일-16일
- 장소: 몽골 울란바타르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시민사회의 대화와 상호교류를 통해 동북아 평화/안정을 이루자는 취지로, 동북아 관련 총 6개국(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과 중재국으로서의 몽골 등 총 7개국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동북아 평화구축을 위한 비역지대화, 평화문제 토의.
- 발표: 제목 'South Korean Women's Efforts and Challenges for Reunification'
- 1. 기존의 '안보' 개념을 '시민안보' '여성안보'로 재정의 2. 젠더 중심의 평화통일 방법 모색, 2017년에는 남측(임진각)에서 북측(개성)으로 여성평화걷기 계획 3. '김치 테스트'일'이나 DMZ 내 평화생태마을 만들기/함께 살기 4. 통일 이후(post-reunification)를 대비한 여성정책 만들기 5. 여성을 협상 테이블로(UNSCR1325) 6. 북미간 평화조약 체결 7. 한반도 THAAD 배치 반대, 일체의 핵무기와 핵발전(원전) 반대

2) WCD 국제회의

- 일시: 2016년 2월 7일~ 12일
- 장소: 인도네시아 발리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2015 WCD 행사 평가, 한국위원회와의 위상 정리, 2016년 행사 공유와 협력 내용 검토, UN CSW 회의 일정 공유 등

3-2. 행사

1) 유엔 CSW NGO Forum "Women's Leadership in Korea Peace Process"

- 일시: 2016년 3월 17일(목), 10:30 - 12:00
- 장소: New York, UN Plaza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내외 여성들의 모임, 2015 WomenCrossDMZ 행사

내용과 남북여성 거성 상봉모임 소개 등. WomenCrossDMZ와 United Methodist Women, WILPF 공동 주관

4. 평가

국내상설연대는 예정대로 진행했다. WCD, GPPAC 등과 국제연대사업을 통해 2016년 여성평화건설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으며, UN에서 한반도 문제 알려 내기,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 문제 알려 내기 등을 계속함으로써 평화협정의 필요성, 여성의 적극적 참여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7】부설 갈등해결센터

2016년도 갈등해결센터는 조직적으로는 부소장체제를 정착하고, 사업체계로는 학교평화커뮤니티와 지역평화커뮤니티체계를 지역평화커뮤니티로 통합·일원화 하고, 사업 영역을 센터가 주관하는 교육 외 사업으로 대화, 외부교육, 평화커뮤니티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했다.

교육은 센터 주관교육과 외부 교육으로 구분하고, 센터주관교육은 '갈등해결'을 부각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오던 센터가 주관했던 평화적 갈등해결을 위한 강사 트레이닝과정(2015년 12기까지 진행)은 폐지하고, 갈등해결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는 갈등/갈등해결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센터 교육 수료 후 후속모임으로 회원 활동 모임이 활성화 되었으며, 이후 조정활동으로 이어져서 평화적 갈등해결을 실천하는 조직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외부교육은 그 내용이 '갈등해결'에 특화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는 갈등해결센터가 향후 '갈등해결'에 대한 전문적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미하다.

한편 지난해 6월 개소한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상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는 체계와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기존의 화해권고위원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 서울시 정비사업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등으로 참여해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도록 돕는 3사의 역할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그리고 일상의 갈등 이슈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자의 생각과 의견이 무엇인지 안전하게 대화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대화를 진행하였다. 파킨스 한우들과 함께 하는 '별첨이 있는 대화',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함께 '서울시 열린대화', 원자력환경안전공단 '사용후핵연료 관리 관련 컨센서스 도출을 위한 미래세대 타운홀 미팅', 단핵정국에서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시민과 대화'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서대문구 진로직업체험센터 등 자치단체나 기관의 워크숍이나 대화의 자리를 설계하고 진행함으로써 '나와 다른 사람'과의 대화의 유의미성이 확인되도록 촉진했다.

센터가 기획하고 진행한 평화교육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우리와 같이 식민지 독립과정에서 분단, 분단이후 갈등을 경험한 북아일랜드에서 평화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북아일랜드의 평화교육기관과 단체, 학교를 방문하고 연수에도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연수단은 학교에만 그치는 평화교육이 아니라 일상의 다양한 교육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평화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배움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조직 체계 외에 활동 회원을 아우르는 회원바자회, 해외연수, 교육 참가자 후속 모임 등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다양한 모임을 진행했다. 또한 청소년교육진행자 모임을 정례화하여 청소년교육진행자들이 센터 활동에 더욱 긴밀하게 결합하도록 하고, 교육 방향이나 운영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며 조직적 결합을 높였다.

한편 갈등해결센터는 조직적으로 갈등해결센터 출발 당시와 다른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 - 갈등해결을 위한 연구 / 전문가관에 따른 독자적인 전문 기관으로서의 자리 매김의 필요, 본회와 갈등해결센터 활동 영역의 차이가 커지고 정점이 부재함으로 한 단체 내 존재하는 것의 시너지 효과의 부재 등을 감안할 때 조직의 특성에 따른 조직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와 당면하고 있다.

•조직

- 소장: 김선혜
- 부소장: 전상희
- 사무국: 정유미(활동가 2월~7월) 오주연(활동가 8월~12월)
- 운영위원회: 김선혜, 김영진, 김진희, 김지호, 양승광, 유은주, 이덕경, 전상희
- 자문위원: 강순원(한신대 교수), 김차연(변호사)
- 전문위원: 박수선, 박인혜, 여혜숙, 이경순, 조영희

1. 회의

1-1. 운영위원회

1) 1차 운영위원회

- 일 시: 2016년 1월 11일(월) 19:15
- 장 소: 여성미래센터 5층 미래방
- 대 상: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
- 참석자: 김선혜, 김영진, 김지호, 김진희, 양승광, 유은주, 전상희
- 위 임: 이덕경
- 내 용: 2016년 갈등해결센터 사업계획 확정, 부소장 선출(전상희), 2015년 송년의 평가, 운영위원회의의 규칙 수정, 2016년 운영위원회 회의 일자 확정

2) 2차 운영위원회

- 일 시: 2016년 3월 11일(월) 19:15
- 장 소: 여성미래센터 5층 미래방
- 대 상: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
- 참석자: 김선혜, 김영진, 김진희, 양승광, 유은주, 전상희, 정유미(배석)
- 위 임: 김지호, 이덕경
- 내 용: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논의

3) 3차 운영위원회

- 일 시: 2016년 5월 13일(금) 19:15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대 상: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
- 참석자: 김선혜, 김영진, 김진희, 양승광, 이덕경, 전상희, 정유미(배석)
- 위 임: 김지호
- 내 용: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논의

* 7월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석회의로 대체(1-2 참고)

4) 5차 상반기 평가 운영위원회

- 일 시: 2016년 8월 12일(금) 10:30~17:0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대 상: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
- 참석자: 김선혜, 김영진, 김진희, 양승광, 전상희, 김지호, 오주연(배석)

- 위 임: 이덕경, 유은주
- 내 용: 상반기 활동보고 및 평가, 하반기 계획 논의

5) 6차 운영위원회

- 일 시: 2016년 9월 23일(금) 19:15~21:3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대 상: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
- 참석자: 김선혜, 김영진, 김진희, 양승광, 전상희, 이덕경, 유은주, 오주연(배석)
- 위 임: 양승광
- 내 용: 사업보고 및 안건 논의

6) 7차 운영위원회

- 일 시: 2016년 11월 11일(금) 19:15~21:3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대 상: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
- 참석자: 김선혜, 김영진, 김진희, 양승광, 전상희, 이덕경, 유은주, 오주연(배석)
- 내 용: 사업보고 및 안건 논의

7) 8차 2016년 평가 운영위원회

- 일 시: 2016년 12월 3일(토) 10:00~18:0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참석자: 김선혜, 전상희, 김진희, 양승광, 유은주, 이덕경, 오주연(배석)
- 내 용: 2016년 사업평가 및 조직 논의

8) 9차 운영위원회

- 일 시: 2016년 12월 23일(금) 19:15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참석자: 김선혜, 전상희, 김진희, 유은주, 오주연(배석)
- 위 임: 김영진
- 내 용: 2017년 사업방향 논의

1-2. 운영위원-전문위원연석회의

- 일 시: 2016년 7월 15일(금) 19:15
- 장 소: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대 상: 갈등해결센터 전문위원-운영위원
- 참석자: 김선혜, 전상희, 김영진, 김진희, 양승광, 유은주, 이덕경(이상 운영위원) 박인혜, 여해숙, 이경순(이상 전문위원)
- 내 용: (가칭) 갈등조정전문가협의회 가입에 관한 논의, 이후 참여 기회가 있을 때 함께 하기로 하고 이번 시작모임 참여는 보류하기로 함.

1-3. 사무국회의

- 일 시: 수시
- 참가자: 김선혜, 전상희, 정유미(1월~7월), 오주연(8월~12월)
- 안 건: 갈등해결센터 세부 일정 및 사업계획 논의, 사업 및 교육 진행

1-4. 청소년교육진행자 모임

1) 청소년교육진행자 모임

(1) 1차 회의

- 일 시: 2월 29일(월) 10:3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내 용: 2016년 갈등해결센터 운영방향, 청소년교육진행자매뉴얼 공유 등
- 참석자: 김영진, 김진희, 유은주, 엄금옥, 이은영, 김선혜, 전상희, 정유미(배석)

(2) 2차 회의

- 일 시: 7월 25일(월) 10:3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내 용: 상반기 청소년교육 진행 관련 공유 및 하반기 청소년교육 진행 방향 논의
- 참석자: 김청아, 김영진, 김진희, 박선숙, 엄금옥, 유은주, 이은영, 김선혜, 전상희, 정유미(배석)

(3) 3차 회의

- 일 시: 2016년 12월 22일(목) 10:3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참석자: 김정아, 명금옥, 이은영, 박경아, 박선숙, 김진희, 김영진, 유은주, 김선혜, 전상희, 오주연(배석)

2) 청소년교육진행방향논의 모임

(1) 개요

① 목적

갈등해결센터가 지향하는 청소년교육의 목적에 따른 교육 방향과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단위

② 구성원

김선혜 전상희 김영진 김진희 유은주 이은영 오주연(배석)

(2) 회의

① 1차 회의

- 일 시: 3월 31일 목요일 13:0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5층 미래방
- 내 용: 청소년교육에 대한 의미와 방향에 대한 논의
- 참석자: 김영진, 김진희, 전상희, 정유미(배석)

② 2차 회의

- 일 시: 2016년 9월 21일 (수) 17:0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참 석: 김선혜, 전상희, 유은주, 김진희, 김영진, 이은영, 오주연(배석)
- 내 용: 청소년 대상 갈등해결 교육의 효과성 달성을 위한 방안

③ 3차 회의

- 일 시: 2016년 10월 09일(일) 14:0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5층 미래방
- 참 석: 유은주, 김영진, 김진희, 김선혜, 전상희, 오주연
- 내 용: 갈등해결 교육의 요소와 내용

④ 4차 회의

- 일 시: 2016년 10월 20일(목) 10:0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참 석: 유은주, 김진희, 이은영, 김선혜, 전상희, 오주연
- 내 용: 갈등해결 교육의 요소별 목표 달성 방안, 대안학교 방문 계획

⑤ 5차 회의

- 일 시: 2016년 11월 09일(수) 17:0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참 석: 김진희, 이은영, 김선혜, 전상희, 오주연
- 내 용: 갈등해결 교육의 요소별 목표 달성 방안

⑥ 6차 회의

- 일 시: 2016년 12월 09일(금) 13:3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참 석: 김진희, 이은영, 유은주, 김선혜, 전상희, 오주연
- 내 용: 갈등해결 교육의 요소별 목표 달성 방안

(2) 기관 방문

- 일 시: 2016년 10월 25일(화) 11:00~13:00
- 장 소: 아름다운학교
- 참 석: 유은주, 김선혜, 전상희
- 내 용: 대안학교에서 갈등해결 교육 필요성과 적용 방안

1-5. 평가

2016년도 갈등해결센터는 조직적으로는 소장, 부소장체제를 정착해 사무국의 집행력을 높이고, 기존의 조직 체계 외에 활동 회원을 아우르는 모임을 진행했다. 청소년교육진행자 모임을 정례화 하여 청소년교육진행자들이 센터 활동에 더욱 긴밀하게 결합하도록 하고, 교육 방향이나 운영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며 조직적 결합을 높였다. 센터의 청소년교육진행방향에 대해 집중해 논의하는 단위 - 청소년교육진행방향 논의 모임-도 구성해 새로운 교육방향을 설정하는데 함께 의견을 모았다.

사업 체계로는 학교평화커뮤니티와 지역평화커뮤니티체계를 지역평화커뮤니티로 통합·일원화 하고, 영역을 센터가 주관하는 교육 외 사업으로 대화, 외부교육, 평화커뮤니티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했다.

2. 센터 주관 평화적 갈등해결 교육

2-1. 차이와 불일치를 다루는 갈등해결교육

1) 교육

- 일 시: 2016년 3월 2일~26일 21시간
- 장 소: 서울 여성들라자 NGO 열린마당
- 교육참가자: 정유미외 14명(수료자 12명)
- 진 행: 김선혜, 김영진, 이덕경, 박수선, 전상희
- 내 용: 갈등과 갈등해결, 갈등다루기

구분	일시	과목명	진행자
1회차	3월 2일 19:00-22:00	갈등과 갈등해결	김선혜 전상희
2회차	3월 9일 19:00-22:00	갈등 다루기	김선혜
3회차	3월 16일 19:00-22:00	맥락대로 듣는 대화	김영진
4회차	3월 23일 19:00-22:00	갈등분석	이덕경

5회차	3월 26일 19:00~22:00	제3차로서 갈등다루기	박수선
6회차	3월 30일 19:00~22:00	평화적 갈등해결	김선혜 전상희

2) 기획 및 평가 회의

- 일 시: 2월 18일(목) 13:00~16:00 / 4월 14일(목) 17:00~18:3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참석자: 김선혜, 김영진, 이덕경, 박수선, 전상희, 정유미(비서)

2-2. 회복적정의에 기반한 피·가해대화모임 진행자 교육

1) 교육

- 일 시: 2016년 4월 9일(토)~30일(토) 30시간
- 장 소: 서울여성프라자 내 세미나실(1), 아트갤러리(5)
- 진 행: 김선혜, 이경순, 박수선, 전상희
- 참가자: 김정열 외 14명(수료자 10명)

구분	일시	과목명	진행자
1회차	4월 9일 10:00~18:00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해	김선혜 전상희
2회차	4월 16일 09:00~18:00	대화모임 진행자의 역할	박수선
3회차	4월 23일 09:00~18:00	대화모임 실습1	이경순
4회차	4월 30일 09:00~17:00	대화모임 실습2	김선혜 이경순 전상희

2) 기획 및 평가회의

- 일 시: 2016년 3월 29일(목) 18:30~21:00

- 장 소: 갈등해결센터 회의실
- 참 석: 김선혜, 박수선, 이경순, 전상희, 정유미(백석)
- 내 용: 시간별 세부교육내용 및 전체 진행 논의, 교재 제작과 진행일정 점검

2-3. 회복적정의 심화워크숍

- 일 시: 2016년 6월 4일(토) 10:00~17:00 (6시간)
- 장 소: 서울시민청 워크숍룸
- 진 행: 김선혜, 전상희
- 참가자: 박인아 외 5명

2-4. 2016 회의진행자훈련

1) 교육

- 일 시: 2016년 8월 17일(수)-9월 10일(토) / 수 19:00-21:30, 토 13:00-18:00 (총 27시간)
- 장 소: 서울여성플라자 2층 NGO 열린마당
- 진 행: 박수선, 김선혜, 전상희
- 참가자: 구명신 외 16명(수료자 10명)

구분	일시	과목명	진행자
1회차	8월 17일 19:00-21:30	퍼실리테이션과 피실리테이션	김선혜 전상희
2회차	8월 20일 13:00-18:00	퍼실리테이터 역할1 - 소통의 매개자	김선혜
3회차	8월 27일 13:00-18:00	퍼실리테이터 역할2 - 과정의 운영자1	박수선
4회차	8월 31일 19:00-21:30	퍼실리테이터 역할3 - 과정의 운영자2	박수선
5회차	9월 3일 13:00-18:00	퍼실리테이터 역할4 - 과정 설계자	김선혜
6회차	9월 7일 19:00-21:30	퍼실리테이터 역할3 - 과정의 운영자3	전상희
7회차	9월 10일 13:00-18:00	종합 실습	김선혜 전상희

2) 기획회의

- 일 시: 2016년 8월 11일(수) 18:30~20:30
- 장 소: 갈등해결센터 회의실
- 참 석: 김선헌, 박수선, 전상희, 오주연(배석)
- 내 용: 시간별 세부교육내용 및 전체 진행 논의, 교육진행 점검

3) 평가모임

- 일 시: 2016년 10월 4일(화) 18:30~20:3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참 석: 정현이, 박미란, 김진희, 박민아, 김선헌, 전상희, 오주연(배석)
- 내 용: 회의진행자후론 평가

4) 후속모임

(1) 1차 후속모임

- 일 시: 2016년 10월 28일(금) 19:00~21:0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대 상: 2016 회의진행자후론 참가자
- 참 석: 정현이, 이인선, 이도화, 최병욱, 구명신, 김진희, 오주연, 전상희, 김선헌
- 내 용: 진행자로서 듣기 연습

(2) 2차 후속모임

- 일 시: 2016년 11월 30일(수) 19:0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대 상: 2016 회의진행자후론 참가자
- 참 석: 정현이, 이인선, 구명신, 김진희, 박미란, 오주연, 전상희, 김선헌
- 내 용: 진행자로서 대화 설계와 진행 연습

2-5. 평가

교육은 센터 주관교육과 외부 교육으로 구분하고, 센터주관교육은 '갈등해결'을 부

각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오던 센터가 주관했던 평화적 갈등해결을 위한 강사트레이닝과정(2015년 12기까지 진행)은 폐지하고, 갈등해결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는 갈등/갈등해결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교육 수료 후 후속모임으로 이어져 회원 활동 모임이 활성화 되었으며, 이후 조정 활동으로 이어져서 평화적 갈등해결을 실천하는 조직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3. 사업

3-1. 대화

1) 센터 주관 대화 진행

(1) 파킨슨 환우와 함께 하는 '말뼉이 있는 대화'

① 기획회의

》 상반기 기획회의

- 일 시: 3월 7일(월) 오후 2시 / 5월 14일(토) 오후 3시
- 장 소: 종로 카페 / 최안진경 선생님 자택
- 참가자: 김선혜, 전상희, 최안진경(파킨슨 환우협회 대표, 평화여성회 회원)
- 안 건: 진행방법 협의
- 연간 일정: 매월 세 번째 화요일 오후 90분 (3.4.5.6.9.10.11월 총 7회)

》 하반기 기획회의

- 일 시: 9월 1일(목) 15:00
- 장 소: 연희동 카페
- 참가자: 김선혜, 전상희, 최안진경(파킨슨 환우협회 대표, 평화여성회 회원)

- 안 건: 상반기 모임 평가 및 하반기 대화 모임 주제 논의

》 평가회의

- 일 시: 12월 29일(목) 16:0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 참가자: 김선혜, 전상희, 최안진경(파킨슨 환우협회 대표, 평화여성회 회원)
- 안 건: 2016 '떨림이 있는 대화' 평가 및 2017년 계획 논의

② 파킨슨 환우와 함께 하는 '떨림이 있는 대화'

- 일 시: 2016년 3월15일, 4월 19일, 5월 17일, 6월 21일 (화) 14:00~15:30
- 장 소: NPO 지원센터
- 진 행: 김선혜, 전상희
- 참 석: 파킨슨 환우 10명
- 내 용:

차 시	내 용
1차	규칙정하기, 기대나누기, 파킨슨이 내게 가져다 준 변화
2차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와 그 이유
3차	파킨슨병 환자로서 겪는 갈등나누기
4차	감정 표현하기

(2) 사용후 핵연료 관리 관련 컨설팅스 도출 위한 미래세대 타운홀미팅

① 준비회의

- 일 시: 2016년 5월 21일(토), 22일(일) 13:00~18:0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참석자: 김선혜, 전상희, 김지선, 명희, 박인아, 이도화, 정현이
- 내 용: 타운홀미팅 진행 협의

② 타운홀미팅

- 일 시: 2016년 6월 8일(수) 13:00~18:00
- 장 소: 서울 팔래스호텔
- 참석자: 서울시내 고교생 44명
- 전 행: 김선혜, 전상희, 김지선, 명희, 박인아, 이드화, 정현이

(3) 서울시 '열린대학' 공동 주최

①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이웃 간 분쟁 해결방안 모색'

- 일 정: 6월 15일(수) 14:00
- 장 소: 서울 YMCA 강당
- 참 석: 김선혜(전체 진행), 전상희, 박인아, 박인혜, 정현이, 최경희(테이블퍼실리테이터)
- 내 용: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이웃 간 분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열린대학
- 주 최: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서울시갈등관리심의위원회

② '세대차이와 세대간 갈등'

- 일 시: 2016년 11월 2일(수) 10:00
- 장 소: 서울시청 3층
- 참 석: 김선혜(전체 진행), 김지선, 명희, 박미란, 박인아, 이덕경, 정현이(테이블퍼실리테이터)
- 내 용: 열린대학 '세대차이와 세대간 갈등' 진행
- 주 최: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서울시갈등관리심의위원회

(4) 더 나은 사회를 원하는 시민과의 "대화"

① 더 나은 사회를 원하는 여성미래센터 입주자들과의 "대화"

- 일 시: 2016년 11월 9일(수) 14:00 ~16:0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5층 평화방
- 참가자: 7명
- 내 용: 현 상황에 대한 대화

②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시민과의 "대화"

- 일 사: 2016년 11월 12일(토) 15:00~17:00
- 장 소: Cafe골방 2층(경북공역 근처)
- 참가자: 7명
- 내 용: 현 상황에 대한 대화

③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시민과의 “대화”

- 일 사: 2016년 12월 21일(수) 10:00~12:00
- 장 소: 연목동 친구네
- 참가자: 종암구 주민
- 내 용: 나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2) 외부기관 대화 진행 (진행현황 [별첨1] 참고)

(1) 대화 설계 및 진행

① 종암동 마을총회 진행

- 일 사: 6월 12일(일) 14시 30분~16시 30분
- 장 소: 종암동 마을총회 장
- 참 석: 김선혜
- 내 용: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마을총회 진행

(2) 서대문 보육포럼

① 설계기획회의

- 일 사: 11월 1일(월) 10:00~13:00
- 장 소: 서대문구청
- 참 석: 전상희
- 내 용: 보육포럼 설계 기획 회의

② 서대문 보육포럼

- 일 사: 11월 4일(금) 16:00~18:00
- 장 소: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

- 참 석: 전상희
- 내 용: 서대문 안전한 밤상

(3) 서대문 진로직업체험센터 열린대화

① 기관협의회의

- 일 시: 2016년 11월 3일(목) 10:00
- 장 소: 흥은청소년문화의집
- 참 석: 김선훈, 전상희 (서대문진로직업센터 참석: 하성민관장, 이은혜부장, 홍신영 담당)
- 내 용: 진로교육 위탁회의 진행 협의 회의

② 준비회의

- 일 시: 2016년 11월 14일(월) 18:0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참 석: 김선훈, 전상희, 구명신, 박미란, 명희, 박인아, 이도화, 이덕경, 오주연, 정현 이, 김지선

③ 서대문 진로직업체험센터 열린대화 진행

- 일 시: 2016년 11월 15일(화) 10:00 ~ 12시 30분
- 장 소: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
- 참 석: 김선훈, 전상희, 구명신, 박미란, 명희, 박인아, 이도화, 이덕경, 오주연, 정현 이, 김지선
- 내 용: 서대문 진로직업체험센터 2017년 사업방향

④ 평가회의

- 일 시: 2016년 12월 14일(수) 11:00
- 장 소: 서대문 진로직업체험센터
- 참 석: 전상희 (서대문진로직업센터 참석: 하성민관장, 이은혜부장, 홍신영담당)

(4) 서울시 다둥이 공동연수 부분별 주제토론 진행

- 일 시: 2016년 12월 8일(목) 13:30-16:00

- 장 소: 도봉숲속마을
- 참석자: 전상희
- 내 용: 2016년 서울형치 부문별 상호교류 및 2017년 핵심방향 논의

(5) 서대문 여성친화정책 토크쇼 기획 및 진행

- 일 사: 2016년 12월 2일(금) 14:00~16:30
- 장 소: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
- 참석자: 전상희
- 내 용: 2017년 서대문여성친화정책 방향 모색

(6) 서대문 친환경 급식센터 안전지킴이단 원탁 토론회 기획 및 진행

- 일 사: 2016년 12월 9일(금) 9:30~12:00
- 장 소: 서대문구청 3층 기획사무실
- 참석자: 전상희
- 내 용: 2016년 안전지킴이단 사업 평가 및 2017년 사업 방향 논의

3) 피·가해 대화모임 진행

(1) 교실내 분쟁 다루기

① 사전 설계를 위한 교육

- 일 사: 2016년
- 장 소: 고양시 00초등학교
- 진행자: 전상희, 김선혜
- 내 용: 교실 내 갈등 상황 진단을 위한 교육과 논의

② 사전 설계 회의

- 일 사: 2016년 12월 7일(수) 14:00
- 장 소: 고양시 00초등학교

- 참가자: 전상희, 김진희, 이인선, 최병욱
- 내 용: 교실 내 갈등 상황 진단을 위한 대화 사전 설계 회의

③ 대화 모임 진행

- 일 시: 2016년 12월 12일, 19일, 26일(월) 10:50-12:20
- 장 소: 고양시 00초등학교
- 진행자: 전상희, 김진희, 이인선, 최병욱
- 내 용: 협력적 문제해결을 경험해볼 수 있는 공동체 활동과 씨름

4) 공공기관 및 기구에서 진행자 활동

(1) 2016년 신규 위촉 및 활동

① 서울시 정비사업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 코디네이터: 김선훈, 박인혜, 이덕경, 전상희

② 서울시 이웃분쟁해결센터 조정자, 코디네이터

- 코디네이터: 명희
- 조정자: 김선훈, 전상희, 여혜숙, 박인아, 이도화, 정현이

③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 위원: 김선훈

④ 화해권고위원 신규 위촉

- 인천지방법원: 최병욱, 유은주

⑤ 미래창조과학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위원: 김선훈

(2) 지속 활동

① 화해권고위원

김선혜, 김영진, 박수선, 박인혜, 박상희, 전상희, 여혜숙, 이경순, 이덕경, 이은영, 조영희

② 가사조정위원

박인혜, 여혜숙, 이덕경

③ 서울시 갈등관리심의회위원

김선혜

④ 은평구 재가살재건축분쟁조정위원회

김선혜

3-2. 외부교육

1) 현황 보고 (기간: 2016.01.01.~2016.12.31.)

	학교연계			기관연계	성인	계
	초	중	고			
개 수	11개교 43학급	17개교 49학급	7개교 43학급	7기관 (청소년재 단연계)	82건 (교육기관 중복포함)	청소년: 35개교 145학급 7기관 성인: 82건

*자세한 교육일정은 별첨2 참조

2) 교안회의 및 평가회의

(1) 호평고 교안회의

- 일 사: 2016년 6월 19일(일) 11:0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참 석: 전상희, 김진희, 김영진, 유은주, 박선숙, 김영신, 이은영

- 내 용: 교육커리큘럼

(2) 갈월중 교안회의

- 일 시: 2016년 6월 22일(수) 10:30 / 7월 15일(금) 저녁 9시~10시
- 장 소: 여성미래센터 5층 미래방
- 참 석: 전상희, 김영진, 김진희, 유은주, 문경아
- 내 용: 교육커리큘럼

(3) 수입초 교안회의 및 평가회의

① 1차 교안회의

- 일 시: 2016년 7월 25일(월) 12시~13시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참 석: 전상희, 김진희, 엄금옥, 유은주
- 내 용: 교육커리큘럼

② 2차 교안회의

- 일 시: 2016년 8월 8일(월) 10:30~12:3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참 석: 전상희, 김진희, 엄금옥, 유은주
- 내 용: 교육커리큘럼

③ 수입초 평가회의

- 일 시: 2016년 9월 21일(수) 15:0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참 석: 전상희, 김진희, 엄금옥, 유은주, 오주연(배석)
- 내 용: 수입초 수업 평가

3-3. 지역평화커뮤니티 - "마포구, 평화의 꽃을 피우다"

1) 상반기 통합교육(학년단위, 또래조정, 학부모, 교사) 시범학교 : 서울여자중학교

(1) 교육계획안

회차	주제	교육 내용
1	친구 이해하기	- 인사 나누기 - 수업 안내 - 친구의 새로운 모습 알기 "모동별 진진가 활동"
2	갈등 이해	- 차이와 편견 "모동별 순위매기기 활동" - 갈등의 특성
3	다양한 갈등해결방법	- 개인간 갈등대응유형 "이럴 때 나는?" - 평화적 갈등해결
4	의사소통 1	- 의사소통의 기본이해 : 경청 : 의사소통의 필터
5	의사소통 2	- 맥락대로 듣기 : 확인하면서 듣기 연습
6	의사소통 3	- 감정다루기 - 나를 중심으로 표현하기
7	교실 안 실천방법 나누기	- 내가 교실안에서 할 수 있는 평화적 갈등해결 실천방법 생각하고, 나만의 5계명 만들기
8	교실 안 실천사례 이야기 나누기	- 씨름로 진행 - 실천사례 나눔과 수업 마무리

(2) 교육일정

구분		일시	진행자
1학년 7개반	1학년 1반	4월 14일, 20일 / 5월 18일, 19일, 25일, 26일 / 7월 13일	김진희
	1학년 2반	4월 12일, 19일 / 5월 17일, 18일, 24일, 25일	김진희
	1학년 3반	4월 11일, 14일 / 5월 16일, 19일 23일, 26일 / 7월 11일	김영진
	1학년 4반	4월 12일, 19일 / 5월 17일, 18일, 24일, 25일 / 7월 13일	김진희
	1학년 5반	4월 11일, 18일, 22일 / 5월 16일, 20일, 23일, 27일 / 7월 11일	김영진
	1학년 6반	4월 12일, 19일, 5월 17일, 20일, 24일, 27일	박경아 (김영진 5월 17일)
	1학년 7반	4월 11일, 18일, 22일 / 5월 16일, 20일, 23일, 27일 / 7월 11일	김영진
1학년 학부모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4월 4일	전상희

(3) 회의

① 서울여중 주강사 모임

- 일 시: 1차 4월 5일(화) 13:00 / 2차 4월 29일(금) 10:30 / 3차 5월 10일(화) 13:3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5층 미래방 /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참 석: 김영진, 김진희, 박경아, 전상희
- 내 용: 교육기획안 논의

② 서울여중 기획회의

- 일 시: 2016년 4월 7일(목) 14:00

- 장 소: 마포청소년문화의집 3층 비전교실
- 참 석: 김선혜, 김영진, 김진희, 박경아, 전상희, 정유미
(마포문화의집 - 김미리, 이진희, 문지영 / 마포학부모 - 김재선)
- 내 용: 마포평화커뮤니티 사업공유, 얻고 싶거나 남기고 싶은 것, 상호협조해야하는 부분, 기타 안건

③ 서울여자중학교 교사 간담회

- 일 시: 4월 18일(월) 15:20
- 장 소: 서울여자중학교 1학년 교사 회의실
- 참 석: 전상희 (마포 문화의집 - 김미리, 이진희 / 서울여자중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
- 내 용: 지역평화커뮤니티 사업 공유, 교육기환안 공유, 학년전환기 수업 논의

④ 평가 회의

- 일 시: 6월 14일(화) 10:3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참 석: 전상희(사무국) 김영진, 김진희, 박경아(진행자) 문지영(마포문화의집)
- 내 용: 지역평화커뮤니티 사업 '서울여자중학교' 진행 과정 평가

(4) 지역 학부모 교육

연번	기관	대상	회차	시간	주제	인원	장소	강사	일시					
									4	5	6	7		
1	마포 문화의집	2015년 학부모 교육참가자	6	18	(심화)학교폭력 피가해 대화모임	9명	마포 문화의집	김선혜	20	4	11	18	25	
2	마포 문화의집	마포구 학부모	7	21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24명	마포 문화의집	전상희		12	2	19	9	14
										26	23			

2) 하반기 시범학교: 신북초등학교

(1) 교육계획안

회기(시각)	주제	프로그램 목표	세부 프로그램
1회기	마음열기 갈등이해	- 서로 친근감을 형성한다. - 이 번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갈등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고 이해한다.	- 관찰게임+이름 삼행시 - 갈등경험나누기
	갈등의 원인 대화의 중요성	서로가 부딪히는 것의 원인을 짚어본다. - 서로에게 존재하는 차이를 살펴보고 차이와 다양성이 인정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한다.	- 이럴때 나는(내가 원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 - 평화로운 해결방법
2회기	의사소통 의 어려움	- 실제 대화를 해보면서 대화에서 오해와 왜곡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 비언어메시지가 소통에 주는 영향을 이해한다.	- 오렌지 시나리오 - 몸으로 말해요
	잘 듣기	- 원문의 뜻과 다르게 이해하여 오해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확인하며 듣는 연습을 한다.	- 바꾸어말하기, 질문하기
3회기	감정과 욕구의 표현	- 갈등상황에서 나의 감정과 욕구가 어떤 것인지 안다. - 나를 잘 표현하는 방법으로의 나전달법	- 감정단어 맞추기 - 속감정과 욕구찾기 - 나전달법
	총 대화연습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친구와 갈등이생겼을 때 잘 풀이가는 대화연습을 한다.	- 시나리오 만들기 - 소감 나누기

(2) 교육일정

구분	일시			진행자
4학년 7개반	화요일 3개반	1반, 5반 2반	10월 11일, 18일, 25일 10월 11일, 25일, 27일	김진희, 이은영, 류순희
	목요일 4개반 3반, 4반, 6반, 7반		10월 6일, 13일, 27일	
교사 교육	"교실 내 갈등 다루기"		12월 13일	전상희

(3) 회 의

① 교육기획안 회의

- 일 시: 2016년 9월 25일(일) 15:0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참 석
주강사: 김진희, 류순희, 박경아, 박선숙, 이은영
사무국: 김선희, 전상희, 오주연
- 내 용: 마포평화커뮤니티 사업 공유 및 교육기획안 논의

② 교육 평가회의

- 일 시: 2016년 12월 07일(수) 10:00~12:0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참 석
강 사: 김진희, 이은영, 박경아, 박선숙, 류순희
사무국: 전상희, 오주연

(4) 4학년 교사 간담회

- 일 시: 2016년 10월 10일(월) 14:00
- 장 소: 신북초등학교
- 참 석

교 사: 신복초 4학년 교사 6명

강 사: 김진희, 이은영

사무국: 전상희, 오주연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이진희

- 내 용: 마포평화커뮤니티 사업 및 교육기확안 공유

3-4. 맞춤형 아카데미 “협력의 DNA로 조직문화 디자인하기”

- 교육 기간: 2016년 10월 12일~11월 2일 매주 수요일 14:00-18:00

- 참가인원 : 18명 / 부분참가: 6명

- 교육 장소: 로하스 A 플렉스

구분	일시	교육명	세부교육내용	진행
1 회 차	10월 12일 2시~ 6시	협력하는 DNA,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하는 조직문화 구성 요소- 협력과 소통을 저해·촉진하는 요소	전상희
		조직내 갈등다루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과 갈등해결- 갈등 인식이 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 문제해결과정	
2 회 차	10월 19일 2시~ 6시	일상에서 의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소통의 기본 이해- 의사소통을 위한 태도-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소	김선혜
		신뢰를 형성하는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청을 위한 훈련- 확인하며 듣기 연습- 질문하기 연습	
3	10월	차이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장과 대립 상황에서 경청하기	김선혜

회차	26일 2시~ 6시	다루는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장과 대립 상황을 안전하게 만들기 - 긴장과 대립 상황에서 잘 듣기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청을 통한 수용과 인정 - 맥락대로 듣고 요약하기 연습 -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실행력있는 결정하기 연습 	
4회차	11월 2일 2시~ 6시	협력을 촉진하는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인 책임과 실행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과 방법 ■ 긴장과 대립 상황, 안전한 대화를 위한 설계하기 	전상희

3-5. 사업 평가

2016년에는 성인교육은 82개 기관에서 진행되었고, 마을 공동체나 협동조합 등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는 조직에서 교육 비율이 높았다. 사회적이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협력의 DNA로 조직문화 디자인하기', 취업을 앞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훈련으로 '커뮤니케이션'과정을 진행해 교육대상과 영역을 확대하였다. 내용으로는 갈등해결이 42%로 가장 높았고 회복적생활교육과 회의진행교육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청소년교육은 예년에 비해 교육 수요가 줄어들어 35개 학교 145학급, 7개 기관에서 진행되었다. 청소년 교육은 갈등해결교육과 토론조정교육이 약 87%를 차지하고, 민주시민교육도 11%에 달했다. 교육 수요가 줄어든 이유는 교육트렌드가 변화하면서 학교 현장의 요구가 낮아지고, 갈등해결을 교육하는 전문 단체 및 개인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청소년교육진흥자 논의 모임을 통해 청소년교육은 수익적인 측면이 높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야기 하는 평화적 갈등을 해결 문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측면에서 청소년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대안학교 등 교육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학교 구성원이 함께 청소년들의 삶의 문제의 결합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교육 방향을 전환하기로 하였다

성인교육과 청소년교육 등 2016년 갈등해결센터의 교육내용을 볼 때 '갈등해결'에 특화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갈등해결센터가 향후 '갈등해결'에 대한 전문적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 미하다.

한편 지난해 6월 개소한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상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는 체계와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기존의 화해권 고위원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 서울시 정비사업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로 참여해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도록 돕는 3자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일상의 갈등 이슈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자의 생각과 의견이 무엇인지 안전하게 대화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대화를 진행하였다. 파킨스 환우들과 함께 하는 "덜 겁이 있는 대화",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함께 '서울시 열린대화', 원자력환경안전공단 "사용후핵연료 관리 관련 컨센서스 도출을 위한 미래세대 타운홀 미팅", 탄핵 정국에서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시민과 '대화''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서대문구 진로직업체험센터 등 자치단체나 기관의 워크숍이나 대화의 자리를 설계하고 진행함으로써 '나와 다른 사람'과의 대화의 유의미성이 확인되도록 촉진했다. 분쟁이 드러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외에도 일상에 차이와 불일치를 대화로 해결하는 경험과 문화를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한 한 해였다.

4. 정책연구

4-1. '소년사법과 다이버전' 토론회

- 일 시: 2월 3일(수) 14:00-17:00
- 장 소: 송내어울마당 2층 누리터
- 주제발표: 청소년에 대한 회복적사법 제도(김선훈)
- 주 최: 부천시청소년법복지원센터

4-2. 회복적정의 피·가해 대화모임 책자 발간

- 일 시: 2016년 1월 11일(월) 10:00
- 장 소: 우리교육 사무실
- 참석자: 김선혜, 전상희, 신명철(우리교육대표)
- 내 용: 기획안 협의, 추후 일정 논의 (편집장 채용 후 논의하기로 함)

4-3. 통합예비군 훈련장 부평구 산곡동 이전에 따른 갈등 전문가 간담회

- 일 시: 2016년 3월 9일(수) 15:00-17:00
- 장 소: 부평구청 3층 명상회의실
- 참 석: 전상희(채종현, 윤용갑, 서정철, 김미경)

4-4.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 참석

- 일 시: 2016년 7월 18일(월) 14:00-16:0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 최: 박주민 국회의원
- 참 석: 김선혜(토론자)

4-5. 평화교육 해외연수 "아일랜드 평화교육"

1) 연수내용 논의 회의

- 일 시: 3월 1일(금) 13:00-16:00 / 5월 12일(목) 17:00-18:30
6월 11일(토) 11시30분~2시
- 장 소: 외부공간 / 갈등해결센터 사무실
- 참 석: 강순원, 김선혜, 전상희
- 내 용: 아일랜드 연수 내용 논의 및 확정

2) 준비회의

- 일 시: 2016년 5월 20일(금) 17:30-19:00/ 6월 19일(일) 16:00-18:0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청산홀 / 여성교회
- 참 석: 김선혜, 전상희, 김영진, 김진희, 박수선, 박희진, 엄금옥, 이덕경, 이은영, 유은주, 조영희, 이진희
- 내 용: 일정 공유 및 생활규칙 정하기, 역할 나누기

3) 사전 학습

- 일 시: 5월 12일 (목) 18:00-21:00 / 5월 20일(금) 19:00-22:0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청산홀
- 강 사: 강순원(한신대학교 교수 / 갈등해결센터 자문위원)
- 주 제: 1차 북아일랜드의 분쟁과 평화형성의 역사
2차 북아일랜드의 통합적 평화교육의 배경 및 필요성

4) 연 수

- 일 시: 6월 26일(일)-7월 7일(목)
- 참 석: 김선혜, 전상희, 김영진, 김진희, 박수선, 박희진, 엄금옥, 유은주, 이덕경, 이은영, 이진희, 조영희
- 방문기관 및 일정

일	방문 장소 및 활동
6월 26일	벨파스트 도착
6월 27일~ 28일	- Visiting integrated schools in Belfast 벨파스트의 통합학교(헤이즐 우드 초등학교/락뷰 통합학교) 방문 - Peer mediation and Anti-Biased Education practices by experts 전문가를 통한 동료조정과 반편견교육 학습 - Belfast Divided Communities tour 벨파스트 투어 - Ulster Museum and Queens University 얼스터 박물관과 퀸즈 대학 - Corrymeela Belfast office 코리밀라 벨파스트 사무실 방문
6월 29일	Understanding Corrymeela and Peace building process in Northern Ireland / Derick Wilson 북아일랜드에서의 코리밀라와 평화 구축 과정의 이해/데릭윌슨

	Carrick a rede bridge 관광
6월 30일	Exchange of community work in the divided societies / Korea and Northern Ireland 분단된 사회에서의 지역활동 공유 / 한국과 북아일랜드 Cultural exposure to Giant Causeway 자이언트 코즈웨이 문화체험 1차 중간 평가
7월 1일	City wall tour and peace building work in Northern Ireland 북아일랜드의 도성관광 및 평화 구축 과정 / Seamus Farrell
7월 2일	Anne Carr 미팅
7월 3일	더블린 투어- 제임스 조이스 센터
7월 4일	김동진박사와 만남 - 트리니티 칼리지 방문 등
7월 5일	- 트리니티칼리지 방문 - A joint workshop about Peace and Gender at ISE ISE에서의 평화와 젠더에 관한 합동 워크샵 2차 평가회
7월 6일	더블린 출발

5) 연수보고회

- 일 시: 2016년 8월 24일 (수) 19:00-21:3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참 석: 김정아 외 20명
- 내 용: 북아일랜드 평화교육 연수보고 및 질의응답

6) 연수보고회 후속 모임

- 일 시: 2016년 9월 20일 (화) 18:30-21:0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참 석: 김정아 외 6명
- 내 용: 북아일랜드 평화교육 연수의 배움 나눔과 질의응답

4-6. 간담회 -협동조합의 의사소통,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 일 시: 2016년 10월 19일(수) 10:00-12:00
- 장 소: 상상캠퍼스
- 참 석: 김선혜

4-7. 어린이어깨동무 개원 20주년 기념 '평화교육센터'개원 기념 심포지움

- 일 시: 2016년 11월 4일(목) 14:00~18:00
- 장 소: 창비 50주년 홀
- 주 제: 한반도평화교육의 길을 찾다
- 참 석: 김선혜(도론), 김정아, 정현이

4-8. 정책연구 평가

갈등해결센터 활동회원들이 북아일랜드연수에 다녀왔다. 우리와 같이 식민지 독립과정에서 분단, 분단이후 갈등을 경험한 북아일랜드에서 평화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북아일랜드의 평화교육기관과 단체, 학교를 방문하고 연수에도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연수단은 학교에만 그치는 평화교육이 아니라 일상의 다양한 교육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평화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배움을 공유하였다.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조정활동을 책자화 하는 문제는 2016년에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는 현장 경험을 체계화해야한다는 점에서 2017년 사업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다

5. 연대활동

5-1. 평화시민대학 준비위원회 운영위원회의

1) 정례 회의

- 일 사: 6월 1일(수) 10:30-12:30 / 9월 23일(금) 10:00-15:00 / 10월 24일(월) 10:00-12:30 / 12월 22일(목) 18:00-20:00
- 장 소: NVC센터(선릉) / 여성미래센터
- 안 건: 평화시민대학 준비위 활동에 대한 의견 나눔 / 네트워크형 평화대학 외국 사례 학습
안산마을공동체 활동가 훈련 프로그램 논의/ 갈등현장에서 평화교육프로그램 발표회 준비 논의
- 참 석: 김선혜, 전상희 (김석봉, 박성일, 박성룡, 이재영, 한정훈, 이면미, 박성일, 송광호)

2) 안산시민단체와 연석회의

- 일 사: 2016년 2월 15일(월) 10:30~14:00
- 장 소: 까페 마실(안산)
- 안 건: 2016년 안산지역 사업 논의
- 참 석: 김선혜, 전상희 (김석봉, 박성일, 이재영)

3) 연구진 회의

- 일 사: 2016년 3월 10일(목) 18:00~19:30 / 4월 1일(금) 10:30-12:30
- 장 소: 레드박스
- 안 건: 연구 방향 논의
- 참 석: 김선혜 (박성룡, 송강호, 류혜선, 권순정)

4) 상반기 워크숍

- 일 사: 2016년 5월 3일(화) 10:30-17:30
- 장 소: KCFI(남양주)
- 안 건: 평화시민대학 준비위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

- 참 석: 김선혜, 전상희

5) 하반기 워크숍

- 일 시: 2016년 11월 27-28일(일-월)
- 장 소: 제주 강정마을
- 참 석: 김선혜, 전상희
- 안 건: 분쟁지역에서의 평화교육

5-2. 회복적정의 시민사회네트워크

1) 2016 회복적정의 실천기대회

- 주 관: 회복적정의 시민사회네트워크
- 일 시: 1월 16일 10:00~18:00
- 장 소: 피스빌딩 커뮤니티(KOPPI사무실/남양주)
- 참석자: 김선혜, 김진희, 유은주, 이덕경, 전상희

2) 회의

- 일 시: 4월 15일 10:00~12:00
- 장 소: 좋은교사
- 참석자: 김선혜 (박숙영, 이재영, 박성룡, 이연미, 박성일)
- 안 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 논의

5-3. (가칭) 조정전문가협의회 준비회의 기관 회의

- 일 시: 2016년 6월 22일(수) 17:00
- 장 소: 분당
- 참 석: 김선혜 (김주일, 문용갑, 원창희)
- 안 건: 조정전문가협의회 준비 관련 논의

5-4. 소녀상 지키기 시위 참가

- 일 시: 2016년 1월 28일(월) 19:00-20:00
- 장 소: 일본 대사관 앞 청년 농성장
- 참 석: 김선혜, 김진희, 이덕경, 전상희

5-5. 3-8 여성대회 참가

- 일 시: 2016년 3월 5일(토) 13:00
- 장 소: 서울시청과 종로
- 참 석: 김선혜, 김진희, 권덕철, 박수선

5-6. 형사조정위원 교육 논의 워크숍

- 일 시: 2016년 8월 26일 (금) 16:00-21:00
- 장 소: KOFI
- 안 건: 형사조정위원 교육훈련 체계와 형사조정위원 심화교육 방향
- 참 석: 김선혜, (이재명, 이연미, 이홍우, 김순남, 조균석, 강지명, 김제희, 백일홍)

5-7. 회복적정의협회 '갈등해결센터 소개'

- 일 시: 2016년 10월 24일(월) 19:00-21:00
- 장 소: 피스빌딩 2층
- 안 건: 갈등해결센터가 만들어진 배경과 회복적정의 실천 활동
- 참 석: 김선혜, 전상희

5-8. 평가

평화시민대학을 중심으로 연대활동을 하였으나, 올해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갈등해결센터의 활동을 외부에 알리는 일에 중심을 두어 활동하였다. 조정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가칭)조정전문가협의회에 센터는 당분간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갈등분쟁 현장 활동가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협력해 나갈 것인지 과제로 남아 있다.

6. 회원활동

6-1. 청소년교육진행자 공부 모임

1) 1-2월 청소년교육진행자 공부 모임

- 참가자: 갈등해결센터 청소년교육진행자
- 일 시: 2016년 1월 11일, 18일, 25일 2월 1일, 15일, 22일, 29일 13:00-17:0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5층 미래방, 2층 여성교회
- 참 석: 김영진, 김정아, 김진희, 엄금옥, 유은주 이덕경, 이은영, 전상희
- 내 용: 교육 프로그램 협의

2) 박인혜선생님과 함께 하는 '움직이는 갈등해결' 워크숍

- 일 시: 2016년 4월 13일(수) 13:00 / 5월 1일(일) 13:0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참 석: 김영진, 김진희, 문경아, 유은주, 이덕경, 이은영, 전상희
- 내 용: 고정관념, 분노 다루기 교육 활동 배우기

6-2. 회원 월례 공부 모임

1) 2월 회원 월례 공부 모임

- 일 시: 2월 29일(월) 19:00-21:0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주 제: 역자에게 듣는 갈등전환
- 강 사: 갈등전환센터장 박지호
- 참가자: 정현이의 19명

2) 4월 회원 월례 공부 모임

- 일 시: 4월 27일(수) 19:00-21:0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주 제: 김영진 선생님과 함께하는 "갈등해결의 지혜"
- 강 사: 갈등해결학 박사 김영진
- 참가자: 김정아의 16명

3) 11월 회원 월례 공부 모임

- 일 사: 2016년 11월 08일(화) 15:3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주 제: 평화적 갈등해결 이야기
- 강 사: 김동진 박사
- 참 석: 김진희외 11명

※ 6월, 8월 회원 월례 모임은 북아일랜드 사진 모임과 보고회로 대체

6-2. 강독모임

- 일 사: 2016년 2월 4일, 11일, 25일, 3월 3일, 10일(목) 10:30-12:00
- 장 소: 사무실
- 참 석: 김선혜, 김진희, 명희, 전상희
- 도서명: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6-3. 4.16 안산분향소 방문

- 일 사: 2016년 4월 17일(일) 12:00
- 장 소: 안산분향소 앞
- 참 석: 김선혜, 김진희, 김영진, 이덕경, 이은영, 전상희

6-4. 회원나눔 바자회

- 일 사: 2016년 8월 24일(수) 18:0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준비와 진행: 전상희, 김영진, 김진희, 유은주
- 참 석: 김정아 외 20명
- 내 용: 회원 물품 나눔 및 친목 다지기
- 후원금: 403,000원

6-5. DMZ 현장탐방

- 일 사: 2016년 10월 01(토) 08:00-16:00

- 장 소: 파주 일대 민통선 지역
- 참 석: 김선혜, 전상희, 정현이, 박민아, 박선숙, 김진희, 이덕경, 엄금옥

6-6. 갈등해결센터 송년모임

- 일 사: 2016년 12월 29일(목) 18:00
- 장 소: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참석대상: 갈등해결센터 회원
- 참석 : 김정아의 14명

6-7. 회원활동 평가

회원들과 함께 하는 나눔바자회, 회원원래공부모임, 강독모임 등 회원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회원 모임을 활성화하여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7. 사무국 활동보고

7-1. 교육 준비 및 진행

- 교육 기획 및 준비 : 센터 주관 교육 및 맞춤형 아카데미(사회적기업진흥원 연계)
- 교육 홍보 및 참가자 모집
: 센터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홍보, 타 기관 홈페이지에 웹자보 홍보, 이메일 발송 등

7-2. 일상 사무

- 센터 홈페이지, 페이스북 관리
- 명함 제작, 웹하드 관리
- 회계 관리
- 소식지 발행 (4월 12일, 6월 24일, 8월 22일, 10월 28일, 12월)
- 프로젝트 사업 제안서 제출 및 진행(서울시여성가족재단, 사회적기업진흥원)
- 각종 증명서 발급 및 교육 양식 관리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성평등도서관 여기」 '자료공유 약정서' 자료 기증(청소년을 위한 갈등해결교육 교안집 등 3종)
- 교육 및 조정, 회의진행 상담

7-3. 프로젝트 관리

1) 셀프디자인스쿨 사업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

- 일 시: 2016년 4월 12일(화) 16:00-18:00
- 장 소: 서울여성프라자 5층 소담2실
- 참 석: 정유미
- 내 용: 2016 셀프 디자인스쿨 사업 협약서 작성 및 사업설명

(2) 공동 교육

- 일 시: 2016년 5월 12일(목) 16:00-18:00
- 장 소: 서울여성프라자 4층 아트갤러리4
- 참 석: 정유미
- 내 용: 여성주의 인식론과 젠더 이분법 (강사: 정희진 (여성학 강사, 페미니즘의 도전의 저자))

(3) 사업 진행

	일 시	장 소	내 용	강 사
1차	5/12(목) 18:00-21:00	여성미래센터 청산홀	북아일랜드의 본성과 평화형성의 역사	강순원 (한신대학교 교수)
2차	5/20(금) 19:00-22:00	여성미래센터 청산홀	북아일랜드의 통합적 평화교육의 배경 및 필요성	강순원 (한신대학교 교수)
3차	8/24(수) 18:00-21:00	여성미래센터 청산홀	북아일랜드 평화교육 연수 보고	강순원 (한신대학교 교수)

(4) 셀프디자인스쿨 결과보고회 및 담당자 간담회

- 일 시: 2016년 11월 21일(월) 16:00
- 장 소: 서울여성플라자 5층
- 참 석: 오주연

2) 사회적기업진흥원 맞춤형 아카데미 진행

- 교육 기간: 2016년 10월 12일-11월 2일 매주 수요일 14:00-18:00
- 장 소: 신촌 로하스 A 플렉스

7-4. 기타

1) 감사시연

- 일 시 : 2016년 10월 14일(금) 16:00
- 장 소 :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시연자 : 최명옥
- 참석자 : 김선혜, 전상희, 김진희, 엄금옥, 오주연
- 내 용 : 감사시연

7-6. 평가

2016년도에는 외부 공모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갈등해결센터의 전문적 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활동 회원을 아우를 수 있는 모임을 만드는데 주력하였다. 일상적 홍보로 회원 및 교육 수요자와 소통하였으며, 정기적 뉴스레터 발송을 통해 센터 활동을 알리는 노력을 하였다.

[첨부1] 대화진행현황 (기간: 2016.10.01.-2016.12.31.)

연번	진행자	구분	기관	사업명	지역(장소)	대상(인원)	시간	일시	
								10	12
1	김선혜	진행	성북구청	총임동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총임동	150	2	6/12	
2	정현미		서울시	서울시 마을공동체	신내동	원광어벽	2	5	

			사업 성과측정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회의	원장장애인 복지관	돌의 모임(5)			
3	정현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측정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회의	이문동 다문화어린이 도서관 모두	실현하는 엄마들(3)	1.5	6	
4	박미란		시장속 학교	중구 옥아종합지원센터	마더와이즈(3)	1.5	7	
5	정원이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측정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회의	성수2로 29 "독도 정촌" 사무실	2	3	7	
6	구명신		찾아가는 마을회의	군현구 아버지 학교	3	3	8	
7	이인선		부모커뮤니티사업	한남동 커리빈	3	3	10	
8	정현어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측정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회의	중계동 카페카매들룸	부모성교 육동아리(3)	2	10	
9	미인선		부모커뮤니티사업	효창동 고래이야기	3	3	11	
10	박미란		행복마을 가꾸기	구로4동 주민센터	4	3	11	
11	박미란		제원과 공감울 통한 우리가족 우리마을 만들기	참여연대 및 카페 KOSUI	3	3	16	
12	구명신		찾아가는 마을회의	신정동 메이플	3	3	17	
13	이인선		부모커뮤니티사업	은평구 산세마을	3	3	17	
14	박미란		공부는 당고개 마을학교	삼명중학교 회의실	2	3	19	
15	이인선		부모커뮤니티사업	문래동	3	3	21	

16	정현이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추진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회의	스타벅스 중계2.3동 주민센터	(사)잡예 가는 노원장애인부모회	1.5	25	
17	구명선		찾아가는 마을회의	강북구 나눔연대	3	3	27	
18	구명선		찾아가는 마을회의	종로구 중화동 한신 공동육아	2	4	27	
19	구명선		찾아가는 마을회의	강북구 공음인	3	2	28	
20	박미란		행복한 가정 행복한 마을	우장산 찰스대이드 2층 연세 북북 소아청소년 병원	3	3	30	
21	박미란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도봉구 방학3동	방학3동 동주민센터 "은행나무"	4	3	13	
22	이인선		마을계획단 FGI	동선동 주민센터	3	3	14	
23	박미란		성수1가 2동	성수1가 2동 동주민센터	4	3	14	
24	이인선		마을계획단 FGI	청2동 주민센터	4	3	15	
25	정현이		합계동 마을계획단 집단심층연립(FGI)	길음1동 주민센터	길음1동 마을 계획단 활동가(4)	2		15
26	정현이		합계동 마을계획단 집단심층연립(FGI)	월곡2동 주민센터	월곡2동 마을계획단	2		17

27	미인선					마을계획단 FGI	통합동 주민센터	3	3			
----	-----	--	--	--	--	-----------	-------------	---	---	--	--	--

[첨부2] 외부교육 현황 (기간: 2016.01.01.-2016.12.31.)

1) 청소년교육

연번	지역	기 관	대 상	인원	회차	총시 간	내 용	강 사	일 정													
									3	4	5	6	7	8	9	10	11	12				
1	인천	신송초		13	3	6	도래조정자훈 련	김영진	22													
2	용인	역북초	도래조정반	13	10	20	도래조정교육	유은주	23	8	11											
									30	20	17	1										
										27	25	8										
3	인천	신흥중		20	6	18	도래조정자교 육훈련	김영진	28	4	9											
										11	16											
4	성남	불곡고	도래조정반	20	6	15	도래조정교육	김영진	1	13		15	26	30	14	18						
5	성남	청솔중	도래조정반	12	7	14	도래조정자훈 련교육	유은주	6	18	15		24	7	5	9						
6	부천	성주중	도래조정반	12	1	12	도래조정교육	김진희 이덕경	9													
										15												
7			1학년 1개반	27	~	8	16	갈등해결교육	김영진	11	16											
										14	19											
										18	23		11									
										26	26											
8	서울	마포청소년 문화의집 (서울여중)	1학년 2개반	27	~	8	16	갈등해결교육	김영진	11	16											
										18	20											
										22	23		11									
										27	27											
9			1학년 1개반	27	~	8	16	갈등해결교육	김진희		18											
										14	19											
										20	25		13									
										26	26											

연번	지역	기 관	대 상	인 원	회 차	총 시 간	제 목	강 사	일 정														
									3	4	5	6	7	8	9	10	11	12					
35	서울	효본중	임원	30	1	2	민주시민교육	김진희															
36			임원	21	1	2	민주시민교육	이은영											26				
37	강원	민족통일위 계승		60	1	1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유은주											30				
38	서울	복서중	임원	21	1	2	민주시민교육	이은영												2			
39	서울	홍은청소년 문화의집		20	1	2	민주시민교육	전상희													3		
40	영남	수입초	6학년	17	4	8	갈등해결	김진희															
41			5학년	17	4	8	갈등해결	김진희															
42			4학년		4	8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염금옥													2	5	
43			3학년		4	8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염금옥														19	20
44			2학년		4	8	평화감수성	유은주															
45			1학년		4	8	평화감수성	유은주															
46			서울	마포청소년 문화의집		20	1	2	민주시민교육	전상희													10
47	서울	녹색마을사 광들	3학년		1	2	교감을 나누는 평화대학	김영진													9		
48	부천	중앙초	3학년 12개반		1	1	평화적갈등해 결	박경아													22		
49			5학년 32개반		1	1	갈등해결	이덕경														21	
50			4학년 42개반		1	1	갈등해결과 평화	이은영														28	
51	파주	통일초	5학년 3개반	30	1	3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김진희 이덕경 이은영													22		
52	남양주	퇴계원고	1,2학년	34	1	2	도래초성	이덕경													23		
53	서울	서대문청소 년수련관	청운위	10	1	2	민주시민교육	김진희													27		
54	서울	북동초	6학년 임원	15	7	14	도래초창지은 인	김진희													5 12 9 19 16 28		

연번	지역	기 관	대 상	인 원	회 차	총 시 간	제 목	장 사	일 정															
									3	4	5	6	7	8	9	10	11	12						
55	팔주	태곡초	도래조정반	17	7	14	도래조정자문 편	유은주									12	14	19	26				
56	성남	성남테크노 과학고	학급간부	30	1	3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유은주 염금옥										6						
57	강원	화천고	학급간부	10	2	4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유은주										7	21					
58	성남	성남테크노 과학고	학급간부	10	3	6	도래조정	유은주										11	13	17				
59	서울	마포청소년 문화여집 (신북초)	4학년 1개반	30	3	6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김진희										11	25	27				
60			4학년 1개반	30	3	6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류순희											6	13	27			
61			4학년 1개반	30	3	6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류순희												11	18	25		
62			4학년 1개반	26	3	6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박경아												6	13	27		
63			4학년 1개반	26	3	6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박선숙												6	13	27		
64			4학년 1개반	25	3	6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이은영												6	13	27		
65			4학년 1개반	27	3	6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이은영												11	18	27		
66			서울	태광중		30	1	3	민주서민교육	김진희													13	
67		29			1	3	민주서민교육	유은주														14		
68	서울	영등포고	동여리	10	6	12	도래조정교육	전상희													1	13	10	11

연번	지역	기 관	대 상	연 원	학 차	총시 간	제 목	강 사	일 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지역사 회교육 전문가	12	2	6	퍼실리테이 션	김선혜 전상희	14 15													
2	서울	성북구청	마을활 동가	20	1	2	회의 진행	김선혜 박수선	20 22													
3	서울	금천구청	독신동 마을계 획단	35	1	1.5	민주적 의사소통	김선혜	25													
4	서울	북부시민 회	마을활 동가, 주민	10	4	8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김선혜 전상희	16 18 23 25													
5	경기	포천 사동초	교사	30	1	2	관계형성과 서클에 대한 이해	전상희	23													
6	수원	수일중	교사	30	1	2	회복적생활 교육	김선혜	23													
7	강원	원주교육 지원청	학부모	11	1	2	회복적정기 에 기반한 신뢰서클	전상희	24													
8	수원	울천로	교사	28	1	2	회복적생활 교육	김선혜 (윤은주)	24													
9	서울	서동시	동문갈 등초성 관	12	2	6	갈등조정	김선혜	2 9													
10	서울	성북 구청	마을활 동가	30	4	12	퍼실리테이 더 심화 훈련	김선혜 전상희	16 23 30	6												
11	서울	구로자원 센터	실무자	7	1	12	평화로운 갈등해결	이덕경	17													

연번	지역	기관	대상	인원	회차	총시간	제목	강사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	수원	수원교육 종합복지 센터	학부모			2	회복적정의 대화모임 실습 훈련	박인혜				29	19									
13	수원	수원교육 지원청	수원 지역 학부모 및 학목위 원	5- 10	9	6	회복적 정의 대화모임실 화실습지도	박인혜			30	12	10 31	14	1	30	20					
14	서울	마포문화 의집	1학년 학부모	25	1	2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전상희					4									
15	강원	원주교육 지원청	버들초 학부모	32	4	12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김선혜 전상희				8	15	22	29							
16	전주	진북여성 단체연합	평화교 육 참가자	14	2	12	갈등과 갈등해결/갈 등분석과 분노	김선혜 전상희					21	28								
17	강원	고성교육 지원청	학부모 일반교 육	30	1	2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김선혜					22									
18	서울	서울YWC A	여성성 격 모니터 링단	30	1	3.5	여성성격모 니터링 워크숍	여혜숙					27									
19	경기	문화 승 리대 양성교 육	마을공 동체 리더 양성교 육	30	1	3	마을과 관계	김선혜					28									
20	경기	에듀피스	교사	15	1	2	회복적정의 의 현장 적용	김선혜						11								
21	서울	성북구정 마을계 획단	마을계 획단	50	3	6	회의진행	김선혜 전상희					9	11	19							

연번	지역	기관	대상	인원	회차	총시간	제목	강사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22	전주	전북여성단체연합	기본교육집가지	17	4	6	회복적정의진행사 훈련	김선혜 박수선						7									
23	서울	성북구청	마을활동가	17	1	2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전상희						10									
24	서울	온명노동인권센터	요양보호사	12	4	6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김선혜						16	18	22	19						
25	경기	도래울초등학교	학부모	150	1	2	자녀와의 의사소통	전상희						20									
26	서울	성태중학교	교사	22	5	15	학급내갈등 다루기	김선혜 전상희						9	13	16	20	23					
27	서울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활동가	30	1	2	활기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여혜숙						28									
28	의정부	김민고등학교	교사	60	1	1	회복적생활교육	여혜숙						29									
29	경기	영문중	교사		1	3	회복적생활교육	여혜숙 (유은주)						29									
30	충남	서천군청	지역활동가	17	9	48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강사드레이닝과정	김선혜 전상희						9	16	23	30	9	16	23			
31	서울	광진구청	마을활동가	20	1	2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전상희						27									
32	경기	성남교육지원청	학부모	4	1	2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이덕경						27									
33	서울	한국방송광고공사	청년직무연수디딤돌참가자	35	5	30	제윤니케어선	김선혜 전상희 박수선										1	2	3	4		

【8】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16년 사업계획

1. 평화도서 독서모임

- 1) 내용: 평화주의과 군사주의를 주제로 한 시의성 있는 서적을 중심으로 저자, 역자 등 초청 토론회 진행
- 2) 횟수: 년 4회

2. 연구위원 모임

2-1. 개별연구

- 1) 경기도 교육청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시민 교과서> 인정교과서 중등교재 집필 작업 - 2016년 말 창비교과서로 출판 예정
- 2) 평화 관련 연구 & 집필

1. 활동

1-1. 개별연구

- 1) 경기도 교육청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시민> 인정교과서 집필 작업 참여
현재 4차 심의 진행 중이며, 심의 통과 후 2017년도 1학기 수업부터 사용 예정
- 2) 한국여성단체연합 창립 30년사 '통일평화 부문' 집필
현재 출판사(삼인)에서 편집작업 진행 중이며 2월 28일 발행될 예정임

1-1. 활동 평가

- 1) 연구원 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였음.
- 2) 2017년도에는 평화여성회 20년을 맞이하여 여성평화운동의 정체성, 미션, 비전을 설정할 수 있는 연구원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조직개편의 건

평화여성회 부설 갈등해결센터는

조직의 경제성을 명확하게 하고 확장성을 위해 별도 조직으로 설립하는 것을 추진한다.

<논의배경과 경과>

(1) 2016년 12월 3일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회는 '본회와 부설기구 활동의 겹침 부재', '갈등해결 활동의 대내외 환경의 변화', '갈등해결센터의 대내외 활동을 위한 완결적인 재정 및 의사결정 구조의 필요'에 기초해 갈등해결센터이 별도 조직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총회준비위에 하기도 함

(2) 평화여성회 총회준비위원회는 위 논의의 제안 배경과 필요성에 동의하고, 본회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아울러 평화여성회와 분리되는 갈등해결센터가 협력적 관계를 유지·형성하기 위해 총회 이후 가장 '조직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간의 공동이용, 인적자원교류, 사업영역의 범위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기로 하였음

(3) 본회 이사회는 안건의 제안배경과 필요성에 동의하고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음

2016년 결산보고

1. 본 회

수입부					지출부					
장 목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특별회계	장 목	세목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특별회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헌신기입	759,888	759,888		359,888	사업비		11,180,800	11,427,638	18,945,725	23,373,358
회비	44,869,000	42,864,440		42,864,440	회의비		1,580,800	1,457,438		1,481,400
정기	31,000,000	31,264,440		31,264,440	명화홍렬사업		1,080,800	778,678	18,945,725	11,732,358
여과	13,869,000	11,600,000		11,600,000	재정사업		0	0		0
후원금	15,260,000	10,265,160		10,899,160	연대사업비		2,080,800	2,583,562		2,583,562
계관	13,000,000	10,835,160		10,835,160	부설기구		8,680,800	8,000,000		8,000,800
유원사업	2,260,000	1,900,000		959,000	갈등해결센터		8,000,000	8,000,000		8,000,000
					한국여성문화연구원		680,800	680,000		680,000
참가수입	180,800	0		0	운영비		44,658,800	38,254,898		38,254,898
자료제공	180,800	0		0	업무추진비		8,080,800	0		0
집수입	90,120	1,684		2,684	인건비		25,088,800	24,472,958		24,472,958
차입금	0	5,258,008		5,258,008	관리비		8,502,000	8,354,180		8,364,180
서울시프로젝트			12,810,800	12,810,800	사무명정비		7,158,800	8,457,764		8,457,764
					경조사비		188,000	77,788		77,788
					복지후생비		3,888,000	4,248,888		4,248,600
					사무비		2,888,000	3,041,374		3,041,994
					대외교통비		188,000	46,598		46,500
					통신비		1,188,000	1,000,488		1,033,488
					장비		88,000	42,532		43,000
					복지금		1,108,088	1,108,800		1,108,088
					차입금		1,108,088	1,108,800		1,108,088
					약탈금		3,808,088	3,808,800		3,808,088
					퇴직저축금		3,808,088	3,808,800		3,808,088
					예비비		188,088	0		0
소계	59,798,120	58,942,384	12,810,800	71,522,384	소계		80,858,088	85,832,528	10,845,725	86,368,254
전달이월					차질이월			4,249,638		4,249,638
					서울시 연납금				1,884,278	1,884,278
합계	60,858,088	58,672,164	12,810,800	72,282,164	합계		80,858,088	89,672,164	12,810,800	72,282,164

*서울시 공무원사업 지원금 <여성가족부 소관 서울특별시 민선도회 임원회 및 홍익회> 12,810,800원

2. 부설 갈등해결센터

항 목	수 입 부			지 출 부					
	실연회계		특별회계	항 목	실연회계		특별회계	총 계	
	2016 예산	2016 결산			2016년 예산	2016 결산			
잔반이월	2,417,810	2,417,810		사업비	17,900,080	19,149,035	4,122,180	23,271,914	
교부금	8,000,080	8,000,000		회의비	2,180,080	1,844,430		1,844,430	
후원금	38,250,080	40,148,996		임차료	5,580,080	5,875,135		5,875,135	
한기수입	18,000,080	19,772,140		포토복합서비스	1,080,000	1,656,475	4,122,300	3,778,773	
자료제작비	800,080	746,000		광고시설	580,300	347,300		347,300	
합계	30,190	2,052		강사비	7,080,000	8,473,600		8,473,600	
				자료제작	1,080,000	1,022,100		1,022,100	
				운영비	40,800,080	43,597,639		43,597,639	
사업후원			4,122,300	4,122,300	현금여	41,080,300	39,191,250		39,191,250
					사무비	980,300	876,732		876,732
					복합주방비	3,580,300	3,181,299		3,201,080
					통신비	100,300	95,909		95,909
					정보서비스	100,300	180,508		180,508
					도서·구내비	190,300	176,808		176,808
					합계	50,000	25,768		25,768
					역입금	3,606,808	3,308,308		3,390,009
					복합주방금	3,600,000	3,308,000		3,320,000
					계좌입				
소계	67,320,080	68,670,148	4,122,308	70,792,448	소계	67,308,080	68,686,638	4,122,180	73,188,818
합계	67,330,280	68,681,918	4,122,300	73,216,278	차년이월				3,081,328
					총 계	67,308,080	69,087,978	4,122,308	75,270,276

*사업후원: 서울과학기술진흥원 / 맞춤형 연구역의 "법원의 DNA로 조직문화 다자본연구" (4,122,300원)

3.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수 입 부			지 출 부		
항 목	예산	결 산	항 목	예산	결 산
잔반이월	538,002	-	사업비	1,300,000	-
교부금	600,000	600,000	회의비	200,000	-
	800,000	-	워크숍	600,000	-
후원금	770,000	-	자료제작비	500,000	-
합수입	91,998	268	연구사업		-
			운영비	700,000	600,000
사업후원	-	-	민건비	600,000	600,000
	-	-	사무비	100,000	-
소 계	1,461,998	600,268	소 계	2,000,000	600,000
			차년이월		538,270
합 계	2,000,000	1,138,270	합 계	2,000,000	1,138,270

임원 인선안



임원 인선 안

○ 근거:

- 정관 제4장 제19조(임원의 선출) 1항 “임원은 인선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정관 제4장 제19조(임원의 선출) 2항 “인선위원회는 이사 2인, 운영위원 5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 인선위원회 구성: 김선혜, 김정수, 전상희, 박수선, 김정아

○ 임원 선출 내용

- 상임대표 안김정애 임기 만료
- 이사 박현선 임기 만료
- 이사 여혜숙 임기 만료
- 이사 정현백 임기 만료
- 이사 조명희 임기 만료
- 이사 추가 인선

○ 임원 선출 (안)

- 상임대표 안김정애 연임
- 공동대표 정경란 신임
- 이사 박현선, 여혜숙, 정현백, 조명희 연임
- 이사 추가 인선 : 김귀옥

임원 인선(안)을 토대로 임원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임원 임기 (안)

구분	명 단	임기	비 고	인선(안)
이사회	김성은(이사장)	2015~2017	해당없음	신임
	김귀옥	2017~2019		
	김선혜	2015~2017	해당없음	사임 연임 연임 연임 연임 연임
	김정수	2014~2016	해당없음	
	김지영	2015~2017	해당없음	
	박유희	2015~2017	해당없음	
	박현선	2014~2016	임기만료	
	안김정애	2015~2017	해당없음	
	여혜숙	2014~2016	임기만료	
	이나영	2014~2016	임기만료	
정현백	2014~2016	임기만료		
조영희	2014~2016	임기만료		
한정숙	2015~2017	해당없음		
상임대표	안김정애	2015~2016	임기만료	연임
공동대표	정경란	2017~2019		신임
감 사	윤수경	2015~2017	해당없음	
	배삼희	2015~2017	해당없음	
부설기구	소장 김선혜	2015~2017	해당없음	-
	원장 김정수	2016~2018	해당없음	
법정 등기 이사 (5인)	김성은(이사장) 김선혜 김정수 박유희 여혜숙	2015.1.21. - 2017.1.20	임기만료	김성은(이사장) 김정수 여혜숙 안김정애 정경란

2017년 사업계획안

I. 2017년 사업기조 및 방향안

II. 2017년 사업계획안



I. 2017년 사업 기조와 방향(안)

2017년은 평화여성회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창립 초기의 정신으로 돌아가 앞으로의 평화여성회의 발전방향을 타진하는 해로 삼을 것이다.

2016년 말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2017년 조기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선을 통해 남북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정권이 수립되어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다듬어진 남북평화통일정책이 수립/반영되도록 평화여성회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는 동시에 이를 실천에 옮기는 한 해가 될 것이다.

1. 평화여성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조직 구조의 개편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

2. 평화통일 관련 대선 의제 제시 :

조기 대선이 가시화될 가능성에 따라 기존의 대북제재조치 해제, 민간인 교류 전면 확대, 남북여성교류 보장, DMZ의 평화적 이용,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의제를 검토하고 제안하기로 한다.

3.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활동과 국제적 연대활동 모색 :

2016년에 이어 '5.24 세계여성평화군축의 날' 기념 3차 여성평화결기와 심포지엄을 계속 진행하면서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국내외 캠페인을 계속한다.

WCD, GPPAC, Ulaanbaatar Process, SAFE 등과의 연대 활동을 계속하면서 국제적 연대활동을 모색한다.

4.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모니터링 계획수립 등 대응 모색 :

기존의 UN1325 네트워크를 재개하고, 국가행동계획 발표 3주년을 맞이하여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1] 조직사업

1. 회의

1-1. 총회

1) 역할: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의 기본 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기타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2) 구성: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3) 내용 : 2017년 사업계획 수립, 공동대표 및 임원 선출 등

1-2. 이사회

1) 역할: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설치, 정관의 변경 발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재산관리, 총회 부의 안건의 작성, 회원의 제명, 총회 위임 사항,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구성: 공동대표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장: 김성은

- 이사: 김귀옥, 김선혜, 김정수, 김지영, 박현선, 박유희, 안김정애, 여혜숙, 이나영, 정경란, 정현백, 조영희, 한정숙

1-3. 운영위원회

1) 역할: 본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주요사업과 기타 정관에 명시한 본회 목적사업과 관련한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2) 구성: 공동대표, 각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장, 서기, 회계,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한다.

1-4. 사무국회의

- 1) 역할: 본회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 집행사업 점검 및 공유 등을 진행한다.
- 2) 구성: 공동대표, 실무집행 책임자, 실무활동가 등으로 구성한다.
 - 위원: 안김정애(상임대표), 정경란(공동대표), 신민시(활동가)
- 3) 내용: 매주 월요일 오전 혹은 오후

2. 위원회

2-1. 정책위원회

- 1) 역할: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평화·통일운동의 정책과제를 모색하고 조정한다.
- 2) 구성
 - 위원: 구성중

2-2. 국제협력위원회

- 1) 역할: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무장갈등예방글로벌파트너십(GPPAC)과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관련 국제연대를 진행한다.
- 2) 구성
 - 위원장: 정경란

2-3. (가칭)조직개발특별위원회

- 1) 역할: 본리 과정과 이후 평화여성회와 (가칭)갈등해결센터와의 협력적 관계형성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논의하고 결정한다.
 - 공간의 공동이용, 인적자원, 사업영역, 팽장절차 등
- 2) 구성: 운영위로 구성한다.

【2】 평화통일 사업

1. 평화여성회 창립 20주년 행사

- 2017년 3월 27일(월)
- 장소 : 서울NPO지원센터 (시청역 근처)
- 대상 : 기존과 신규 등 전 회원, 창립 멤버 등
- 내용 : 20년의 역사 돌아 보기, 미래의 vision 만들기, 사진 및 동영상 상영, 창립 초기 활동상 증인, 토크 쇼 등

2.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활동

2-1 '2017 여성평화과건기'를 통해 지속적인 한반도 문제 알려내기, 평화와 상생, 생명을 기치로 한 한반도 평화통일안 제시

2-2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 여론 조성

2-3. 대선외제 제시 활동

- 5·24조치 해제, 개성공단 재개 등 기존 대북정책의 변경
- 민간인 교류 전면 확대
- 남북여성교류 재개
- DMZ의 평화적 이용법 제정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금강산 교류

3. 남북여성교류 및 협력사업

3-1 남북여성의 교류 재개

3-2 지속가능한 만남 기획 실행.

4. 일상의 평화문화 확산 운동

- 여성에 대한 유우형의 폭력문화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일상에서의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3] 정보 홍보 사업

1.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관리, SNS 평화활동 등
2. 소식지 발행 및 온라인 소식지 발송
3. 메일을 통해 본 회 소식 전달

[4] 회원 사업

회원 간의 소통과 활동의 정보교류를 통해 회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양성과 역량을 확대 강화한다.

[5] 재정 사업

1. 꽃감 판매 등
2. 창립 20주년 후원의 밤

[6] 연대 및 협력 사업

1. 국내 상설 연대

- 1-1. 한국여성단체연합 : 총회, 이사회, 사무국장 연석회의, 여성미래선타 운영위원회,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 1-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대의원 총회, 수요시위 주관
- 1-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여성본부
- 1-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대의원회, 여성위원회
- 1-5.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2. 국내 사안별 연대

- 2-1. 핵없는 세상을 위한 시민공동행동
- 2-2.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반대 전국대책위원회
- 2-3. 사드배치 반대 전국행동

3. 국제 연대

- 3-1. GPPAC(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3-2. WomenCrossDMZ

3-3. Ulaanbaatar Process

3-4. SAFE(Security against US militarism in Far East)

【7】부설 갈등해결센터

1. 조직

1) 구성

- 소장: 김선헌
- 부소장: 전상희
- 운영위원: 김선헌, 김명진, 김진희, 명희, 양승광, 유은주, 전상희
- 사무국:
- 전문위원: 박수선, 박인혜, 이경순, 이덕경, 여혜숙, 조영희
- 자문위원: 강순원, 김차연, 김희경, 박재근

2) 회의

(1) 운영위원회

- 역할: 갈등해결센터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갈등해결센터의 주요 사업과 일상적 업무 논의
- 구성: 소장, 부소장, 본회 사무총괄 담당자, 일반 운영위원
- 운영: 연 6회 정례회의

(2) 사무국회의

- 역할: 센터의 사업 집행에 필요한 사안 논의, 진행사업을 점검하고 공유한다.
- 구성: 소장, 부소장, 활동가

2. 사업목표

갈등해결센터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기반으로 한국사회의 평화적인 갈등해결 문화 확산을 위해

- 조직의 독립적 기반마련을 위한 별도의 조직 설립을 위해 논의하고 추진한다.
- 조직의 현장 경험을 체계화한다.
- 교육·조정 등 평화적 갈등해결을 실현하는 조직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한다.
- 사업의 성과를 대중적으로 알리는 데 힘쓴다.

3. 활동계획

1) 교육

(1) 주관교육 - 평화적 갈등해결교육 "차이와 불일치를 다루는 갈등해결"

갈등해결센터가 주관하는 교육으로 각 과정의 특징과 공통점 등 연결되는 부분을 드러내도록 하며, 각 과정의 내용과 특성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 갈등과 갈등다루기
- 중립적 3자로 갈등 다루기 "조정"
- RJ 피가해 대화모임 진행자 훈련 및 심화워크숍
- 회의진행자 훈련과정
- 조정 심화훈련과정

(2) 외부교육 - 찾아가는 갈등해결교육

- 초·중·고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대상 및 요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진행

2) 사업

(1) 대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 갈등해결 문화를 만들고 확산하도록 한다.

- 개인의 임파워먼트를 지원하는 ‘털임이 있는 대화’
- 공동체를 세우는 “대화가 있는 수요카페”
-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열린대화”

(2) 조정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구조화된 대화를 시도한다.

- 회복적정의 피·가해 대화모임
- 이웃간 분쟁 조정, 회의 진행 등

(3) 지역평화커뮤니티

학교와 지역단위에서 주체들의 연결, 내용의 통합을 위한 교육과 함께 실천영역을 모색한다.

- 마포지역
2년 동안 진행되었던 학교 중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광진구 “아름다운 학교”
대안학교인 “아름다운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와 함께 1년 동안 갈등해결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의 평화 커뮤니티의 거점 공간으로 만드는 것에 집중하도록 한다.
- 중랑구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마을활동가 교육을 통해 평화적 갈등해결역량을 높여, 지역사회 내 평화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주체가 되도록 한다.

3) 정책연구

- 회복적정의 파·가해 대화모임 책자 발간

4) 연대활동

- 평화시민대학준비위원회
: 갈등해결센터, NVC센터, KOPI, 비폭력평화물결, 개척자들
- 회복적정의시민사회네트워크
: 갈등해결센터, NVC센터, KOPI, 비폭력평화물결, 광명교육연대, 좋은교사

5) 홍보활동

- 홈페이지, 페이스북, 소식지

6) 조직관리

(1) 회원활동

- 회원 월례공부모임
- 독서모임
- 회원야유회 등

(2) 청소년평화교육진행자 모임

(3) 조경자 모임

【8】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 조직

1) 역할: 여성평화주의 관점에서 본회의 활동에 대한 이론적 지원, 젠더와 평화에 대한 연구, 여성평화운동의 역사와 이론에 대한 정리 등을 통해 여성들의 평화·통일운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 원장: 김정수
- 연구위원: 위촉 예정

2. 사업계획

평화여성회 20주년 기념

여성평화운동 포럼: 여성평화운동의 미션과 비전 찾기

취지	평화여성회 20년을 맞이하여 여성평화운동의 담론과 실천활동에 대한 정체성, 미션, 비전을 재정립할 필요성 대두됨. 특별히 올해 그동안 함께 활동한 갈등해결센터가 본회로부터 조직적으로 분리되는 것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는 시점이라 위의 논의가 더욱 필요함	
목적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 20년운동의 역사(과거)를 들여다 보고, 현재를 점검하여, 미래로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함	
운영 방법	참여	평화여성회 회원(이사, 전현직 운영위원, 활동회원)과 관심있는 이들
운영 방법	시기/ 횟수	월 1회 혹은 격월간
주제	* 여성평화운동의 여러 이슈를 중심으로 평화운동의 미션과 비전에 초점을 맞춰 발제와 토론으로 운동의 과제 발굴함 - 북한여성과의 만남 어떻게 할 것인가? - 평화형성 과정의 여성참여, 왜? 무엇을? 어떻게? - 갈등해결과 여성주의의 만남, 어떻게? - 일상의 평화운동이란 무엇인가? - 북한인권 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대응 - 주한미군과 기지촌 여성인권 - 통일운동에 대한 평화주의적 접근 등등	
주관	평화여성회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17년 예산(안)



1. 본 회

수입부			지출부		
관	항 목	예 산	관	항 목	예 산
일반 회계	전년이월	4,249,635	일반 회계	사업비	18,100,000
	회비	45,200,000		회역비	2,000,000
	정기	31,200,000		평화통일사업	1,000,000
	이사	14,000,000		연대사업비	2,500,000
				후원행사	5,000,000
	후원금	19,400,000		재정모금	1,000,000
	개인	7,900,000		부설기구	6,600,000
	후원회	10,000,000		운영비	35,060,000
	재정모금	1,500,000		업무추진비	4,800,000
				민건비	15,600,000
	참가수입	100,000		관리비	6,700,000
	자료제공	40,000		사무행정비	7,950,000
	잡수입	10,365		미지급금(16차입금)	5,250,000
	차입금			미지급금(업무추진비)	6,000,000
				적립금(회적적립금)	3,600,000
				예비비	1,000,000
				차년이월	
합 계	69,000,000	합 계	69,000,000		

2. 부설 갈등해결센터

수입부			지출부		
관	항 목	예 산	관	항 목	예 산
일반 회계	전년이월	3,041,320	일반 회계	사업비	17,500,000
	교부금	6,000,000		교육훈련진행비	7,000,000
	후원금	35,000,000		청소년교육사업	2,500,000
	참가수입	14,300,000		대화사업	3,000,000
	자료제공	2,600,000		연대사업	500,000
	잡수입	58,680		회원모임지한비	2,000,000
				자료제작	1,000,000
				회의비	1,400,000
				운영비	43,600,000
				인건비	39,000,000
		사무관리비	1,000,000		
		퇴직적립금	3,600,000		
		차년이월			
	합 계	61,000,000		합 계	61,000,000

3.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수입부			지출부		
관	항 목	예 산	관	항 목	예 산
일반 회계	전년이월	538,270	일반 회계	사업비	600,000
	교부금	600,000		회의비	300,000
	후원금			워크숍	200,000
	잡수입	61,730		자료제작비	100,000
				운영비	600,000
			인건비	600,000	
			차년이월		
	합 계	1,200,000		합 계	1,200,000

부 록

- 평화여성회 정관
- 평화여성회 조직 현황
- 2016년 성명서 목록
- 2016년 발간자료 목록
- 회원가입서



【 부록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① 본 단체는 사단법인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평화여성회**’라는 약칭을 사용한다.
-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Women Making Peace**로 하고 약칭은 **WMP**로 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여성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주의 관점과 평화주의 관점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해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한다.

1. 평화·통일사업
2. 평화교육
3. 통일교육
4. 평화·통일연구
5. 국내외 연대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 ①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모두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사람으로 한다.
2.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후원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 ①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 ③ 회원의 가입절차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7조(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
 1. 본회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총회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후원회원
 1. 본회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 ②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③ 회비를 납부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환급되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제명, 징계)

-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의결권 제한, 제명 등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 ② 회원을 제명 등 징계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회원의 제명 등 징계의 종류와 절차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총회

제11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2조(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동대표 전원의 평의로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 1.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하는 때
 -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 3. 감사사무와 관련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 4.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
- ③ 임시총회의 소집 요구를 받으면 상임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상임대표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공동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상임대표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다.

제13조(총회 개최 및 통지) 공동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 ① 임원의 선출 및 물신임
- ②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 ③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⑤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 ⑥ 기타 주요한 사항

제15조(총회의 의결)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변경, 본회(법인)의 합병 및 분할, 임원의 해임,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총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상임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③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7조(총회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서기가 이에 기명날인한다.
- ② 총회 개최 후 총회 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총회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경수)

- ① 공동대표 3인 내외 (상임대표포함)
- ② 이사 15인 이내 (공동대표 포함)
- ③ 감사 2인

제19조(임원의 선출)

- ① 임원은 인선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인선위원회는 이사 2인, 운영위원 5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 ③ 본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④ 그밖에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 ⑤ 선임된 임원은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제한)

- ①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혈족 관계에 있는 이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위 ①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이로 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 ①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업무를 관장, 관할한다. 그 중 1인은 상임대표가 되고, 총회 의장이 된다. 상임대표 유고 또는 결위시 이사회에서 공동대표 중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의결하고,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되며, 본회 사업에 관한 사항을 통리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의 대표가 된다.
- ④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22조(임원의 임기)

- ① 공동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구성)

- ① 이사회는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가 있다.
- ② 이사회는 공동대표와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한다.
- ③ 필요한 경우 후임이사를 둘 수 있고, 이사회 운영에 관한 별도규정을 둘 수 있다.

제24조(소집)

- ①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임시 이사회회의 소집 요구를 받으면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중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이사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25조(개회 및 봉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 이 집회하고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6조(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의결제외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동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때

제28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 필요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기타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감사)

- ① 본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두고,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부설기구

제30조(부설기구)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제31조(부설기구의 장)

- ① 부설기구의 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본회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부설기구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부설기구의 장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2조(부설기구의 구성 및 운영) 부설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견을 거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재정수입)

- ①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 잠수입으로 한다.
- ②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 ③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37조(예산의 수립)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처) 본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40조(구성 등)

- ① 사무처에는 처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둘 수 있고 사무처장은 공동대표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②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③ 실무자는 사무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④ 실무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41조(정관제정 및 개정)

1. 정관의 제정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2.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
3. 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법인해산)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회 해산시 잔여 재산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3조(결산) 공동대표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기타)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헌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동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1997. 3. 28 제정

1998. 2. 10 1차 개정

1999. 3. 4 2차 개정

2000. 1. 25 3차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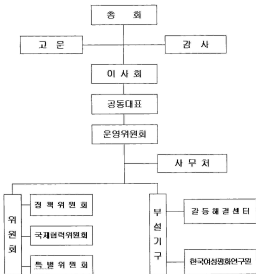
2002. 1. 25 4차 개정

2003. 1. 28 5차 개정

2004. 1. 9 6차 개정

2010. 1. 20 7차 개정

【 부 록 】 평화통일여성회 조직 현황



[부 록] 2016년 성명서 목록

날 짜	제 목
160203	[기자회견]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 여성계 기자회견
160212	[성명] 개성공단 가동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60216	[기자회견] 개성공단 전면 중단 철회하고 5.24조치 즉각 해제하라
160222	[성명] 19대 국회는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여성대표성제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의 소임을 다하라
160302	[성명] 20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젠더과제와 정당 공개질의 답변결과
160303	[기자회견] 보수 기독교계계의 혐오와 차별에 동조하는 새누리당 김우성 대표/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비대위원 규탄한다
160304	[기자회견]사드 한국 배치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중단하라! 평화와 안보 위협하고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사드 배치 반대한다!
160307	[기자회견]모든 무역시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즉각 협상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160309	[성명]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지역구 30% 여성공천 반드시 이행하라 여성우선(전략)공천과 단순공천 실시하라
160318	[성명] 새누리, 더민주, 정의당의 당헌,당규도 무시한 막무가내 공천을 규탄한다.
160324	[성명] 비례대표의 여성 대표성 축소하는 더민주당, 새누리당 규탄한다
160329	[논평]지역구 30% 여성공천'하겠다는 각 정당들의 약속들, 결국 유명무실해져
160330	[기자회견]『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후보자 답변, 지역 유권자에게 공개할 것
160331	[기자회견]핵안보정상회의와 한미일정상회담에 즈음한 727인 평화선언 발표
160405	[성명] 세계군축행동의 날.

날 짜	제 목
	언제까지 글로벌 호구 대한민국이어야 하나
160408	[보도자료] 사드 배치 예정지, 국회의원 후보들은 어떤 입장일까?
160414	[논평] 제20대 국회 여성의원 17%에 그쳐, 다만 지역구 여성의원 수 37% 증가에서 성평등 국회의 희망을 본다.
160426	[성명]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해야 한다
160513	[논평] 여성-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우려가 높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통합'을 반대한다.
160606	[기자회견]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한미일 MD 및 군사동맹 구축, 일본군의 남한 재상륙을 반대한다!
160608	[성명] 제1234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160712	[성명] 사드는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
160714	[결의문] 한반도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정 철회하라
160818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
160822	[기자회견] 새누리당은 이 땅의 정의와 민주를 살리는 백남기 농민 국가 폭력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개최를 즉각 수용하라!
160819	[논평] 사드 배치 '제3후보지'로 주민 분열시키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160906	[기자회견] 국회는 사드 배치 철회에 나서라
160913	[성명] 한반도 위기 고조 행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
160913	[논평] 국방부 사드 관련 표현의 자유 침해 규탄
160926	[기자회견] 북한 수해지원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160930	[기자회견]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사드 배치 최적지는 없다! 사드 배치 결정 철회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160927	[공동서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서한

날 짜	제 목
161103	[기자회견] 박근혜 정권은 파탄과 파국의 정치를 당장 멈추고,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라!
161103	[기자회견] 평화여성 시국선언
161103	[기자회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여성단체 시국선언
161109	[성명] 제1256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161116	[성명] 사드 배치 절차 강행 즉각 중단하라
161116	[시국선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 시민사회
161118	[성명] 야3당의 '한일 군사정보협정 반대 결의안' 먹은 새누리당 규탄한다
161122	[기자회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주단! 대통령 재가 반대! 박근혜는 모든 국정에서 손 떼고 즉각 퇴진하라!
161123	[기자회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전면 무효다
161130	[기자회견] 박근혜정권 퇴진과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의 날'

< 여성간첩행동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

2015년 12월 28일, 우리는 가짜 사과 앞에 비겁하게 손 내이는 어처구니없는 박근혜 정부를 목격했다. 한일정부는 실로 기만적인 '합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전시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싸워온 세계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이들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운운하며 법적 책임이 이미 끝났고, 그 간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문제 해결을 자신들이 해결했다며 자화자찬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피해자를 배제한 가해자와 동조자 간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피해당사자를 배제하였고,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수십 년간 요구했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조치는 철저히 무시했다.

일본 측 표현 사항에는 구체적인 문제와 피해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재발방지 노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조차 없다. 또한 '충전의 안념'을 위반하며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등, 책임과 반성의 자세보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급히 마무리 짓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연해 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여전히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사실과 국가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채, 사안을 희석시키겠다는 의도를 표명하고, 오히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과 한국 정부의 비난, 비판 자체를 요구하며 적반하장격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외교부는 "피해당사자를 만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청와대는 논란이 불거지자 "그동안 민간 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며 "어떻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릴 것이냐"며 피해자들과 정의로운 해결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현실적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 "위안부 합의에서 10억원을 일본이 국가 예산으로 기금을 출연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며 문제를 바라보는 처급한 인식을 드러냈다. 과연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당사자들의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는 있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991년 당사자인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으로 촉발된 일본군'위안부' 운동은 당사자들의 존엄성과 명예회복,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역사정의 실현, 전쟁시대 평화실현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소녀상을 비롯한 전 세계 각 지역의 <기림비(평화비) 건립>,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나비기금>, <나비네트워크> 등의 운동은 전시 성폭력의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동을 요구하는 정의 실현 운동이며 책임의 상징이다. 이러한 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아무것도 못했다'며 폄하하고

배제하기 바쁜 박근혜 정부는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당사자를 배제하고 다급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굴욕적인 합의를 했는지 답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단순히 국가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닌 여성 인권 문제이다. 국가가 지행한 성폭력과 한국사회의 가부장제가 결합해 오랜 시간 피해자의 목소리가 은폐되어온 전시 성폭력 문제이다. 피해자가 배제된 이번 '합의'는 전 세계에 난무한 성폭력 가해자와 이를 동조하는 세력이 문제를 회색화하고자 하는 방식과 소름끼치게 닮았다. 이러한 부정의의 역사를 이제는 끌어내야 한다. 전시 성폭력의 가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는지 후대에 길이 남게 이 세계가 여성 인권을 위해 애쓰고,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인권과 평화교육의 장이기도 한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고한다.

- 당사자의 요구를 배제한 이번 '합의'는 무효다.
- 한국 정부는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들에 사죄하라.
-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범죄를 인정하고 진상규명하라.
-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국회결의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 일본 정부는 역사교과서 기록, 위령탑과 사료관을 건립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수십 년간, 셀 수 없이 외친 이 요구들이 관철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줄 것이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통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성폭력 근절과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고 국제 정의를 세워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 행동도 함께 해나갈 것이다.

2016. 1. 13.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교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물어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평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민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성명서]

개성공단 가동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월 10일 오후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개성공단 폐쇄는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자해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선 개성공단 폐쇄는 경제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키겠다고 2013년 남북한의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더구나 이번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중단 발표는 사실상 국제법상의 조약에 해당하는 남북 경제협력 합의의 일방적 파기 행위에 해당한다.

연간 1천200억원에 이르는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문제가 있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의 대부분은 무상교육과 의료와 같은 사회문화시설금과 상품공급권 등의 형태로 북측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남측 120여개 업체는 2013년에 이어 또다시 존재의 기로에 내몰리게 됐다. 정부는 대책부지와 금융지원 등을 운운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5만 4천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남한 중소기업들의 곤경과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도외시한 정부의 태도 앞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이들은 북한의 핵심력이나 징거리 로켓 발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평가 본패를 보여주겠다는 강박관념이 영혼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려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은 남북관계의 끈을 완전히 끊을 때가 아니다. 슬기롭게 냉각기를 거쳐 협상다운 협상을 모색할 때이다.

더구나 핵핵과 미사일 문제는 지난 20여년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지에 실패한 문제들이다. 그 위에 새로운 제재정책을 추가한들 아무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실패한 제재 정책 대신 책구적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기초를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실효적 대책임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극단적 증오에 빠져 한국이 먼저 일방적 적대정책, 강경 제재의 선포장으로 나서는 것은 동아시아의 냉랭전을 격화시키고 한반도를 그 재물로 내던지는 미련한 자충수일 뿐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16년 2월 1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어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총사단, 참여연대, 여성환경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정의, 생태지평,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녹색교통운동, 한국투명성기구, 녹색연합, 문화연대, KYC(한국청년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세계상용어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성면,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인우회, 한국어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어성장애인연합, 한국어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한부모연합, 천안여성회,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통일나무,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비박,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3000, 시민평화포럼, 고양명화누리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핵문제 해결 못한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철회하고 5.24조치 즉각 해제하라!!

2월 10일 정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실질적 대책없는 정부의 이같은 일방적 조치에 개성공단 124개 입주업체는 물론 국민들이 분노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광명성 4호'를 발사해 지구 궤도에 진입시킨 데 대해 정부는 UN을 비롯한 국제적 제재 공조 노력에만 맡기지 않고 남한 단독으로 체제에 직접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개성공단이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대상이지 제재 수단이 아니라는 기존 정부 입장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처사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지난 2013년 북측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선언 이후 남북당국이 맺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1항'에 위반된다. 동 합의 제1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북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근로자의 정상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물론 4차 핵 실험에 이은 이번 위성발사는 북핵의 소형화, 경량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난 세차례 핵실험과 다른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대북 압박정책으로는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도 과거 경험상 분명하지 않은가. 더구나 개성공단 중단이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제재로서의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경제보복을 야기하는 사드 배치 문제가 큰 우환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때,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야말로 오히려 북한 보다 남한에 큰 타격을 가져다 줄 것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를 중국에 파견하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남한은 개성공단에 진출한 업체들은 방글라데시나 캄보디아를 제외하고 개성공단보다 낮은 임금의 근로자를 찾기도, 개성공단 만큼의 기업운영환경을 외국에서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위성발사의 부정적 영향을 매우 우려한다. 동시에 개성공단마저 폐쇄 되면 남북관계는 전면대결 상황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며 한국경제도 더 어려워질 것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회교를 기대하고 북한의 오험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더 이상 파국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유연 결의를 고려하여 그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

하나, 정부가 내린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같은 압박정책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오히려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철회하고 남북 대화와 협력에 적극

나서라.

하나, 북한의 주요 핵시설 및 최고지도부에 대한 정밀조준 폭격을 목표로 하는 오는 3월 대규모 한미군사합동훈련의 위험성을 우려하며 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북한 핵실험이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결성의 구실이 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력을 발휘하라.

하나, 4차 북핵시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빌미로 동북아 신냉전 질서를 앞당기고 남북관계 개선을 저해하는 한반도 사드 배치 한미 공식 논의를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

하나, 정부는 124개 일주기업체 및 6천 여개의 협력업체에 미치는 피해와 부작용, 한국경제 전반에 미치는 막영향에 대해 충분하고 실질적 조치를 법적으로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말로만 남북간 신뢰회복을 의치지 말고, 철학과 진정성을 가지고 5.24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 개선 조치를 단행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라.

2016.2.11.

(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장희

(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송태경

(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양경숙

(사)평화통일시민연대 고문 이상철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이사 박재국

(사)평화통일시민연대 한반도평화실천위원장 이광세

전국YMCA연맹 평화통일행동협의회 공동대표 노정선

(사) 남북경협기업인비상대책위원회 운영위원 최원호

(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공동대표 안김정애

(사)인류통일국민운동본부 총재 윤소년

[성명서]

**19대 국회는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여성대표성제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의 소임을 다하라**
- 19대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합의하라 -

사상 초유의 총선 연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23일인 내일까지 선거구 획정기준을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기지 않으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거연기는 민주주의의 파괴행위일 뿐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19대 국회와 국회의원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조속한 합의를 통해 민주주의의 전당으로서 본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 이행 조치를 마련하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각 정당과 여성계는 지역구 여성할당제의 의무화에 대해 합의하였다. 지난 1년동안 여성계는 지역구 여성할당제 도입 서명운동과 여성대표성 30% 실현을 위한 질의대회와 성명서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역구 여성할당제의 의무화 및 강제이행조치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19대 국회는 약속한 대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지역구 30% 여성 공천 노력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고 강제이행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각 정당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지역구 30% 여성공천을 반드시 이행하고 전(후)선공천의 50%를 여성에게 공천하라

각 정당은 당헌·당규에 규정된 지역구 30% 여성공천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선 관련 여성가산점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가산점 산정기준을 본인 득표율이 아니라 선거인단수의 20~30%를 가산해야 한다. 또한 전(후)공천 및 우선공천 시 정치직 소수자인 여성을 위해 전(후)공천 및 우선공천지역의 50% 이상을 여성에게 공천해야 한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19대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합의하라
-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 이행 조치 법안을 신속히 통과하라
- 각 정당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지역구 30% 여성공천을 이행하라
- 각 정당은 전(후) 및 우선 공천의 50%를 여성에게 공천하라
- 각 정당은 정선시 여성에게 선거인단 수의 20~30%를 가산하라

2016년 2월 22일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전국 151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원회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관부모회양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회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마주여성인우회 광명여성회와 근로여성
인우회 김포여성회와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회와 새옹리 성남여성회전학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힐러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와 수원여성회전학 부설 여대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
회전학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회와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인우회 인천여
성회전학

[광주전남]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인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회 전학 부설 성매매
지원 센터 '한울지기' 광주여성회전학 광주여성인권재단앤더우설 광주여성정예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
성단체연합 군산여성회전학 목포여성회전학 순천여성정예인연대 영광여성회전학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지원센터/무지개센터 전남여성정예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부여성회 대구여성정예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전학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정예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추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합계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성회 대전여성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정예인연대 대전여성정치
네트웍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리플을 위한여성회 전학 한양여성회 청주YWCA 청주YWCA여성총합상담소
청주노동노동자회 청주여성회전학 충남여성정예인연대 충북살얼면과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농촌
충북여성정예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여성정예인연대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정예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
인권센터 김해여성회전학 김해여성회 미산여성회 미산항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회전학 부산여성회전학상담소 부산여성정예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회전학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
족지원센터 진주여성인우회 진해여성회전학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회전학 통영여성정예인연대

[서울]

강서말연여성회전학 서울남서여성인우회 서울동북여성인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희생대책문제연구
을위한한국연대 시각장애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센터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
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인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회전학 한국여성정예인연대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
성정치연맹 한국여성학자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회전학 정읍여성회전학 익산여성회전학 인권회담센터'김갑순'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
여성노동자회 정읍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정예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
센터 전주여성회전학

[제주]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문 / 심터 불기 / 자활지원센터

<제20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젠더과제와 정당 공개질의 답변결과>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

제20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젠더과제 선정

1. 한국여성단체연합 외 40개 단체는 성평등 및 성주류화, 젠더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분명히 하고, 20대 총선을 통해 구성 될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성평등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 단체들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11개 주제와 8개 대상, 1개의 독립과제로 총 20개 영역의 100가지 젠더정책을 마련하고, 이 중 총선 이후 국회에서 주목할 핵심 젠더과제를 선정하였다. 핵심 젠더과제는 총선 공간에서 이슈화하고, 이를 정당 및 총선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2.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 제20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젠더과제

1.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을 전부개정
2.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3. 상시지속업무의 신규채용은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4. 국공립어린이집을 30%로 확충
5.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
6. 공공임대주택을 30%로 확대
7. 주거정책 의사결정기구에 청년할당을 실시
8. 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 처벌 법제화
9.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법제화
10. 가정폭력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
11.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
12. 미군 '위안부'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13.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1/3로 확대
14.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
15.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이사에 여성 30% 할당
16. 남북여성교류를 저해하는 5.24조치 해제
17. 환경과 지속가능한 전 정책 결정구조에 여성 40% 참여 보장
18.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
19. 여성장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 제정
20.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및 국가의 양육비 선 지급 범위와 금액 확대

21.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필요성 확보
22. 북한이탈여성의 제3국 출생자녀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
23. 성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선결과제>
24.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25.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철회

핵심 쟁단체제 정당 공개질의 결과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쟁단체제 실현 의지 확고
더불어민주당, 쟁단체제 대체로 수용, 그러나 결정적 정책의 답변은 회피
국민의당, 쟁단체제 대체로 수용, “제한적 찬성” 남발로 의지 파악이 어려움
새누리당, 답변 자체를 거부, 쟁단체제 외면, 불응으로 일관

1. 우리 단체들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에 25가지의 핵심 쟁단체제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 자체를 거부한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5개의 정당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1)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은 25개 질의에 모두 “예”라고 답변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쟁단체제 실현 의지가 확고한 정당으로 보인다. 특히 녹색당은 모든 질의에 대한 찬성의 이유와 근거, 녹색당의 쟁단체제의 입장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가장 성실하게 답변하였다.

2) 더불어민주당은 23개의 질의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오자보건법」개정, 성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에 유보라고 대답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쟁단체제를 대체로 수용하였으나 여성·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증진의 결정적인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유보”라고 답하여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다.

-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오자보건법」개정에 대한 ‘유보’의 이유를 “인공임신중절 여성에 관한 다양한 지원 필요. 다만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 필요”라고 답변함.

- 성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에 ‘유보’의 이유를 “정·사·경·재·사·화·문·화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이념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 공감. 다만 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 필요”라고 답변함.

3) 국민의당은 21개 질의서에서 “예”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4개의 질의는 제한적 찬성이라고 답변 하였다.제한적 찬성의 이유를 “목표는 동의하나 점진적으로”, “자유를 극히 제한하고”, “확대는 동의하나” “신중하게 접근 할 필요 있음” 이라고 조건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답변은 국민의당의 견더정책 실현 의지가 보이지 않고,성평등 실현을 위한 쟁더과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최저임금법」개정 찬성의 질문에 “목표는 동의하나 점진적으로, 제한적 찬성”

-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개정 찬성의 질문에 “자유를 극히 제한하고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면 제한적 찬성”

-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1/3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의 질문에 “제한적 찬성 : 확대에는 동의하나 70-80석 정도”

-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체류관리법」, 「관광진흥법」개정 찬성의 질문에 “유출입소 등에서 취약당하는 외국여성근로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절대 공감하지만,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 할 필요가 있음, 제한적 찬성”

4) 새누리당은 답변 자체를 거부

새누리당은 바쁘다는 이유로 답변 자체를 거부하고, 거부의 이유를 명시한 공문서리 요청도 거부하였다. 핵심 쟁더과제 공개질의서의 취지는 각 정당의 견더정책의 집행 의지를 확인하고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의 질의서의 답변보차 거부한 것은 여성단체의 요구에는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과 유권자들에게 새누리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 즉 소통을 거부한 것이라고 해석 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교감해야 하는 정당의 기본적인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성평등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1. 여성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날로 심각해지고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권리옹호는 더디기만 하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제도, 문화, 시민의식 등 사회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앞으로 우리 단체들은 각 정당의 총선 공약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제20대 총선 후 구성될 국회에서 각 정당들이 쟁점과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록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
당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움터 장애여성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인
지역산전국네트워킹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여성환경연대 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 쉼터정치연구소 여.세.연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
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
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민권센터 함께하는주부
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총 41개 단체)

보수 기독교계의 혐오와 차별에 동조하는 새누리당 김우성 대표/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비대위원 규탄한다!

지난 2월 29일, 대한민국살리기나라사랑운동본부(대표 이명훈 목사)가 주최하고 대한민국바로세우 기독교민동본부(대표 전광훈 목사)가 주관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기도회는 한국 정치를 혐오로 몰들어가는 목소리로 가득한 차별 선동의 장이었다. “동성애, 이슬람을 지지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세우면 안 된다.” “동성애와 이슬람의 침투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번 선거는 영적 전쟁이다.” 성소수자와 무슬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부추기는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보수 기독교계의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반대 선동은 그 심각성이 도를 넘은지 오래다. 그러나 무엇보다 경악스러운 지점은 이 행사에 새누리당 김우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이 참석해 혐오에 동조했다는 사실이다. 두 정치인들은 이 자리에서 차별을 약속했다.

새누리당 김우성 대표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인권 관련 법에 대해서는 여러분(기독교 관계자)이 원하시는 대로 방침을 정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당 대표로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의사를 종교단체에 의탁하겠노라 고개를 숙인 셈이다. 아이써 그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부채와 담육에 희생당한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 노동계약으로 미래를 빼앗긴 노동자들과 청년들, 자살로 내몰리는 빈곤층과 노인들의 행복에는 조금도 관심 없는 새누리당이 말하는 ‘모든 국민’에 성소수자나 무슬림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재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명실공히 혐오의 정당이다. 지난 수년 동안 여러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각종 반성소수자 행사를 지원, 지지하고 대변하며 반성소수자 운동의 성장을 뒷받침해 왔다. 현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반성소수자 차별선동에 앞장서고 있는 극우단체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이런 마당에 제1야당으로서 새누리당의 대안을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이라는 박영선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와 나란히 차별선동에 뜻을 같이 했다는 사실은 깊은 좌절과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다. 박영선 의원은 자신의 차별적 인식을 재차 삼차 확인하며 반성소수자 세력에게 인종증발하려 애썼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인권 관련 법 이거 제피 다 반대합니다. 특히 동성애법은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법이다. 이런 법에 더불어민주당은 한기총의 모든 목사님들과 기독교 성도들과 정말로 뜻을 같이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인권 관련 법, 이슬람 문제 저희는 결코 이것을 받아들이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이러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당 동료들이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던 바로 그 순간 가장 열렬히 테러방지법에 찬동하는 극우 세력과 “한 뜻”임을 외쳤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행보는 박명선 비대위원이 공개석상에서 차별금지법 반대가 당의 입장이라고 발언한 것을 단순한 동충행동으로만 볼 수 없게 만든다. 2013년 2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자신들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반성소수자 차별선동 세력과 압박에 굴복해 철회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 법의 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20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연합이 제시한 전대 정책 가운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유보 입장을 냈다. 이런 태도는 차별선동 세력의 기세만 살리는 자충수였다. ‘헌실 정치’의 논리는 기독교를 위해 변화를 유예하라는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과 다른 대안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받고자 한다면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하고, 이번 박명선 비대위원의 언행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할 것이다.

김무성, 박명선 두 정치인들의 기도의 참석이 무엇보다 우려되는 지점은 정치와 종교계의 유착을 어떤 무고범이나 망설임 없이 드러낸다는 점이다. 두 거대 정당의 지도부가 참석한 국회기도회는 절대로 정치색을 배제한 행사가 아니었다. 오히려 기도회는 ‘빈기독교법’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동성연애’, 이슬람, 차별금지법, 인권법 등에 대해 각 당 지도부들에게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세력과의 약속이 다분했다. 차별선동세력들이 비젯이 국회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여당대표와 제1야당의 지도부가 참석하고 고개를 숙여가며 동조하겠다고 약속하는 태도는 한국이 과연 정교분리의 법치 국가인지 의심케 한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평등권과 정교분리의 원칙,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언행을 용인한다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경제 위기와 불평등의 심화 속에 성소수자와 무슬림, 이주민 등을 향한 혐오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절당과 분열에 기생하며 정의와 평등을 갈아먹는 혐오의 정치야말로 한국 사회를 ‘헬조선’으로 만드는 주범이다. 보수 기독교계의 혐오와 차별에 동조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명선 비대위원의 행태를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포기하고 민주적이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무성 대표와 박명선 비대위원은 성소수자와 무슬림의 존엄과 인권을 부정한 혐오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라.

우리는 성소수자 인권을 부정하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보장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8년 3월 3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성소수자차별 반대 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제주파, 망할 세상을 향한다는 LGBTQIAQ 원천연대,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언분총치마, 성정치항상별정체성 범정색연구회, (사)산나는샌다, 언나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연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킹, 차별없는세상을 위한기독교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라)

행동을위한한표 레인보우보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노동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축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총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법회위원회, 사회혁신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어주노동자노동조합(IMTU), 아시아의장, 연구공간 수유+너머, 어주노동자노동후원회, 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방송(BMTV), 인권간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동연대회의, 전국민연연합, 전국형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화성부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칠리원공동체가사야고, 한국여성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가장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나이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총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법안권사회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행동장애훈애여성아실, 새사회연대, 성공화대퀴어모임 'Be:IN', 여성단체연합,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별', 인권운동공간 할,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랑,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외인권발탁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영화외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평화인권센터, 켈디정치연구소 어.세.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등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화

사드 한국 배치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중단하라!
평화와 안보 위협하고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사드 배치 반대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통과되지마자 한미 당국이 다시 사드 한국 배치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23일 서명을 불과 1시간 여 남겨놓고 체결을 유보시킨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재차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안에 대한 중국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전격적으로 유보한 데서 명확히 드러났듯이 한국 배치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무기가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포위하려는 정치적, 군사적 무기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그런데도 한미 당국이 이제 와서 다시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한 공동실무단 약정을 체결하려는 것은 중국의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도록 견제하려는 것이거나 약정 체결 유보로 신뢰를 잃은 박근혜 정권의 체면을 살려 주려는 것이거나 아니면 중국의 안보리 제재 이행 여부에 아랑곳 하지 않고 사드 한국 배치로 한미일 3각 MD와 군사동맹을 구축하여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포위를 전면화해 나갈으로써 중국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이상의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챙기겠다는 미국의 속셈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우리는 한미 당국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한국의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핵무기화한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한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월 26일 방한한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사드는 외교적 협상 카드가 아니"라며 사드 배치 문제와 대북 제재 문제가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3월 2일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배치가 유엔에서 대북 제재 관련 중국의 움직임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드가 한미 당국의 주장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북한의 핵실험과 위성발사는 사드 한국 배치를 강행하려는 명분에 불과했다는 점을 자명한 것이다.

매당초 사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가 아니라는 것은 세삼 설 명할 필요조차 없다.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사거리가 짧고 정밀 고도가 낮아 사드로 이를 요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한미 당국은 노동미사일을 발사각을 높여 발사하면 남한을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경우 자세제어가 어려워 명중률이 떨어지고 비행시간이 길어져 요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 스캐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2월 24일 다층방어를 위해 사드 배치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어중심이 매우 짧은 한반도 전장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다층방어는 불가능하다. 또한 주한미군기지를 겨냥한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사드와 PAC-3로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PAC-3가 배치되지 않은 한국군 기지와 한국 대도시와 주요 민간시설들에 대해서는 다층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층방어를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주한미군 방어를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한미 당국은 사드배치 협의 공동실무단 가동을 위한 약정 체결과 함께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MD 체계 구축의 실질적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6일에 있을 한미 우주 정책 대화를 위해 발한하는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보는 '사드 한반도 영구 배치'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한미 우주 정책 대화에서 논의될 우주상향인식(SSA)은 지상 및 우주에 설치된 광학, 레이더 등 우주 감시체계를 이용, 위성이나 우주 잔해물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구축하려는 전지구적 미사일방어망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탐지거리가 최대 5,000km에 이르며 식별 능력이 월등한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바로 미국의 전지구적 미사일방어망 구축의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이며 중국의 대미 핵 억제력을 결정적으로 무력화하게 될 것이다. 미중 간 동북아 전략적 균형이 결정적으로 미국 우위로 굳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는 한미일 삼각 MD의 전초기지로 전락할 것이며 동북아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고착화되어 무한 핵 군비경쟁을 불러와 한국의 평화와 안보는 더욱 위태롭게 될 것이다. 또한 북미, 남북 간 대결 구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은 더욱 실현이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사드로 북한의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주장하는가 하면, 심지어 사드 요격율이 100%이며 사드 레이더 100m 밖에서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등 대국민 왜곡 주장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국방부의 입장은 사드 한국 배치로 인한 평화와 안보 위협, 한중관계 파탄으로 인한 경제타격, 생존권과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양태, 원주, 군산, 대구 등 사드 배치 후보지역의 주민들을 비롯한 한국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는 외면하고 미국과 일본, 심지어는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사대매국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한미 당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문제로 잠시 유보했던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을 체결하고 나면 사드 배치 후보지 발표 및 배치운영비 분담 문제도 별 이견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스캐피로티 사령관이 "최적의 배치 장소를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지만, 공동실무단이 가동되면 한국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국이 원하는 최적의 장소에 최적의 시기에

배치될 것이 뻔하다는 것은 국방부의 지금까지의 태국적 행태로 보아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 한국 배치 관련 공동실무단 가동에 관한 약정 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박근혜 정권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대미 풀방 외교와 남북 압박과 봉쇄 유도를 위한 외교 정책에서 벗어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 협상에 나섬으로써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대중 관계 파탄도 막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발판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3월 4일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회의,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반전평화연대(광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쟁반대명확실한국민행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성명서]

모든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즉각 협상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곧 오를 정도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강대강의 군사적 격돌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 전역에서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키리졸브-독수리'연습에 30만 명 이상의 역대 최대 병력과 함께 핵 항공모함, 핵잠수함, F-22전라폭격기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들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양 정부는 연일 대북 선제타격, 북한 지도부 참수 작전, 평양 진격작전 등의 자극적 내용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전 훈련을 위해 미 특수부대와 전쟁 물자를 실은 해상사전에배치선단을 이미 한반도로 투입하였고, 군 당국은 훈련 기간 중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공언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2월 23일에는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 형식으로 '참수작전과 축적계시 타격 관련 움직임이 보일 경우 선제적인 작전수행 진입'을 공언하며 그 제1대상으로 청와대를 지목하였습니다. 7일의 한미합동훈련을 앞두고는 평양사수 훈련,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대구경방사포 시험사격 등 군사훈련에 돌입하였고, 김정은 제1위원장도 직접 핵탄두 실전배치와 발사를 거론하기도 하였습니다.

선제공격 위험이 선제공격 위험을 낳고, 지도부 참수작전이 청와대 공격 발언으로 이어지는 등 한반도는 목아 최악의 위기국면으로 치달고 있습니다. 더구나 개성공단 폐쇄로 군사분계선 일대의 완충지대는 물론 모든 통신선도 차단된 상태이며, 남북은 어떤 우발적 충돌도 통제 혹은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상태에 대한 적개심과 전쟁 선동만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핵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만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한미 양국과 북한은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비롯한 모든 군사적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하고 개성공단 재개와 통신선 복구 등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반도에 충돌이 일어날 경우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은 바로 남과 북의 온 겨레인 만큼 남북 양 당국은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은 북이회담, 6자회담을 통해 항방의 시급한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축소·중단과 북한의 핵동결 조치를 상호 교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로 이어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헌법정신으로의 복귀를 촉구합니다.

우리 헌법은 '평화통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위기를 조장하는 선제공격, 상대방 지도부 참수작전 등의 계획과 군의 지휘아래 추진되는 전단 살포 행위 등은 군사적 충돌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행위입니다.

정부는 평화통일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북한 봉쇄 및 정권봉쇄 정책을 폐기하고 대북정책의 전면적 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의 극단적인 적대정책에 제동을 걸고 정책전환을 강제해야 합니다.

2016년 3월 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성명서]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지역구 30% 여성공천 반드시 이행하라
여성우선(전략)공천과 단수공천 실시하라**

각 당의 공천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오늘(3/9) 새누리당은 2차 공천, 더불어민주당은 2차 '킷오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각 정당은 제20대 총선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Global Gender Gap Report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0.651로 145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115위였다. 특히 정치 권한 부문은 101위를 기록하면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 아직도 여성 국회의원 47명(지역구 19명, 비례대표 28명)으로 15.7%에 불과하다.

여성 국회의원 수 확대를 위해서는 비례대표가 확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구는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으로 기존의 비례대표 의석보다 7석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제20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은 19명으로 전체 지역구 의원의 7.7%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은 지역구 30% 여성할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각 정당들에게 여성 국회의원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각 정당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지역구 30% 여성공천을 반드시 이행하고 이를 위해 여성들에게 전략(우선)공천의 50%를 공천하거나, 단수공천을 실시하라.

2016년 3월 9일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전국 150개 여성단체)

[성명서]

새누리, 더민주, 정의당의 당헌,당규도 무시한 막무가내 공천을 규탄한다.

- 국민의당은 여성공천현황 파악 안 돼
- 지역구 30% 여성할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공천은 10% 남짓에 불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등록 시한을 1주일 앞둔 오늘(3/18), 각 당은 막바지 공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에 출범한 이후 각 당이 정한 당헌당규에 따라 지역구 후보 공천 시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요구해 온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이하 여성공동행동)'은 오늘 오전에 각 당에 자료를 요청하며 여성공천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참혹하다.

3월 18일 오전까지 새누리당은 전체예비후보자수 836명 중 여성예비후보자는 82명으로 9.8%이다. 전체 단수공천자 100명 중 여성은 4명으로 4%에 불과하다. 더민주당은 전체예비후보자 수 355명 중 여성예비후보자 32명으로 9%이다. 전체 단수공천수139명 중 여성단수 공천은 16명으로 11.5%였다. 정의당 역시 전체예비후보자 63명 중 여성후보자는 8명으로 12.7%였다. 국민의 당은 인선작업 중이라 제공할 자료가 없다고 대답했다. 여성후보자 공천 계획이나 현황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비율이 10% 남짓에 불과한 것에 대해 여성공동행동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19대 국회의 지역구 의원 중 남성은 94%로 특정성이 독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할당제'는 젠더차별로 인해 남성으로 편중된 성비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즉 '결과적인 평등'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동안 점차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이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여성공동행동은 지역구 30% 여성할당을 지키지 못한 각 정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20대 총선 결과 여성 국회의원 숫자가19대 국회보다 숫자가 줄어들거나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경우 각 정당은 민주주의 퇴행, 여성의 정치참여 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18일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전국 150개 여성단체)

비례대표의 여성 대표성 축소하는 더민주당, 새누리당 규탄한다.

선거법 위반한 더민주당은 각성하고, 남녀교호순번제 제대로 지켜라.

비례대표 여성할당 60% 약속한 새누리당은 당선 가능권에 여성을 60% 할당하라.

우리 단체들은 국회와 정치권에 여성과 청년, 장애인, 농민,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확대, 50% 여성할당과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 마련,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및 강제조치 마련 등 선거법 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특히 비례대표제도는 여성과 청년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제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수는 축소되었고, 더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보 배치는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기는커녕 후퇴시키고 있다.

더민주당은 23일 비례대표 후보명단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확정된 비례대표 후보 36명중 출수 순번인 15번에 남성인 이수혁 전6차회담 수석대표를, 짝수 순번인 16번에 여성인 정은혜 전 더민주 상근부대변인을 배정하여 선거법을 위반했다.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에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다.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때 출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해서라도 15번에 남성을 배치한 것은 여성, 청년 등 사회적 소수자의 대표성 확대하기 위한 비례대표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다.

더민주당은 지금이라도 15번에는 여성을 16번에는 남성을 배치해야한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대신 여성 국회의원 숫자가 축소되지 않도록 비례대표에 여성을 60% 할당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1-27번까지 여성을 시작으로 교호순번제를 지키고 있지만, 그 이후는 여성을 많이 배치하는 공수를 부렸다. 전체 추천후보 45명 중 여성 27명, 남성 18명으로 여성할당 60%를 채웠지만, 실질적인 당선 가능권인 20번 이내 여성비율을 보면50%로 자신들의 공약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60% 여성 할당을 약속을 제대로 지키려면 당선 가능권 내에서 여성이 60%가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더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전체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를 확대하기는커녕 축소했으며, 비례대표 남녀교호순번제, 지역구 30%할당 의무조항을 어겨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여성과 청년 등 사회적 소수자의 대표성 확대를 저해하고 있다. 이는 여성 대표성 확대와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국회에서 자신들이 합의한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도 여성 국회의원 47명(지역구 19명, 비례대표 28명)으로 15.7%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세계 평균 22.1%, 아시아 평균 18.5% 예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 수준이다.

우리 단체들은 강력히 요구한다.

더민주당은 15번에 여성을 배제하고, 새누리당은 당선 가능성에 여성을 60%할당하라!

2005년 선거법 개정 때 정치권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 순번을 의무화하면서도 이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제조항은 사·도·의원 선거에만 적용하도록 범위를 축소시켰다. 이에 20대 총선 후 새롭게 구성될 국회는 비례대표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 마련,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및 강제조치 마련 등 선거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2016년 3월 24일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전국 150개 여성단체)

‘지역구 30% 여성공천’하겠다는 각 정당들의 약속들, 결국 유명무실해져

지난 25일,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다.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944명 중 남성이 844명, 여성이 100명으로 여성 출마후보자 비율은 10.6%이다. 이중 무소속을 제외한 정당공천의 경우, 남성이 717명, 여성이 90명으로 사실상 정당공천에 있어 여성의 비율은 11.2%이다. 각 정당별로 살펴볼 때, 새누리당은 6.5%, 더불어민주당 10.6%, 국민의당 5.2%, 정의당 13.2%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의 공천 실사가 시행을 거듭하는 동안 지역구에 여성후보자를 30%로 공천토록하겠다는 당헌·당규에 기반한 약속들은 결국 유명무실해졌다.

여성후보자들, 출마해도 경선의 불공정성은 끊이지 않아

실제로 지역구 출마를 결의한 많은 여성 후보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조직적 기반의 열악한 현실 등 남성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선을 치르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탈락’하게 되었다. 또한 새누리당의 여성우선추천지역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지역을 통해 여성 후보자들이 공천된 경우에도 당선 가능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되거나 겨우 싸움의 도구로 활용된 것이 현실이다.

비례대표 순번 역시 역시 불공정하기는 마찬가지

비례대표 후보자 상할 역시 별만 다르지 않다. 전체 후보자 158명 중 남성 83명, 여성 75명으로 여성 비례후보자는 간신히 47%를 넘겼으며 정당별로 살펴볼 때, 새누리당은 59%, 더불어민주당은 56%,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50%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 비율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한숨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당선 안정권 이외의 순번에 여성을 다수 배치하며 ‘명목상의 비율’에 불과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태 홍수에 여성을 추천하게끔 되어있는 남녀고호순번제를 위반해 당선 안정 권으로 여기는 15번에 남성을 배치하는 등 비례대표에 여성을 60%까지 공천하겠다는 당헌을 어기는 ‘꼼수’를 보였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장에 대한 책임, 정당들에 엄중히 물을 것

여성공동행동은 각 정당들의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 계속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여성 후보 공천에 있어 적극적인 실천과 변화를 요구해왔다. 여성의 정치진입은 한 명의 여성이 선거관에 뛰

어드는 것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정치진입에 대한 제도적 보장에 있어 각 정당들의 책임의식과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제20대 총선 후보자가 확정된 지금, 여성공동행동은 그간 성명서를 통해 요구한 사항들 중 어느 것도 수용되지 않은 것에 규탄한다. 20대 총선 이후, 빨리 예측되는 여성의 정치참여 퇴행에 대한 책임을 각 정당들에 엄중히 물을 것이다.

2016년 3월 29일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한국 152개 여성단체)

[전국 88개 시민사회단체, 사드 배치 예정지역 20대 총선 후보자 입장 공개질의]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후보자 답변, 지역 유권자에게 공개할 것

◀사드 배치에 대한 공개질의서▶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수신 XXX당 XXX후보(선거구)
발신 XX개 시민사회단체

지난 2월 7일 한미 정부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배치 협의를 공식 발표했고, 3월 4일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공동실무단은 부지 선정, 안전/환경/비용 문제, 협의 일정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배치 예정지로 XX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들이 거론되고 있으나, 어떤 과정을 거쳐 배치 지역을 결정할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X-밴드 레이다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전자파의 유해성 문제 등으로 사드 배치 예정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드 배치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유권자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상세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사드 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이 공개질의는 배치 예정지의 지역 단체들을 비롯한 전국의 평화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각 후보의 답변을 취합·공개하여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준비되었습니다. 각 후보의 답변 여부와 내용은 각 지역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4/4(일)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후보님은 XX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찬성/반대 중 선택)
2.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후보님은 사드가 배치될 경우 전자파의 유해성, 소음 피해, 토지 수용 가능성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문제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후보님은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선거 공보를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까?
5. 후보님은 사드 배치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오히려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지금 군 당국은 한미 공동실무단 악영향을 바깥쪽으로, 배치 결정 절차를 불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사드 배치로 직접 영향을 받게 될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후보님은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포함하여 답변하십시오.
8. 후보님은 향후 국회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입니까?

2016핵안보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담에 즈음한 공동선언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핵안보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며, 한반도 핵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향과 해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제재 및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양자, 다자회담을 개시하라!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은 94년 제네바합의 이후 수차례의 핵관련 합의들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한반도 정전상태의 지속과 심화,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 군사적 위협, 제재와 압박이 한반도 핵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6자회담이 진행되고 9.19공동성명이 이행되는 동안 적어도 북한 핵시설이 동결되는 구체적인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던 반면,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협상을 외면하고 대북 압박에 몰두한 지난 6년간 북한이 세차례의 핵실험을 하고 핵 보유고를 늘려간 것 또한 이를 실증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유지해 온 제재와 봉쇄, 핵우산과 재래식 무기의 증강 배치 등 대북압박 정책들이 한반도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군사적 긴장을 해결하는 데 결코 실효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인정해야 한다. 북한의 4차 핵시험 이후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였고, 오바마 정부 또한 초 고강도 제재를 단행하며 '지금은 대화를 거론할 시기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실패한 전략을 고집하면서 더 이상의 시간을 소진해서는 안된다. 지금이야말로 결코 제재가 아닌 대화를 거론할 시기이다.

제재와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북미, 남북, 6자회담 등 양자, 다자회담을 신속하게 재개하라!

2. 한미 전쟁연습과 북한 핵실험을 상호 중단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하라!

최근 미국의 핵전략무기들이 한반도로 전개되고 대북 핵선제공격을 공공연히 거론한 군사훈련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 역시 선제공격과 추가 핵실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반인도적 핵무기에 기초한 안보정책과 핵무기 현대화 및 핵능력 증강을 위한 모든 시도는 중단되어야 하며, 선제공격과 선제공격, 핵무기와 핵무기가 맞서는 사상 최악의 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한미 정부가 대북 선제공격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북한이 예고한 핵실험을 상호 중단하는 것은 적대정책 중단과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의 토대를 만드는 유의미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지난 92년 최초의 북미간 고위급 회담을 시작함에 앞서 미국과 한국이 덩스 피리트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북한이 IAEA 핵안전협정에 서명하였던 역사적 경험도 있다.

3.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동시 해결하는 결단을 촉구한다!

한반도 핵문제는 60년 이상 비정상적으로 이어져온 한반도 정권체제와 북미간 오랜 대결과 불신의 산물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적대관계의 청산, 평화체제 구축 등 상호 안보우려 해소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지난 2월 중국이 제안하고 러시아도 지지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 추진 방안에 대해 미국도 그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진정으로 한미일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나아가 '핵없는 세계'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9.19 공동성명 합의정신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관련국 간의 협상과 북-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한반도 비핵화 회담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핵문제와 군사적 갈등을 실질적 해결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4. 한반도 핵문제를 발미로 한 패권정책 중단하고 동아시아 평화협력 체제 구축에 앞장서라!

한반도 핵문제를 발미로 한 패권정책은 핵문제 해결을 지체시킬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군사적 갈등을 격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을 핑계 삼아 추진되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추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및 재우장 움직임, 사드 한국 배치 등 한미일 MD 구축과 군사동맹 강화 움직임은 역내의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다. 한미일 정부는 한반도 핵문제를 발미로 한 패권정책을 중단하고, 새로운 동아시아 평화협력체제 구축을 향한 본격적 협상과 노력을 선언해야 한다.

한반도 핵문제와 군사적 갈등의 해결은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동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데에서 사활적 과제이다. 쿠바와의 관계개신이나 미란과의 핵협상도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한반도 핵문제와 군사적 갈등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한미일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6년 3월 31일

재건자, 권오희 (한국민주주의연대 이사장), 장상연 (민족화해포럼장), 김병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상근 (전 민주노동당 수석부위원장), 김성태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박경호 (녹색연합 상임대표), 양단 (우리민중서포대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이윤배 (홍서단 이사장), 이창길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이창복 (6.15공동선언남측위원회 상임대표회장), 함세웅 (단종근기념사업회 이사장)

신인자, 강정식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 강경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의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장규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위원장), 장인길 (전진실천민족통일실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강미경 (제주통일청년의 사무국장), 장민호 (한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대표), 장병기 (민주수호공연안당대표의 대표), 김병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조직부장), 김성길 (제주통일실천의 운영위원), 강소영 (안산새사회연대 일:다 대표), 강수영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울산지부장), 강명진 (서귀포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은숙 (한국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목서인), 강은희 (서귀포시민연대 집행위원), 김은주 (민주수호계후연대 대표), 강인식 (대한불교영년회 울산경남지구회장), 강영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공동대표, 김성희 (울산여성의회 부회장), 강민희 (민주화노동 부대표), 강창권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 김재희 (인가협합심수추원의 운영위원장), 강재호 (원불교사회개혁연구소 공동대표), 김한관 (노총회합의나눔), 강혜련 (울산 여성이웃회 회장), 강호준 (한국고미회 공동대표),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김홍식 (한국교회자립역량지원센터장), 김복희, 김홍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홍보본부장), 고광현 (한국여성노동자회총연맹 부회장), 고경수 (한국목회자립역량화합회, 목사), 고경아 (제주주민연대 대표), 고광성 (서양문화한글서주조사협회 대표), 고남순 (울산청년연대 저주동일위원회), 고송우 (민주언론시민연맹 이사장), 고시형 (통각민족총합회 사무총장), 고윤서 (동학민족총합회 상임의장), 고은광순 (영화아카데미 회장), 고은성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총합일위원회), 고은호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 고진영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집행대표), 고성진 (서귀포시민연대 집행위원), 고희숙 (제주동일위원회 운영위원), 구준모 (사회선보연대), 구재희 (민주시민연대 운영위원), 구학연 (연신합강운동연합 피집), 권영삼 (민주평등 경기연약회 회장), 권영식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 고문), 권기택 (민주화노동 사무처장), 권기자 (통일평화상 대표), 권도경 (통각민족총합회 총보위원), 권두성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합동위원장), 권명숙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사무처장), 권병용 (한국기독교교양회 총회 평화총합 위원회, 목사), 권오길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장), 권오대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지역본부총합일위원회), 권오봉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고문), 권오영 (부동산가치연구소 대표), 권요철 (한국기독교교양회 총회 평화총합 위원회, 장로), 권요환 (우리사회연주소 이사장), 권요환 (인가협합심수추원의 명예회장), 권요현 (한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의장), 권윤민 (울산중구주민회 사무처장), 권재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협본부장), 권정숙 (자유언론실천재단 기획위원위원장), 권경호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로교육실지부장), 권준희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연맹 광명도건설노동조합지부장), 권태훈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장), 권철상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권혜민 (한국기독교교양회 총회 평화총합 위원회 기장 청년회 간사), 윤영희 (한국목회자립회지원회 회장, 목사), 김경은 (불교행화연대 공동대표), 김경자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경태 (한국목회자립회지원회의, 목사), 김경호 (강남청년교회 목사), 김광호 (민주연맹합계 경기도 공동위원장), 김광수 (한국기독교교양회 총회 평화총합 위원회, 장로), 김근섭 (한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 김귀식 (한국교회청년노동조합 연맹장), 김규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의 서울본부 상임공동대표), 김광욱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기연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총합일담당국장), 김기은 (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김기우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총합일담당국장), 김갑자 (인가협합심수추원회 운영위원), 김낙욱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인상기계지부장, 김남순 (한국청년연대 강동청년회 회장), 김남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제주본부 집행위원장), 김대연 (전국교원연대 집행위원), 김대중 (한국청년연대 참여하는대구청년회 대표), 김도영 (한국교회청년노동조합 광주지부 통일위원장), 김동근 (사회선보연대), 김동민 (통각민족총합회 공동대표), 김동원 (인가협합심수추원회 운영위원), 김동환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 집행위원장), 김동혁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총합일국장), 김동희 (한국교회청년노동조합 광주지부 국공립고교지회장), 김동훈 (한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병연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변본부 공동대표), 김병희 (강동지역가치연대 공동대표), 김운찬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총합일담당국장), 김미경 (한국여성노동자회총합일 협동조합 회장), 김미진 (민주언론실천연대 저재시장청년회장), 김민용 (서울교회하나 대표), 김민호 (울산중구주민회 대표), 김병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공동대표), 김병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고문), 김병용 (저주동일민주주의포럼이웃연대 공동대표), 김병삼 (전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김병호 (신광일민주협계업사업회 이사장), 김철은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국공립), 김병준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총합일담당부장), 김병태 (전국대학교 교수), 김병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의 학술본부 고문), 김성중 (전국청기념관 운영), 김갑자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측노조위원장), 김석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획실장), 김성경 (연세대학교 서울실업노동회 대표), 김성현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학비노조총합지부장), 김상태 (민주주의국민연맹), 김성진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회장), 김성남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청지역연합회 지역실), 김성란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육선전실장), 김성복 (공리회 평화총합연교회 회장), 김성복 (한국목회자립역량화합회의, 연신행교회로 담임목사), 김성숙 (한국청년교역자노동회 창간연합회 총무), 김성현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총합일담당장), 김성진 (경기도 인신사당 위원장), 김성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의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성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운영위원), 김성희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의 전북본부 상임집행위원), 김성희 (울산선보연대 사무처장), 김요정 (울산민예총 이사), 김수남 (주

라인한국산업개발실수칙회의 공동의장), 김순애 (한국여성농업인직총연합 회장), 김순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본부장), 김승
 범 (민주노동당중앙당 사무국장), 김승훈 (한국교회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사무처장), 김신아 (전남대민주운동회 회장), 김희
 (한국청년연대 경기장년연대 회장), 김양희 (광주진남청년연대 사무처장), 김영국 (한국노동 인턴지역본부 의장), 김영민
 (0.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상임대표), 김영삼 (사우러민족 이사), 김영선 (대한불교청년회 연수위원장), 김영희
 (제주인권연대 고문), 김영희 (서귀포시민연대 사무국장), 김영호 (한국농민직총연합 회장), 김옥희 (한국여성농업인직총연합
 조직교육위원장), 김옥희 (한국교회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교사), 김용기 (제주인권연대 운영위원), 김용석 (한국민주노동조합총
 연맹 철도본부총괄위원), 김용민 (민주노동당유리천연호사업팀 총괄위원), 김용우 (0.15공동선언위원회 대전본부 상임대표), 김용
 호 (제주주민주사연대 조직국장), 김옥중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옥중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방정렬운동
 본부총괄위원), 김윤연 (0.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공동대표), 김윤영 (서울에서는세상을위한시민회의 상임대
 표), 김윤진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총괄위원장), 김유실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곡노조대표위원장), 김용수
 (민간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사장), 김은경 (0.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국본부 상임대표), 김은영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모교의교노조총무부부장), 김은진 (한국직보연대 집행위원장), 김인숙 (민주여성농업인직총연합회 사무처장), 김일환
 (한국겨레하나 공동대표), 김재동 (대한민국여성노동자연맹회 회장), 김재영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장), 김
 재선 (민기협실수추진회 운영위원), 김재현 (성공의 선부), 김재철 (한민족회자총회 회장, 선부), 김재욱 (한국교회노동
 조합 광주지부 정책실장), 김재욱 (0.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공동대표), 김재하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
 지역본부장), 김재향 (0.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생활복지부 상임대표), 김정길 (0.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고
 문), 김정숙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운영위원), 김정영 (한국여성농업인직총연합 서울총성), 김정은 (한국여성농업인직총연
 합 제주총성 회장), 김정연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총상본부장), 김정은 (울산연세중 사무처장), 김홍수 (민주
 사회를위한연호사업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김홍태 (사법개혁의 공동의장), 김홍태 (총연합회 서울사무처위원장), 김홍우 (민주
 의결 이사), 김홍수 (한국기독교교향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목사), 김홍연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홍영
 (서울 평화회총연합회-서울을 대표), 김홍일 (09유년론실연연대 이사장), 김홍준 (민주노동 대표), 김주복 (0.15공동선언
 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정책위원장), 김주연 (한국기치협회 고문), 김주영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필노위원회), 김주
 영 (문헌여성회 회장), 김준기 (사법개혁회 조직위원장),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라본부장), 김준애 (민주노동연대민주노
 동총지부 사무처장), 김준희 (17)살아연대 상임대표), 김지연 (한국대학생노동조합총연합회 운영위원장), 김지영 (민노총연대민주노
 동연의 자문위원), 김지현 (민주노동연대연구 총괄지부 사무장), 김지현 (울산연세중 총장), 김지희 (평화로운미래여성회 총무
 국장), 김진규 (의당연대노조사업팀지부 지부장), 김진희 (민주노동 정책지원팀), 김진희 (0.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
 원본부 남북교류협력위원장), 김차경 (경북노조정책 대표), 김찬수 (한국기독교교향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목사), 김성근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장), 김성환 (한국농민직총연합제주도연맹 부위원장), 김철만 (한국민적자치협회 회
 장), 김태선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청주교계연맹부위원장), 김태성 (한남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김태영 (한국민주
 노동조합총연맹 경북지역본부장), 김태진 (민주노동자연대민주노동조합위원회의 위원장), 김태원 (한산안계중 사무처장), 김태은 (대
 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김현업 (한국기독교교향회 총회 평화통일 위원회, 목사), 김현영 (09)안동연맹사무처장이며 사
 무국장), 김현은 (사우러민족 명칭), 김하영 (민주주의국민행동 운영위원장), 김학규 (통일적사문화연구소 대표), 김현업 (21
 세기한국대학생연맹 회장), 김현실 (0.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 상임대표), 김현수 (간남농업실 상부), 김현진 (민
 주사회를위한연호사업팀 미군문제위원회), 김학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직행위실장), 김현동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총괄위원장), 김현미 (세월호강령대행위), 김현서 (한국직보연대 집행위원장 부위원장), 김현주 (한국직보연대
 집행위원의 대외구대담 부위원장), 김현학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조직국장), 김현호 , 김형기 (안녕는 제주도
 연합 사무처장), 김복순 (민기협실수추진회 부위원장), 김효 (0.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정책본부 상임부대표), 김효현 (민
 기협실수추진회 자문위원), 김환근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호노조위원장), 김효희 (0.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의 제주
 본부 사무국장), 김후식 (0.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의 광주본부 공동대표), 김희삼 (한국농민직총연합 충북도연맹 사무국장),
 김희선 (여성특별운동기념사업회회장), 김희철 (제주농민정당회 회장), 김희현 (한국기독교교향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목사), 나경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직본부장), 나선숙 (한국청년연대 광주청년청년연대 대표), 나경섭 (한국기독교교향회
 총회 평화통일 위원회, 목사), 남광현 (0.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공동대표), 남기연 (한국교회정치평화위원회

진복, 옥사), 남기명 (한국기독교실업협의회(jayck) 총무), 남재명 (한국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옥사), 남주성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남지현 (울산연예총 이사), 노경신 (한국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옥사), 노기호 (한국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경북, 진부), 노영우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총무본부 상임대표), 노유호, 노영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노승기 (한국전주노동조합총연맹 교수노조위원장), 도상복 (민가협합성수추진회 운영위원), 도연호 (한국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옥사), 유경환 (민가협합성수추진회 부회장), 유근산 (민자총 대경회의 회장), 유동원 (한국실업단체 중앙협의회 회장), 유봉식 (한국진보연대 조직위원장), 유승근 (통일민족통일회 조직위원장), 유재은 (민가협합성수추진회 사무국장), 유종민 (민족자주화해통일중앙위원회), 대원환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의 경북본부 고문), 김산은속 (평화여아노회), 김연우 (구공실현연대 대표), 미하용 (한국전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공용연맹총괄위원장), 명승인 (한국기독교교장교회 총회 평화통일 위원회, 옥사), 명철범 (순복의심정년의 회장), 오정용 (민가협합성수추진회 감사), 옥정환 (한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회장), 윤경식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윤국주 (민주주의국민행동 조직위원장), 윤대영, 윤순곤 (민주청년실업회협의 공동대표), 윤정희 (민통야자유연대수요위원회 위원장), 윤종민 (세로하나 집행위원), 윤현숙 (경남 여성연대 대표), 윤승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 운영위원, 풍동주 (평화화합통일하는사람들 공동대표), 이노현, 이영기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공동대표, 박갈棠 (한국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옥사), 박규문 (대전기독교총연합회총 공동대표회장), 박근성 (민주자유화해통일서울회 회장), 박기수 (한국농민회총연맹 총무도연맹 회장), 박길수 (통일민족통일회 기획위원장), 박남부 (경남통일농민행복회 회장), 박대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부위원장), 박덕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상임공동대표, 박덕정 (한국여성노련회총연합회) 석망주권위원장, 박민 (한국전주노동조합총연맹 총무실장), 박민서 (평화여아노회), 박민수 (청년하다 경기지역 대표), 박병대 (평화화국군인회 1), 박병우 (한국전주노동조합총연맹 대협실장), 박성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김해시지부 상임대표, 박성종 (한국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옥사), 박성규 (한국기독교교장교회 총회 평화통일 위원회, 옥사), 박성용 (사모우리민족 이사), 박성용 (한국전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위원장), 박성희 (평화화합통일하는사람들 공동대표), 박석부 (신산연구소 이사장), 박석진 (한국전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 박석은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석은 (민주연맹합 대구시당 공동위원장), 박성규 (한국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옥사), 박성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인산본부 상임공동대표, 박성진 (경원시화교동승아시아연회 대표), 박승희 (전주교장연구원연구연합 시도위원장), 박승규 (한국기독교교장교회 총회 평화통일 위원회, 옥사), 박승열 (한국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한우교회 담임목사), 박승철 (대한불교청년회 부회장), 박신영 (한국전주교역자수도회 장상연맹회 민족화해본부 총무), 박영규 (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박옥수 (부산여성회 대표), 박희은 (제주추진자이연대 집행위원장), 박원주 (연안민연합 회장), 박유기 (한국전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전대처자부팀), 박은경, 박은화 (전여농 재주도연맹), 박인숙 (세로하나 집행위원), 박진곤 (통일민족통일회 공동회장), 박재은 (전대한연호사협회 회장), 박재영 (한국기독교교장교회 총회 교회화사회위원장, 옥사), 박정범 (한국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옥사), 박종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의) 경북본부 집행위원장, 박준도 (시화진보연대), 박준희 (한국전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총괄담당국장), 박종기 (민주연세사회복지지부의가평단체연대회의) 명예이사, 박진희 (민주서회총연합회사무실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박지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박찬을 (대한불교청년회 민족화합장조위원장), 박정균 (경남가톨릭농민회 대표), 박희원 (전주교정의평화위원회의 대표), 박치용 (경의당 강동구위원회 위원장), 박태우 (한국대학생노동조합의 회장), 박태진 (6.15-10.4국민연대 상임대표), 박태일 (한국전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노조노조위원장, 박영덕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공동대표, 박현우 (제주도일성년회) 운영위원, 박형규 (시화민주당당총합비위원회) 서울사무실위원장, 박현태 (한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박희정 (한국전주노동조합총연맹 교육위원장), 박희태 (가톨릭농민회 부회장), 민정수 (전북교총팀, 박학민 (사벌특별시) 공동회장), 방승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상임대표, 배동현 (대한불교청년회 지도위원), 배연용 (한국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옥사), 배운란 (6.15남측위원회의) 경북본부 상임대표, 배은심 (전)한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배종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고문, 배기말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백남태 (교역자평화연대 대표), 백덕근 (한국전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산업연맹위원장, 백세봉 (단군교 교육위원장), 백성용 (대한불교청년회) 중앙이사,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 백현용 (한국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나능과성집교교회 담임목사, 최희정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공동대표, 법안 (통교사회연구소 소장), 정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공동대표, 정병호 (한국전주노동조합총연맹) 선교교회위원장, 불태원 (한국전주노동조합총연맹) 해북구위원장, 무경미 (전여농 재주도연맹) 정책위원장, 부

장원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조직국장), 사공복 (울산시연연대 공동대표), 서경원 (표.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고문), 서영호 (인천연생평화통일추진연대 변호사위원장), 서영만 (통일외교 기행분과위원장), 서일웅 (한국독립지정어법학회회, 하가교회 총회목사), 서재환 (표.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상임대표), 서진상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성연대), 송상근(부장), 서철호 (표.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공동대표), 서만대 (표.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고문), 서병식 (표.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상임공동대표), 심태훈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평노조출산협의회위원장), 심너현 (한국교회자정위원회위원장, 목사), 형태경 (인천일반연대총연맹친규범위원회 위원장) & 생창기 (울산시연연대 공동대표), 정영태 (강릉시연연대), 조복실 (한국교회자정어법학회회 회장, 목사), 손동태 (표.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철학본부 집행위원장), 손이희 (한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손영선 (사회적평화 이사회), 손영하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 부본부장), 손순홍 (표.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담양군기부 상임대표), 송경용 (민가합당성수후원회 사무원), 송금의 (원주시연연대 운영위원), 송기남 (서귀포시연연대 집행위원), 송우유 (사회적평화 추곡공동위원장), 송우부 (민주생물 경기탈핵회의 상임공동대표), 송우영 (농학민족총연합회 공동의장), 송순호 (인천사회적정의정당연구소, 진경일 (사건), 신태호 (표.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공동대표), 신승일 (원주시연연대 운영위원), 신석규 (광남기여회 하나 상임대표), 신성재 (표.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공동대표), 신병호 (연평연방군 경기도당 공동위원장), 신옥희 (경기자주여성연대 대표), 신일호 (총학생민주노동연대 대표), 신윤관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안지역본부총연합회장), 신홍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령실업), 신장현 (민주노동연대 대표), 신현산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성시유연맹위원장), 심상우 (한국교회자정어법학회회, 목사), 심성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립본부장), 심태환 (총알치기이사), 안규실 (한국교회연노동조합 광주본부 교사), 안기현 (한국청년연대 평화생명의 희망), 안길경애 (평화문화연구소의장 설립대표), 안병길 (민가합당성수후원회 회장), 안순호 (세월호강동대학회), 안순환 (민주노동 무대대표), 안영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표), 안재규 (표.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생본부 고문), 안정규 (한국교회자정어법학회회 사무이사), 안주희 (한국PD연합회 회장), 안주영 (한국기독교청년회협의회), 안시종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 안영아 (한국기독교청년회협의회), 안호근 (자주출발민주주의포럼이사), 안기우 (표.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령실업), 안영숙 (민주주의국민행동), 양덕창 (한국전국교총연합회 부장), 양동규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치위원장), 양미화 (성남평화연대 대표), 양승봉 (민주사회를위한환영조사도입 통일위원장), 양이병경 (한반도성탄제연합 정책실장), 양인석 (표.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공동대표), 양주영 (민주주의예우연대 집행위원), 양시호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장), 양정용 (제주노조연대시연연대 집행위원), 양종훈 (민주주의국민행동 전략위원장), 양희선 (제주노동자연의 운영위원), 양희철 (민가합당성수후원회 사무원), 영갑인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곡노조대표위원장), 영미경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국장), 영기용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모건교회노조총본부장), 영진섭 (기행목적논의회 부회장), 영성태 (노후회합유니온 회장), 영성진 (한국기독교청년회연합회 활동가) 오기현 (한국PD연합회 통일특위위원장), 오민규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조지역경기관악실업), 오성현 (제주연연연대 운영위원), 오성민 (서귀포시연연대 집행위원), 오윤은 (안남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오재수 (강릉시연연대 대표),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회장), 오효일 (표.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공동대표), 우득중 (서부지역노조실업연인 지역실), 우봉익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우철노조 울산본부장), 우희수 (부석사 주지스님), 유선희 (표.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상임공동대표), 유성일 (한국기독교교당교회 총회 교회회사위원회, 목사), 유영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위원장), 유영호 (민주화운동공제회 이사장), 유영호 (민가합당성수후원회 운영위원), 유연재 (한국대학생노동조합의 중앙집행위원), 유영일 (한국기독교청년회연합회 국성), 유재훈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장), 유정희 (표.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공동대표), 유주호 (경기연평연대 대표), 유지현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은의료노조위원장), 유현수 (표.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집행위원장), 유희종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지역본부장), 유현호 (신승주권학교가톨릭교회 설립대표), 유경선 (수원진보연대 대표), 윤기서 (표.15남측위원회 경기본부 상임대표), 윤기홍 (표.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인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윤기진 (민주연생평화통일추진연대 공동의장), 윤일수 (한국교회자정어법학회회), 영명교회 담임목사), 윤병진 (한국교회자정어법학회회, 예동교회 담임목사), 윤소하 (표.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공동대표), 윤승경 (한국기독교교회 총회 교회회사위원회, 장로), 윤승길 (민학운동단체연합 사무총장), 윤승태 (한국진보연대 기획위원장), 윤은숙 (울산연세총 이사), 윤민준 (한국기독교교회 총회 교회회사위원회, 목사), 윤용상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략지역본부장), 윤우형 (표.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충북본부 집행위원장), 윤준하 (평생운동연합 고문), 윤

원섭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 부문부장), 윤관학 (민주진생협회총무추진관대 명예의장), 송희숙 (한국청년단체
 상임대표), 이경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인천본부 상임대표), 이진 (민주민생대학총무추진관대 교문), 이경일 (대한
 불교청년회 정책기획실장), 이경희 (하나빌딩위원회총무은살민 이사장), 이광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의 강원본부 공동대
 표), 이광익 (한국목회자정교회협의회 회장, 목사), 이광철 (민주사회를위한연호사모임 총무위원장), 이광호 (대한불교청년
 회 서울지구회장), 이규봉 (대한시민연대연대의 공동대표), 이근미 (서울시연대총문), 이근진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
 천지역본부총무국장), 이기영 1 (연권목회자총지회, 목사), 이기주배 (병화출판드는여성회 활동가), 이달호 (연속운동재구조 수
 원서부 지부장), 이태동 (교련대판대구 대표), 이태로 (한양공회회 회장), 이태산 (본국연합회 회장), 이태식 (한국민주노동조
 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장), 이홍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공동대표), 이인열 (전)국가발전위원회 위원장,
 이병욱 (삼우연대 대표), 이비열 (우리저녁하나되기운동본부 공동대표), 이민재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사무국장), 이병우 (민주시민연대 운영위원장), 이병장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 운영위원), 이상훈 (제주주인
 자자연대 집행위원장), 이상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협실장), 이상준 (자유총합민주주의교과연대 공동대표), 이상진 (한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이상호 (내대협총합저짜나 상임대표), 이상호 (8사)우리저녁하나되기대연총합운동본부 상임대
 표, 이상훈 (자유총합민주주의교과연대 공동대표), 이상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의 강원본부 집행위원장), 이연자
 (한국청년연대) 재산을 바꾸는 부산청년운동회 파도 대표), 이영규 (울산총무지구연대 공동대표), 이상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남본부 공동대표), 이상우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경제연맹실장), 이상희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부위원장), 이세우 (한국목회자정교회협의회 회장, 목사), 이수호 (전)자유대안 이사장), 이순희, 이순희 (전
 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이승민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총무위원장), 이승철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부총장), 이승환 (시정평화포럼 공동대표), 이광수 (연노동자연권회의 경기지부 지부장), 이연희 (우리저녁하나되기문
 동본부 사무총장), 이명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운영위원), 이명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의 대전본부 대협위원장),
 이명주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우현 (통학인독자총일회 공동대표), 이우재 (3사)대한연총합위원회의 회장), 이우미
 (사회직선보안대), 이윤진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금융연맹위원장), 이윤상 (한국목회자정교회협의회 회장, 목사), 이윤석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의 총무본부 공동대표), 이은미 (우리저녁하나되기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은영 (한국청년연대
 대전청년회 대표), 이이와 (역사사랑), 이창우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대협위원장), 이재광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재홍 (내대협생기남사협의회회장), 이재봉 (8사)우리저녁 사무처장), 이재호 (전)도교청년회 생명평화회
 원외 부위원장), 이재학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북지역본부총합담당국장), 이재학 (민주사회를위한연호사모임 사업위원
 장), 이재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이재현 (6.15남측위원회 부산본부 상임대표), 이재태 (민주협맹민주추진회 운영
 위원), 이정희 (경남민주평등 위원장), 이정희 (한국전주교역자수도회 장상연회장 사무국장), 이윤호 (한국전보연대 연대사업
 위원장), 이종민 (충무항로교회 통일성교부 위원장), 이종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의 경기본부 상임대표), 이종훈 (교수
 노동 대협지부장), 이종호 (내대협연연대 대표), 이주영 (민주시민연대 운영위원장), 이주진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이준서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안대통신지부부장), 이준학 (사회직선보안대), 이준희 (한국민타래기자협회 수석부회장), 이진상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집행본부 공동대표), 대진익 (한국목회자정교회협의회 회장, 목사), 이진호 (병화출판사)인생동 대
 표), 이진구 (독학인독자총일회 공동대표), 이만재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연맹위원장), 이광규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 사무처장), 이재근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이재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의 학술본부 기획위
 원장), 이재은 (한국대학생총합연합회 전회장), 이현동 (병화출판연회의) 사무국장), 이현우 (한국목회자정교회협의회 회장, 목사), 이현
 (연권학연계총합사업) 상임대표), 이은선 (한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정책위원장), 이재호 (집어연대 집행위원장), 이
 대한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총합위원장), 이관달 (백두산근로회 대표), 이라진 (울산이영희 부회장), 이재동
 (민주목사), 이형철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부위원장), 이현진 (신선여성노동자회 회장), 이현호 (강동시민연
 대), 이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의 인천본부 상임집행위원장), 이효은 (한국대학민주노동위원회) 상임대표), 이혜수
 (한국여성연대 정책위원장), 이화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대표), 이효신 (한국농민회총연맹 부회장), 이훈상 (한국기독교교로
 회 총회 협회총무 위원회, 목사), 이희집 (민주시민연대 운영위원장), 이희자 (한국근로회), 이영경 (김주열총합사무소사업) 공동
 대표), 임기진 (전)민주학생연기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임기환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부위원장), 임영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전 상임대표회장), 임윤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의 제주본부 상임대표), 임

이숙 (민주회복추진연대회의대표), 임성호 (K.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울산본부 상임대표), 임성훈 (대구경북추진연대 준비위원회), 임수필 (울산노동자연대본부 공동대표), 임순광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직노동조직위원회), 임순철 (한국교회 정의평화위원회), 옥사, 임철산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국회국립), 임은지 (수원 일하는여성회 대표), 임태경 (전남지역성운사 부사장), 임태혁 (민주주의국민행동), 임영순 (사회정의연대), 임영선 (민주노동자연대노조 집행), 임영선 (동학익동일회 공동대표), 임윤선 (한국기독교교로회 총회 교회외사회위원회), 옥사, 장명석 (인가법정심수후원회 집행위원), 장남수 (한국민족민주주의총연합회 회장), 장병진 (한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회장), 장병기 (한국교회정의평화위원회), 옥사, 장봉수 (대구추진지역연대 집행위원), 장세라 (광주여성회 대표), 장순남 (전국예술인총연합회 부이사장), 장순환 (K.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공동대표), 장연희 (민주사회를위한연호사모임 사무국장), 장원호 (울산노동자거리하나 공동대표), 장원현 (전주주요교수협의회 회장), 장현원 (K.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공동대표), 장혜연 (한국대학총학생회협의회 회장), 권경숙 (수원여성회 상임대표), 전기호 (사월혁명회 감사), 장병성 (한국기독교교로회 총회 평화통일위원회), 옥사, 현봉순 - 현순일 (울산인애총 부이사장), 현순영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연립노조위원회), 현원일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 현홍순 (민주노조법외구원한국사대안 대표신부), 현순호 (K.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정책본부 상임대표), 현지훈 (다문화생활지원연대 집행위원), 정갑자 (방어연대 공동대표), 정경호 (K.15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대표), 정근교 (한국교회정의평화위원회 상임이사장), 정대형 (민주주의국민행동 정책위원회), 정동주 (사월혁명회 상임이사장), 정동자 (한국어성인연합회 공동대표),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정병호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연립노조위원장), 정복술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총괄위원장), 정봉진 (울산인애총 부이사장), 정부중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총괄위원장), 정상식 (한국기독교교로회 총회 평화통일 위원회, 옥사), 정석주 (사회주의민족이사장), 정성호 (울산노동자거리하나 공동대표), 정성용 (한국교회연대총합 광주지부 지부장), 정성희 (새로하나 집행위원), 정숙영 - 정은주 (민주화실천가족총연합회 운영위원), 정여애 (세종노조총대역위), 정영섭 (사회복지연대), 정영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본부장), 정영필 (K.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공동대표), 정원국 (한국어성인총연합회 정책위원회 회장), 정옥식 (영하태극회 대표), 정희연 (노동취약계층을 수호부위원장), 정인성 (원불교 문화사회위원회), 정일용 (K.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의 언론본부 상임공동대표), 정재두 (한국교회정의평화위원회, 옥사), 정재훈 (K.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진주시지부 공동대표),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정종훈 (K.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의 수원본부 상임대표), 정지상 (문화사랑 대표), 정진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혁신위원회 소장), 정태호 (서울민주경찰 대표), 정태구 (민주주의국민행동 정책위원회), 정현진 (울산인애총 부이사장), 정현찬 (가톨릭노동회 회장), 정현택 (K.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공동대표), 정혜정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정해남 (사월혁명회 여성위원장), 정후재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 부본부장), 정희성 (한국기교회 이사장), 제갈현숙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위원장), 제영애 (한국어성인회총연합회 경북연맹 회장), 조기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직부장), 조대근 (K.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의 언론본부 집행위원), 조석희 (한국민족연맹 회장), 조병태 (인가법정심수후원회 감사), 조민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조병호 (한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조성규 (한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회장), 조성수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성래 (한국연립노동조합 사무처장), 조성우 (우리가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조성영 (울산노동자연대본부 공동대표), 조성훈 (한국기독교성서번역회KCCB), 조순석 (민주노조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이사장), 조순환 (청주시시민연대교회), 조영진 (K.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 명예위원장), 조영진 (민주사회를위한연호사모임 사무총장), 조원호 (사총총합리교 대표), 조창익 (K.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공동대표), 조현진 (K.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의 서울본부 대표), 조희관 (사월혁명회 이사), 주현철 (K.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교육위원장), 주영재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륙노조위원장), 주재준 (한국민족연대 정책위원회), 자랑선 (동학익동일회 공동대표), 지경태 (김동학당나눔센터 대표), 진필용 (용인노동운동 대표), 차민숙 (한국민주교역자수호회 상임연맹회 회장), 채희준(민주사회를위한연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천기봉 (대구지역민족연대 집행대표), 천영기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연립노조총괄담당국장), 천희 (실천불교전국승거회 상설교문), 최갑섭 (K.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상임대표), 최건희 (한국기독교성서번역회KCCB), 최갑선 (강릉시민연맹), 최갑식 (경남민족연우회 회장), 최두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최민현 (사회주의민족 이사), 최병환 (민주주의국민행동 사무처장), 최봉희 (K.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의 전남본부 공동대표), 최사복 (평화태양교인회 상설공동대표), 최상은 (한국농민회총연맹 부이사장), 최선미

1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헌원본부 사무국장) 최성희 <천도교성년회 사무국장, 최재미 <한국기독교성년협의회(Keyck), 최연 <민주주의국민행동 기획위원회), 최영민 <대한영화여성회 공동대표), 최용규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수석본부부장), 최용익 <연초스비자수선행동 공동대표), 최은아 <1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사무처장), 최은성 <광주전남청년연대 푸른청년회), 최연석 <한국노총 헌원본부 통일국장), 최연철 <한국천주교예사수도회 중앙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장), 최재봉 <서울정보연대 공동대표), 최재문 <한국노총조합총연맹 사무처장), 최재훈 <1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국본부 공동대표), 최정민 <전교조 인천지부장), 최정순 <어퍼대인주총총회 회장), 최종진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직무대행), 최진미 <한국여성단체 집행위원회), 최진호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통일담당국장), 최성준 <경동민주행동 공동대표), 최찬애 <사실적행위 공동대표), 최태민 <한국기독교성년협의회(Keyck), 최영진 <한국농민화총연맹 조직교육위원장), 최영욱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외사회위원장, 목사), 최영숙 <새로하나 집행위원), 최영숙 <광명연대교회 운영위원장), 최은기 <대한불교청년회 수석부회장), 최희대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통일담당국장), 추미숙 <연여능 제주도연합 부회장), 악우권 <민기협합실수추원회 차은위원), 하성훈 <한국기독교성년협의회(Keyck), 하연오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 하일연 <사실적행위 이사), 하주희 <민주사회총회헌원회시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준태 <울산진보연대 집행위원장), 하철경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한기갑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 위원회, 목사), 한길원 <한국노총조합총연맹 방송원부위원장), 한남호 <한국목회자성명회협의회 전북, 목사), 안도숙 <민총연합당 경기도당 공동위원장), 한미현 <1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안전본부 운영위원), 한상균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 위원회, 목사), 한석운 <한국목회자성명회협의회, 목사), 안석호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회연대위원장), 한성 <서울민간연대 공동대표), 한영선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통일위원장), 한용순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건의료노조통일위원장), 한유미 <대구노동여성 대표), 한원승 <한국목회자성명회협의회, 목사), 한한목 <사실적행위 사무처장), 한충욱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하석 <울산물류주요인연대 공동대표), 허연우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조직국장), 원상훈 <국민TV 이사장), 원순호 <한국목회자성명회협의회, 목사), 원우연 <한국여성연대), 원어삼 <전미디어오는 대표이사,사장), 원지 <1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상임대표), 원진희 <연여능 제주도연합), 원호성 <한국농민화총연맹 제주도연맹 회장), 홍근표 <민주노총행정화통일추진연대 고문), 홍민 <1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고문), 홍성우 <민주노총 부 대표), 홍성우 <서귀포시민연대 상임대표), 홍성현 <민권목회자동지회, 목사), 홍수표 <통각민족총회와 공동위원장), 홍연아 <민주노총 양산시진오연 대표), 홍성희 <서귀포시민연대 집행위원), 홍희덕 <새로하나 대표), 황민우 <1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국본부 상임대표회장), 황성환 <대한불교청년회 경북지구회장), 황순연 <울산노동자겨레하나 공동대표), 황철아 <1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집행위원장), 황태규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학성유연맹조직국장), 황태웅 <1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북본부 집행위원) / 총 817명(기타다수)

세계군축행동의 날,
언제까지 글로벌 호구 대한민국이어야 하나
복지비 지출 OECD 꼴찌, 자살률 OECD 1위 국가에서
군사비 지출 올해도 세계 10위, 무기 수입 2014년 세계 1위

1. 또다시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오늘(4/5)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15년 세계 군사비 현황을 발표했다.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이 나라는 복지비 지출에서 OECD 조사 대상국 28개국 중 꼴찌, 자살률은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매년 정부 재정의 약 15%가량을 군사비로 쓰고 있는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2.5배나 된다. 과잉 투자 논란에 성능 결함이 산적한 F-35 40대를 도입하는 데는 7조 원을 아낌없이 쓰면서, 누리과정 예산 4조 원에는 전전공공하는 정부, 이것이 바로 '헬조선'의 현주소다.

2. 한국의 무기 수입액은 세계 10위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2014년에는 무려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5년 12월에 발표된 미 의회조사국(CRS) 면제 무기 거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78억 달러의 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해 당당히 1위에 올랐다. 그중 70억 달러는 미국 무기 수입이었다. 그래서 무기 판매 세계 1위 기업인 록히드 마틴에게 한국은 최고의 고객이다. 아시아의 이 작은 국가는 성능도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못지도 파지도 않고 덩석업적 구매하기 때문이다. 차기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이 거부되고도 말이다. 그리고 곧 한국에 배치될지 모르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덕분에 록히드 마틴은 또다시 웃는다.

3. 이 많은 군사비가 제대로 사용되고는 있는가? 방위력 개선비로 연 11조 원가량씩 지출하는 국가에서 2014년 출범한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이 수사한 비리사업 규모만 약 1조 원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육해공군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남용비리 등 각종 유형의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14년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방산부품 매출액은 4조 6,440억 원에서 9조 3,429억 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고 한다. 이게 건강한 수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4. 군사비가 많다고 해서 63만 군인들의 생활은 안녕한가? 국방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대부분 장교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 병력의 70%를 차지하는 사병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 중 약 9%인 반면, 병력의 11% 수준인 장교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 중 약 42%를 차지한다. 징집된 사병들은 201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따지면 1/7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 이것이 여전히 당연하고 온당한 처우인가?

5. 이름에서 항상 나오는 '북한의 위협이 심각한데 군사비를 줄이면 어떻게 하나'는 질문에도 답할 수 있다.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월등히 앞선다는 사실은 이미 정부도 인정한 바 있다. 남한은 북한의 총 GDP 규모에 달하는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것은 주한미군의 군사비는 제외한 수치다. 북한이 핵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도저히 군사비 경쟁이 안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뢰이지,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닌 것이다.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남한에서도 다수의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또 다른 막대한을 낭을 뿐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각국이 벌이는 군비 경쟁과 군사력 과시를 멈추지 않고는 대화를 시작할 수 없으며 평화도 실현할 수밖에 없다.

6. '만들어진 모든 총과 진수된 모든 전함과 발사된 모든 로켓은, 굴주려도 먹지 못하고 할벗어도 믿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것'이라는 오래된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된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올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각국의 사람들에게 연초를 제공하기 위한 인도주의 자금으로 '201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전 세계가 군사비로만 무려 '1.8조 달러'를 써버린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 군사비의 1%만이라도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

7. 더 많은 군사비는 평화와 안전이 아니라 주변국의 더 많은 군사비, 그리고 무기회사의 수익으로 귀결될 뿐이다. 이제는 담안지를 바꾸고 우선순위를 다시 대길 시간이다. 변화의 가능성은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우리의 삶에' 사용하라고 외치는 시민들,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에 있다. 20대 국회는 세금을 군사비에 쏟아 붓는 대신, 요람에서 무덤까지 위태롭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을 회복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2016년 4월 5일, 제6회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작금의 '헬조선'을 탈출할 열쇠는 바로 이 발상의 전환에 있다고 제안한다.

2016.04.05.

2016 세계군축행동의 날 준비위원회

남북평화재단, 시민평화포럼, 열간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평화교육프로젝트 오모, 평화도서관 나무, 평화바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드 배치 예정지, 국회의원 후보들은 어떤 입장일까?

새누리당 후보자 1명만 응답.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 아나
경북 칠곡 여·야 후보 모두 반대 표명. 군산·평택 대다수 반대
한반도 평화 위협, 한·중관계 악화, 지역주민 피해 등 문제점에 공감
시민단체, 반대표명 후보자 의정활동 감시 및 연대활동 지속할 것

1. 오늘(4/8)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전국 88개 시민사회단체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예정지로 알려진 지역(평택, 대구, 칠곡, 군산, 부산, 천안)에 출마한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정리,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개질문은 3/30(수) 각 후보에게 전달되었고, 4/8(금) 현재 지역구 20곳의 후보자 66명 중 21명이 답변했다. 모두 지역구 내 사드 배치 반대의 입장을 보내왔다.

2. 새누리당 소속 후보 19명 중 답변한 사람은 이관영(경북 칠곡군) 후보뿐이었다. 나머지 18명은 답변하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를 주장해왔던 새누리당 원유철 후보(경기 평택)와 새누리당 원내대표 재직 당시 "우리 돈으로라도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던 무소속 유승민 후보(대구 동구)는 응답하지 않았다.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알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15명 중 7명, 국민의당은 6명 중 2명, 정의당은 5명 중 3명만이 답변했다. 국면을 대표해 정부의 정책을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 후보로서 주요 현안인 사드 배치와 관련해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함에도,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이를 회피한 것은 책임 있는 태도라 보기 어렵다.

3. 지역구별 후보자 수는 다르지만, 예정지 중에서도 특히 유력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경북 칠곡(100%), 전북 군산(80%), 경기 평택(62.5%) 순으로 응답 화신율이 높았다. 반면 대구는 38명 중 6명(16%), 부산 기장/북구강서구는 9명 중 3명(33%), 천안시흥은 4명 중 1명(25%)만이 답변해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다.

4. 후보들은 반대 이유로 '한반도 평화와 안보 위협', '한·중관계 악화', '북한의 저고도 미사일 또는 방사포에 실효성 없음', '지역경제 침체',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 주민피해 우려' 등을 주로 꼽았다. 또한 사드 배치 결정 절차의 불투명성에 대해 대부분의 후보들은 "충분한 주민 설명과 의사를 묻는 과정, 투명한 정보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답변해 한·미 합동실무단 협약 내용을 비공개하는 등 현 정부의 추진 과정에 대해 대다수 후보가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방법으로는 우선적으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고 주민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다자간 협의체 구성, 주민투표 등의 방법도 제시하였다.

5. 전북 지역의 경우, 분석자료에는 배치 예정지로 거론되는 군산의 결과만 반영했으나 추가로 전주, 익산, 김제, 정읍 등 전북의 모든 선거구(10개)의 후보 47명에게 군산 지역의 사드 배치에 대한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47명 중 31명이 답변을 보내왔다. 새누리당은 전북 지역 후보 9명 중 역시 아무도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전북 지역 더불어민주당 10명, 정의당 3명, 민주연합당 2명, 민주당 1명은 모두 답변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10명 중 7명만이 답변했으며, 무소속 후보 12명 중에서는 8명이 답변했다. 질의에 답변한 31명 모두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6. 이번 공개질의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지난 2월부터 한미 당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화하고, 3월 4일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하는 등 사드 배치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7.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전국 88개 시민사회단체는 질의에 답한 21명의 후보들에게 감사의 뜻을, 답하지 않은 후보들에게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권자의 이해와 요구를 담은 이번 공개질의에 답하지 않은 것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히고 향후 의정활동에서 반대의 뜻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한 21명 후보들의 이후 활동에 대해 독려와 감시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한반도 어디에 사드를 배치하든 이로 인한 문제점은 유효하므로, 배치 예정지로 알려진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연대하여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6.04.08.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교회, 기지평학네트워크(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변화추진운동본부, 평화평화센터, 평화바람), 노동인권회관, 영기협양심수후원회, 민주민주협사회행자후모(기원단체연대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학생연화동일수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군), 변화재정전,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교과서, 서울진보연대, 예수살기, 우리민족민방재동일수권학회, 자주통일민주주의의교리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민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인대평화실천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속본부, 참여연대, 통일경찰, 통일외교,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로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명목] 미군 생화학무기반입·실험저지 정책시민행동

[진목] 6.15공동선언실천전북본부, 고백교회통일평화위원회, 군산미군기지유리당찾가시민모임, 군산미군기지피해담당소, 군산민생실천연대, 군산미행정차해대책추진협의회, 군산/전주/익산/김제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전북본부, 민주연방군산연대, 생명평화정의전복기독연연대, 아

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진농전북도연맹, 전북교육연대, 전북농객연합, 전북민권연대, 전북불교시민네트워크, 전북여성노동자연합,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북전보광장, 전북평화인권연대, 전북희망나비, 전주시민회, 제18 대대선무효소송인단전북본부, 참미사지군산시민연대, 전주교정미구원사태단전주교구, 투표소검토실현전북본부, 평화야랑, 한음평화

[대구] 615 대경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동대구지역본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부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제20대 총선결과에 대한 논평]

**제20대 국회 여성의원 17%에 그쳐,
다만 지역구 여성의원 수 37% 증가에서 성평등 국회의 희망을 본다.**

20대 국회 여성 국회의원 비율 30% 실현과 성평등 국회를 소망했던 여성 유권자들은 각 당의 공천 재량 속에서 결과한 여성 공천율의 부진으로 할당제가 도입된 이래 16대 5.9%에서 19대 15.7%로 꾸준히 증가해온 여성 의원 비율 증가세가 주춤할 것이라고 낙담했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전체 여성 의원 비율은 전체 지역구 253석 중 26명, 비례 47석 중 25명을 합한 51명으로, 비록 1.3%의 증가율이지만 17%의 장벽을 넘어섰다.

특히 지역구 여성의원은 19대 19명에서 20대 26명으로 37%의 증가율을 보였고,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은 10.3%로 두 자리 수를 기록했다.

지역구 여성 후보의 당선 경쟁력 증명, 성평등 국회의 가능성 보여줘

그동안 정당들은 여성후보는 지역구에서 경쟁력이 없다며 공천조차 하지 않았다. 20대 총선에서도 새누리당 16명(6.5%), 더불어민주당 25명(10.6%), 국민의당 9명(5.2%), 정의당 6명(11.7%)에 불과해 평균 9%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총선 결과는 새누리당에서는 지역구 공천을 받은 16명의 후보 중 6명(37.5%),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5명의 후보 중 17명(68%)이 당선되었다. 매우 높은 당선율이다.

이는 여성 후보의 당선 경쟁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며 그동안 여성후보에 대한 정당들의 그릇된 인식과 태도에 대해 유권자들이 결과로서 경종을 울린 것이다.

20대 국회, 성평등 국회를 향하여,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해야

우리 여성단체는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의원들과 유권자들의 선택에서 성평등 국회의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 다시 한 번 성평등 국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1. 각 정당은 공천과정에서 보여준 위법, 당원 위반에 대해 경각히 반성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를 개혁하라.
2. 여성의원들은 성평등 국회를 향한 유권자들의 열망을 기억하고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라.

2016년 4월 14일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전국 150개 여성단체)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해야 한다
위헌적인 해외파병 합법화 일상화 우려
19대 국회가 오점을 남긴 채 종료되지 않기를 바란다

1. 내일(4/27)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이하 '해외파병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사실상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해당 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2. 해외파병법안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제2조에서 다국적군 소속 활동,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재난구호 등 교류협력활동, 기타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활동 등 각종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기능을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며, 침략전쟁을 무인하는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군의 임무는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다. 이에 국내 다수의 헌법학자들 역시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3. 우선, 해당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국적군 파병의 대표적인 사례인 이라크 파병에 남은 참혹한 결과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이라크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침략적 성격의 군사 행위였지만, 정부는 '미국을 도와 테러행태를 근절'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파병을 강행했다.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침공과 점령으로 인해 이슬람국가(IS)라는 비극이 발생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파병에 기댄 한국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통해 시민들은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을 실패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무장공격을 당한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약 한국이 IS의 무장공격을 당한다면 그것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라크 전쟁에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3위 규모의 군대를 파병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대외정책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 없이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해외파병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 될 것임을 직감한다.

4. 이라크 파병에 대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다국적군 파병 사례도 문제가 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항해부대다. 항해부대는 지난 2009년부터 미 5함대가 이끄는 연합해군사령부에 속한 CTF-151의 일원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선박과 선원들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이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 일환으로 구성된 연합해군에 참여하는 것까지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더욱 주목할 점은 올해 CTF-151 사령관 임무를 최초로 일본 자위대

가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항해부대가 연합해군의 작전에 참여할 경우 현지 사령관의 전문통제를 받게 되므로 자위대의 통제와 지휘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자위대의 통제 하에 연합 작전을 펼친다는 것은 야예 정권의 재무장 행보를 뒷받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할 상황에 파병 부대를 통해 일본 재무장을 용인하고 군사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 교육훈련, 재난구호 등을 명분으로 한 비분쟁지역 파병 역시 심각한 문제다. 핵발전소 수출의 대가로 군대를 파병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0년 당시 헌법을 위반한 상업적 목적의 파병이라는 명분만을 받은 UAE 파병동의안은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통과되었다. 그 이후 UAE 특수전부대 교육훈련을 맡고 있는 아프부대 파병이 중동 지역 평화와 인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었지만, 국회는 매년 파병 연장에 동의해왔다. 실제로 최근 UAE는 군사력을 증강하며 예멘 내전을 포함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무장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예멘에 파견된 UAE 지상군 중 상당 부분이 특수전부대원이며, UAE는 '아랍의 봄'이 한창이던 2011년에도 바레인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 침묵한 채, 위헌적인 UAE 파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6. 2013년 발리민 파병과 같은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 역시 재고해야 한다. 기존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민간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와 협의 및 결정으로, 필요한 경우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에 긴급구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미와 별도로 해외파병법에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을 따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유엔과 국제적십자 등은 재난구호를 위한 군대 투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며 군대 파견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재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구호인력 파견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또한 해외파병법안에서 마지막으로 명시하고 있는 '기타 파병'은 어떤 상황을 정의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범주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7.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 행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이라크 파병이다. 이라크에는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라크와 9·11 테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영국의 토니 블러어 총리 역시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IS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참전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이라크 파병에 대해 객관적이고 상세한 평가보고서를 공개한 적도, 사과한 적도 없다. 과거 파병의 구체적인 성과와 현지에 미친 영향 혹은 부작용은 하루빨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다.

8. 해외파병이 자동으로 국제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파병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해당 법안은 제안 이유에 오늘날의 안보 개념과 안보 환경이 변화되었으며, 군사적 교류 및 교육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안보 개념은 오히려 국가 안보에서 인간 안보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국제평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군사활동보다는 외교적·평화적 활동과 갈등의 예방, 민간 차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9.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 분쟁 해결과 평화 정착, 재건 지원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국제 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외교 당국의 압력과 태도부터 명확히 정하고, 평화적 기여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해외파병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또 다른 이라크 파병, 또 다른 UAE 파병, 또 다른 알리핀 파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병사위에서 해외파병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적인 군대의 운명에 대한 법안은 그 어떤 법안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되어야만 한다. 19대 국회가 오징어를 남긴 채 종료되지 않기를 바란다. 끝.

2016.04.06

해외파병법안 반대 시민사회단체

ODA Watch,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계를 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자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전평화연대(준)', 법인권사회연구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참의요실현청년들의사회,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네트워크, 평화도서관 나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평화교육운동연, 한국회복적정의협회, 향연교회 (총 45개 단체)

[논평]

여성·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우려가 높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통합'을 반대한다.

여아가 원내 지도부 구성을 마친 후 본격적인 20대 국회 원구성 형상이 진행 중이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총 19개 위원회가 업무 연관성 등을 이유로 분할·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노동환경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분할하는 방안이 대두되면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운영위와 윤리위, 국방위와 정보위, 인행위와 여가위의 통합은 고려할만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논의되고 있는 위원회의 분할 근거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와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인행위)를 통합해야 할 근거는 도리어 빈약해진다. 만약 통합할 경우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게 되며, 여가위와 인행위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행정자치부는 업무의 연관성도 적다. 또한 기능이 비슷하거나 겹치는 상임위를 통합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지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회는 상임위를 늘리면서 '위원장 나눠먹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연관성 없는 위원회를 무조건 통합해서는 안된다.

여가위는 성별 권력관계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고,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곳으로 국가차원에서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여가위가 여성·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가위와 인행위의 통합을 반대한다. 보수정권 이후 여성가족부의 여성·성평등 정책이 후퇴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그리고 혐오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입법기관으로서 여성가족위원회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2016년 5월 13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교인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생명여성연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생애태운세태결을위한전국연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캔디정치연구소 여.세.연 불교육육위원회전국각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통일노는여성회 포함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연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학의회 한국여성경제인연합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한국여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할아버지는주부모인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한미일 MD 및 군사동맹 구축, 일본군의 남한 재상륙을 반대한다!**

15차 '아시아안보회의'(6.3-6.5)에서 한민국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며 사드 한국 배치 입장을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이번 '아시아 안보회의'를 전후해 드러난 사드 배치 지역과 시기, 그에 관한 공개 발표 시기를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을 사드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화해 주는 화답의 형식으로 봉합한 것이다. 또한 이번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해 논의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미 당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한일 당국이 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의 체결을 임질하고 있는 것은 한미일 MD와 군사동맹 구축을 통해 북한을 봉쇄하고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미일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우리는 이것이 가져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파괴와 한국의 대일 군사적 종속과 일본의 남한 및 한반도 재침탈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사드 한국 배치가 가시권으로 접어들었다. 한미 국방당국 간에 사드 한국 배치 지역과 시기를 언제 발표할 것이냐를 놓고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거꾸로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올 10월 경 개최될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사드 배치 지역과 시기가 발표될 것이라는 보도나 2017년에 대구 지역에 사드가 배치될 것이라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데로부터 늦어도 오빠마 정권 임기 안에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이 발표되고 박근혜 정권 임기 안에 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닐 것 같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는 미중 대결이 증폭되고 한중관계가 갈등과 대결 상태로 빠져들어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훼손하고 한국의 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할 뿐이다.

그렇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은 6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일 퍼시픽 드래곤 훈련에 참가하는 등 한 발 한 발 한국의 미국 MD 참여와 한미일 MD 구축의 길을 밟아나가고 있다. 퍼시픽 드래곤 훈련에서 한국의 이지스 세종대양함은 미일 이지스 구축함과 함께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 정보 공유 능력을 검증한다고 한다. 유사시 여러 목표점을 향해 날아가는 동시다발적 탄도미사일을 탐지, 식별, 추적, 요격하려면 한미일 사이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고, 한미일 MD 자산도 통합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올 2월에도 한일 양국군은 미 전략사령부가 주관

한 '남북 타이탄 16' 훈련에서 정보 공유, 위협 평가, 공격작전 등의 연합 MD 훈련을 실시할 바 있다.

이러한 한미일 3국의 연합 MD 훈련 전개는 한미일 3국의 동북아 MD 구축의 구체적인 과정이며, 바로 한국 배치 사드, 특히 사드 레이더는 동북아 MD 체계에서 센서 체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축될 동북아 MD 체계에서 사드 레이더가 정보(중국 탄도미사일의 발사, 추적)의 핵이라면 요격의 핵은 한국군 내에서 구준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SM-3 요격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다. SM-3 요격미사일은 사드 요격미사일과 함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서는 무용지물과 다를 바 없는 무기체계다.

결국 중국을 겨냥한 사드 한국 배치와 동북아 MD 구축으로 남한은 미일의 대중 MD 작전의 전초 기지로 전락한다. 특히 한국군이 SM-3 요격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이는 미국을 겨냥한 ICBM이나 일본을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동원될 것이다. 이들 MD 자산이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거의 효용성이 없다는 사실과 미국이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개연성을 한층 높인다.

한미일 MD 구축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전제로 한다.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 등이 확보한 대중 탄도미사일 정보와 한국군 정보 자산이 획득한 일본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 등은 일본의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에서 사활적인 이해를 갖는다. 특히 안보법 개정으로 전면적인 집단자위권 행사에 나서는 일본군이 미국 합정 보호와 미군과 미국을 겨냥한 북중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해 주는 소위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의해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한국의 대일 정보 제공이 필수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일이 언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다그치는 이유다.

사드 한국 배치와 동북아 MD 구축의 종착점은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이다. 한미일 3국군이 군사동맹을 구축해 막강한 공격력을 갖추게 되면 동북아 위기 시나 한반도 위기 시 이를 관리해 평시로 되돌리기보다는 유사나 전시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배가시킨다. 바로 동북아 MD는 한미일 동맹군의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뒷배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일 강대국의 하위 동맹자로 전락해 일본에도 군사적으로 종속될 뿐만 아니라 맹목적인 한반도 전쟁과 동북아 대결 구도에 인적, 물적 자산을 송두리째 쏟아 부어야 하는 국가적, 민족적 불이익을 감당해야 한다. 또한 호시탐탐 한반도 재침탈을 노리는 일본군의 한반도 정상화를 스스로 허용하거나 미군을 뒤따라 한반도에 들어오게 될 일본군을 무기력하게 손놓고 바라보아야 하는 주권 침탈의 굴욕도 감당해야 한다.

이렇듯 사드 한국 배치와 동북아 MD 및 군사동맹 구축은 관련 국가 간 다층적 군사적 대결로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무한 군비경쟁과 신냉전을 불러오게 된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결만 격화시킬 뿐인 한미일 삼각 MD 및 동맹 구축에 결단코 반대하며, 그 고리가 되는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MD 연합 훈련 및 한일 군사협력 강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등의 군사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6월 5일

사드한국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 사드한국배치반대 전북대책위, 노동자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예수살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성명서]

제1234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지난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배제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종속 합의 이후 반년이 지났습니다. 1992년 시작된 수요시위는 오늘로 어느덧 1234차를 맞았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무색할 만큼 일본정부는 전쟁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한국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일합의가 피해자들을 배상이 아닌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일본의 범죄책임은 회피하도록 한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또한 소녀상 철거와 같은 조건이 달린 10억엔 출연으로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합의문구에 분노해야 했습니다. 합의는 어디에도 그동안 외세운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진상규명, 역사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한일 종속합의는 지속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입니다.

5월 3일 우리를 충격에 빠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소녀상을 망치로 가격한 사건입니다. 여성은 "머릿속에서 시켰다", "소녀상을 태리면 누가 돈을 준다고 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언론은 "소녀상 '망치테러'... 정신분열 30대女 체포"라는 식으로 사건을 명명합니다. 강남역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조현병 맞습니다. 범행동기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하며 배후가 있다면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소녀상 테러사건이 조현병 환자의 일탈행동으로 무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의 진상규명과 엄중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 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배치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사드배치와 함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종속합의 또한 미일동맹 강화와 함께 한미일 동맹을 다지기 위한 미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런 시도가 진행되는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는 끊임없이 견제를 하며, 일본의 군국화는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렇수록 동북아시아의 전쟁위험은 높아져 갑니다. 이런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전쟁을 용수 경험하고 증언하신 분들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고 배워서 다시는 전쟁 없는 세상,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여성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요."

폭력의 역사, 아픔의 역사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국뿐 아니라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게 피해 입은 여성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연대

합니다. 전쟁 없는 세상,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함께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일본정부는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 피해자를 배제한 재단설립에 반대한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10억엔 출연을 거부하라.
- 한국과 일본 정부는 12.28 합의를 무효화하라.
- 한국정부는 동북아 평화를 위한 일에 앞장서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편입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2016.06.08

제1234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일동
및 평화플랜드느여성회

[성명서]

사드는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

지난 8일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드는 탄도미사일이 발사가 되면, 표적 미사일을 높은 상공에서 요격미사일로 맞춰서 파괴하는 무기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11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아주 중요한 질세절명의 문제"라고 발언을 했다. 그렇다.사드는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하지만 사드가 국민의 생존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명확을만드는여성회는 우리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명화를 해치는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

사드 배치 발표가 나자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 평택, 원주, 칠곡 등 지역 사드반대 대책위원회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중국은 강격한 반대 성명을 냈고, 러시아는 사드 배치 지역을 사정거리에 든 미사일부대를 국동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1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총대경고'를 통해 '불비다', '셋더미'와 같은 단어를 써가며 사드 배치 지역이 확정되면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사드는 배치되는 지역 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후보장소로 양산, 생주, 별교 등지가 추가되면서 거론이 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인근 주민에게 미칠 피해와 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정보 공개 없이, 정부는 사드 배치를 막우가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전자파, 소음, 진동 등 예상되는 문제로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은 건강권과 생존권에 피해를 입을 것이다.

사드는 지역 주민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우리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다. 군사주의적이고 폭력적인 무기 확대 정책은 전쟁에 대한 위협을 부추길 뿐이다. 사드 배치는 러시아의 반응에서 보듯이 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킨다. 그럴수록 우리들은 전쟁위험과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한다. 사드는 우리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여성살해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성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사는 여성들은 불안과 두려움, 공포를 느끼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전쟁 위험에 대한 불안까지 안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드를 배치하는 국가안보논리가 아니라 여성주의에 기반한 안보논리이다. 명확을만드는여성회는 여성주의 안보, 인간안보를 고민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며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라.

2016.07.12

명화를만드는여성회

[결의문]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하고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 침해하는 사드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은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태로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도 격앙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7/8) 한미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어제(7/13) 한미 당국이 경북 성주군을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하기까지, 그 과정은 더할 나위 없이 불투명하고 일방적이었습니다. 사드의 용도와 효용성, 군사적 외교적 비용과 부작용에 대해서 수많은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일선에서 미국의 요구에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날벼락처럼 사드 배치를 통보받은 성주에서는 주민들의 분노와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드는 한반도 주민을 위한 무기체계도, 방어를 위한 무기체계도 아닙니다.

사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부입니다. 사드를 운용하는 것도 미군이고 미국 정부입니다. MD는 미국과 적대하는 국가의 미사일 공격은 무력화하고, 미국은 언제든지 미사일 공격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절대역지" 개념에서 고안된 공격적 무기체계입니다. 정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 핵과 미사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사드가 서울과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여전히 정부는 마치 사드가 반경 200Km 이내 지역만큼은 방어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0Km만 사드에 장착된 요격미사일의 사정거리를 표현하는 수치에 불과합니다. 반면 사드 레이다의 탐지 거리는 이론적으로 최대 수천 Km에 이릅니다. 사드 전진 배치의 주 목적이 사실상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 상공을 날아가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데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 항에 사드를 배치할 '적절한 곳'이란 없습니다.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사드 배치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군사적·외교적 자충수입니다.

한국에 배치될 사드는 일본에 도입된 미사일방어체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등을 겨냥한 미일 MD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협력체계가 공식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주권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강변해도 국제사회와 주변국들은 수긍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등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공허한 문구가 되어버리고, 경제협력의 기반도, 양국 국민간의 우호관계도 모두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상용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핵 갈등 해결

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드가 결코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장치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평화가 아니라 위협과 갈등을 부르는 '진짜 위협',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결정과정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합니다.

사드 배치를 추진하기에 앞서 그 용도와 효과, 군사적·외교적 의미 등에 대해 전사회적인 토론과 평가가 선행되었어야 마땅했습니다. 협의 과정에 관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정보통제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관계기관 내에서도 충분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 평화의 미래가 걸린 중대 사안을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처리해버렸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아무런 실질적인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의 성격과 내용, 협의 과정 그 어떤 것도 국회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도 정부는 국회 동의를 구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청주군의 경우, 주민들은 물론 군(郡)관계자들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 설명회 한 번 없이 일방적인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기지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전혀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국회를 따돌린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사드 배치는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드 배치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며, 주변국과의 우호협력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중대 사안입니다. 막대한 비용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안을 행정부의 판단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국회 통제를 회피하기 위해 비밀 작전하듯이 정부 간 협의 방식으로 해치우는 위험천만한 관행을 방지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라면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강행에 제동을 걸고 반드시 국회의 동의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정부가 국내 국회 동의를 구하지 않을 경우 국제조사, 반대결의안 채택,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부의 권한남용을 제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위한 범국민 평화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우리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시키고 한국이 미일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계각층의 뜻을 모으고 이 결정의 문제점을 널리 공론화하는 범국민 평화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경북 성주가 또 다른 평택 대추리, 제주 강정마을이 되어 국가폭력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을 것입니다. 또한 성주뿐만 아니라 국내 어디에도 사드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전 국민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국회, 정부 관계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압박할 것이며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우리의 뜻을 전할 것입니다.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밀어붙이는 어떤 권한남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드 배치를

결정 철회를 넘어 남북 화해와 협력, 평화체제 형성을 위해 연대할 것입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주변 열강의 군비경쟁과 대결에 동원되거나 휘둘리는 최악의 고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평화와 협력의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사드 배치 결정 철회와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한 시민 저항과 행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 7월 14일

사국회의 참가자 일동

개인연명(130명)

강성훈(천주교인권위원회), 강영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강은주(천주교인권위원회), 고철환(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지수가농발전위원장), 극동청명화3000 상임대표, 신부), 권근술(전 사) 어린이해동우 이사장), 권낙기(통일중앙 대표), 김오진(민기협 양심수위원회 명예회장), 권태선(한성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광준(성공회 신부), 김금익(한국여성상단체연합 상임대표), 김대권(아시아의친구들 대표), 김여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재진(개성공단기연협회 상무), 김성은(평화출판드는여성회 이사), 김수희(명화3000 운영위원), 김순애(한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호(한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용민(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김정순(홍사단 사무총장), 김정욱(예수회 신부), 김종근(성공회민회방산교회 신부), 김홍희(포럼치크소 직은형제회 신부), 김창수(고려어연구회장, 통일맞이 이사), 김태현(한국종교연방회의의 목사), 김한성(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회장), 김형태(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김효태(통일맞이 이사, 원신대 총동문회), 김희하(여성사목교육원장), 김희선(통일맞이 이사, 여성농업운동가범사업회 회장), 김희일(명화3000, 신부), 나동규(러시아의약용지현본부 이사장), 남상태(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남승환(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노진익(명화3000, 국제청소년평화재단 대표), 노법(대한불교조계종 자성대 세신을 위한 경사본부장), 유종열(출민동 상임대표), 문경식(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문규원(명학의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성근(통일맞이 이사, 국민의 명령 상임위원), 박근용(참어연대 공동사무처장), 박동호(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위평화위원장, 신정동성당 주임신부), 박래권(연진군대를위한시민연대 공동대표), 박석문(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순성(동국대학교 교수), 박승진(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박영대(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박정은(참어연대 활동사무처장), 박진도(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지역재단 이사장), 박차옥경(한국여성상단체연합 사무처장), 박성일(명화3000 운영위원장), 배원용(명화3000, 목사), 백남해(명화3000, 신부), 백선기(사) 부천시민교육센터 이사장), 변인(참어연대 공동대표), 변연식(국제민주연대 대표), 변민식(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 서보희(고려어연구원 연구위원), 서명섭(곤병후포프란체스코수도회 신부), 석일용(명화3000, 수사), 성명(천주교인권위원회 고문), 성태용(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장), 손미희(한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신명재(명화3000, 사회복지법인 복음지리 이사장), 안정애(평화출판드는여성회 대표), 안진경(참어연대 공동사무처장), 안송서(천주교인권위원회 고문, 신부), 양김소(6월민주포럼 대표, 녹색평민 이사장), 양정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오상래(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윤병수(흥민동 사무처장), 윤영선(홍순사 공동대표, 한국전쟁유족회 감사), 윤순하(6월민주포럼 전 대표), 윤한택(민주시민평화회통일추진연대 명예의장), 은희만(교양통일나무 집행위원장), 이길재(천주교인권위원회 고문, 이남취성공회대 교수), 이덕우(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이등삼(한국YMCA전국연맹 지역사업국장, 이부영(동북아평화연대 명예대표), 이성규(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 기획위원), 이승환(시민평화교연 공동대표), 이시재(가톨릭대학 명예교수, 환경연합 전 공동대표), 여진희(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이영우(해방촌 성당 주

임신부), 서울배출자단 이사장, 이은영(천주교인권위원회), 어여효재(여성학자), 이철복(도·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이병우(미주동포전국협회 NAKA), 이호송(천주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장), 임옥성(사회), 임종대(한신대학교 명예교수, 참여연대 전 공동대표), 장남수(사)한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장수아(천주교인권위원회), 장순행(영화3000, 교수), 전연용(6월민주포럼 기획위원장, 전지신문사 대표), 정동익(사월혁명회 회장), 정문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명섭(사회정보연대), 정육식(영화네트워크 대표), 정홍성(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정태인(삼풍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장현근(시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정찬택(시민평화포럼 상임대표), 정현숙(홍인봉 도산통일연구소 정책실장), 조경철(강정마을회 회장), 조성우(우리겨레바나나지기운동본부 이사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조영진(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사무총장), 화세준(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지은희(전 여성부장관), 차현환(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최경욱(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최부식(복3동 성당 주임신부), 최사육(평화저항군인회 공동대표), 최열(환경재단 대표), 최영도(천주교인권위원회 고문), 최영애(여성인권옹호지원하는사람들 대표), 최원식(영화3000 공동대표, 변호사), 최영진(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최태영(영화3000 운영위원), 최태경(사) 여인이어깨동무 사무총장, 최태호(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종복(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홍승현(통일맞이 이사, 한빛교회 담임목사), 황동환(아사학 신부, 베네딕도 수도회), 황인성(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통일맞이 부이사장)

단체연명(46개 단체)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강정마을회, 고양시민사회연대대회, 노동자연대, 녹색연합, 대전평화여성회, 대한불교청년회, 민가활 양심수후원회, 민주연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순), 사월혁명회, (사)한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대회, 시민평화포럼, 아시아의 친구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작은정치회(포안시스코회) 정명창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광장,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저항군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 시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연대, 송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백해무익한 사드 한국 배치, 국민의 힘으로 막아냅시다!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한국(성주) 배치 결정 발표를 전후하여 국내외적으로 이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 '최적지'로 발표한 성주지역의 주민들은 강력하고 용감한 반대활동으로 주민투쟁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는 안 된다는 성주 군민들의 피끓는 호소에 화답하고, 국민의 힘으로 기밀로 사드를 막아내기 위하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의 출범을 선언합니다.

한미당국은 사드 배치가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산악지형이 많고, 남한을 겨냥한 북핵 미사일은 비행시간이 매우 짧아 사드로 이를 막기 어렵다는 것은 한미당국이 스스로 밝힌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드 미사일의 요격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드 배치는 당면한 한반도 핵문제를 비롯한 군사적 대결을 해결하거나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드 배치가 아니라 핵갈등의 평화적인 해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당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강행하는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서 미국과 일본 등으로 날아가는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정보를 사드 레이더(AN/TPY-2)를 통해 최대한 빠르고 정확히 탐지, 추적, 전파하여 미국과 일본이 이를 요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이 사할을 걸고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취약한 대미 핵억제력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사드 한국 배치는 한국이 본질적으로 미일 MD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한미당국이 처음부터 미국 MD와 직접 교신할 수 있게 고안된 사드 레이더를 배치하면서 미국 MD에 연동되지 않는다고 강변하는 것은 국민의 반발을 우회하려는 꼼수일 뿐입니다. 나아가 한미당국이 중간비행 단계 요격체제인 SM-3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이 미일 MD체제에 복속되는 원결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일의 요구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올해 안에 체결된다면 한미일 MD를 매개로 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한미일 삼각 MD 구축은 동북아의 군비경쟁과 정치군사적 대결을 격화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인보 위협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최대교역국인 중국을 적으로 돌려 가족이나 이로운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안기고, 부지와 시설 제공, 운영유지비 부담 등 국민혈세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태도는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형식적인 설명회조차 열지 않고 기습적이고 종속적으로 사드 성추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어떤 설득력있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전자파 피해가 없다고 강변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성추 내 제 3후보자를 내세워 성추군민을 분열시키고 각종 탄압으로 성추군민의 투쟁을 무력화하려 하려 합니다.

“식발 이기 따라고, 식발 이이라 내 목이라도 내놓기다.”

유림의 고장 성추에서 908명이 식발에 나서는 초유의 투쟁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다만 목이 메일 뿐입니다. 성추군민들은 “우리가 성추에서 사드를 막아내면 이 땅 어디에도 사드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가 밀봉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추군민들의 치명하고 감동적인 투쟁에 화답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 싸움은 결코 성추군민들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사드 반대 여론 조성을 위해 성추 촛불 100발을 맞아 100개 도시에서 촛불을 들 것입니다. 사드 바로알기 사랑방 교육을 열 것이며, 홍보물과 서명용지를 들고 국민들을 만나고 설득할 것입니다. 사드의 문제점을 알리고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온라인 행동도 전개할 것입니다. 사드 배치 강행을 막기 위해 국회에 권한쟁의심판과 청문회 등을 요구하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대응에도 나설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한반도의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백해무익한 사드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민 여러분!

“성추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성추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투쟁에 나선 성추 군민들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고, 사드 배치 여부는 국민 여러분의 판단과 행동에 달려있습니다. 작은 촛불하나로, 온라인 퍼뜨리기로, 서명 하나로 함께 해주세요. 한반도에서 패권이 격돌하지 않도록, 성추가 미국과 일본의 총알받이가 아닌 평화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국민 여러분이 나선다면 사드는 막아낼 수 있습니다.

2016년 8월 18일
사드 한국 배치 저지 전국행동

참가단체 (현재 참가단체 91개 단체, 모두 147개 단체)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1028대학우편전국행정기념사업회(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건강권 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계침남여 구속노동자후원회 금강산인권행복재단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명신도사국대학원회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희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전선 녹색당 녹색연합 다문화생활문화연대 다산인권센터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단군교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국조단군기념사업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민족문화추진회의 민족정신수호협의회 백두산국선도단군문화원 배달청년연합 총익생명사랑회 단군천천원위원회 배달공동체 단군고구려연구회 고조선연구소 한민족통일연구소 한독당동지회 한독당연구소 한민족바둑협회 민족신도기천문 (단군문화연구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유족(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연론시민연합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연합당 불교평화연대 변연세상실천연대 시드네시철학청년학생긴급행동 사임학명의 사이사선 사회번역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세로하나 세사회연대 서울민주행동 시민행화포럼 열린근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연방재동일수친회의 원불교사회계교우단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이명박근혜심판법국민행동본부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민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기민협의회 전국카톨릭농민회 전국학생행진 찬양안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제주군사기지저지평화의심실현을위한범도만대학위원회(참교육학부모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본부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제주참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4.3연구소 제주주인자치연대 달라지치연대 제주DFI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연애총 노래배형준 4.3민회 제주민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임용찬열사추모사업회 서귀포여성회 기독교장로회정의명화위원회의 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천주교평화학회 민주수호제주연대 노동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녹색당제주 굿지알사랑들 제주여성회 제주통일청년회) 제주주민주지시연대 초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병리근접운동본부 진보대통합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연결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맞이 통일외길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교육프로젝트모모 평화네트워크 평화플만드는여성회 평화마당 평화마할 평화와통일을어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어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일군사합정연대국민행동 AWC 한국위원회

[기자회견]

**새누리당은 이 땅의 정의와 민주를 살리는
백남기 농민 국가 폭력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개최를 즉각 수용하라!**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9개월이 넘었다. 우리 여성들은 우리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한국의 농업을 지키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을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 사과를 요구해 왔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외쳐 왔다. 그러나 아직도 백남기 농민을 향한 잘인물대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수사도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이 땅에 민주와 정의가 살아있길 바라는가? 진정 서민의 마음이 되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백남기 농민 국회청문회 실시에 나서라!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국가 폭력은 지금 이 시간 모든 약자들을 향해 행해지고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폭력, 노동자에 대한 탄압, 저리의 노점상을 차린 빈민에게도 여지없이 계속되고 있다.

백남기 농민을 향한 국가 폭력의 문제는 백남기 농민만의 문제가 할 수 없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이도 국가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 더불어 백남기 농민은 한국 농업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며, 국가가 농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국가가 한 나라의 농민의 목숨을 어떻게 가버려 보아서 된단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를 구성하고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권력을 위임하였다.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은 위임받은 국민의 권력으로 대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새누리당 건물에 새겨진 서민의 마음이라 새겨진 저 커다란 문구에 진실이란 없는 허울뿐인 새빨간 거짓말이란 말인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지금 당장 백남기 농민 국회청문회 실시에 나서라!

우리의 농업은 생명이다. 먹거리를 생산하고 우리의 밥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농민이다. 농업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다. 지난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전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농업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쓰러졌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해진 국가의 무지비한 폭력 또한 지켜보았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새누리당에 백남기 농민의 국회청문회 실시 촉구에 나서는 것은 또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여성들은 이 땅의 무너진 민주와 정의를 회복하고, 농업과 우리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백남기 농민 국회청문회가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함께 연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계

속해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짓밟는다면 똑똑히 기억하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 새누리당은 백남기 농민 국회청문회 실시에 나서라!
-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6년 8월 22일

백남기 농민 국회청문회 개최 촉구 여성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논평]

사드 배치 '제3후보지'로 주민 분열시키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 '제3후보지'를 꺼낸 뒤 혼선을 거듭하던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현인구 국방장관이 17일 성주군청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지역 의견으로 말씀을 주시면 검토하겠다"고 말한 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18일 "성주 지역 내에서의 군사적 효용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힌 것은 이를 추진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2.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성주포대가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안전 등의 측면에서 최적지라고 밝혀 온 그 동안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조변석계 졸속행정의 전형이다. 국방장관이 주민에게 부지를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드 배치가 군사적 효용성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적지가 여럿이고 주민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디도 최적지가 아니라는 말과 다름없는 것이다.

3. 본질적으로 한국에서 사드 배치 최적지란 없다. 사드를 어디에 배치해도 북핵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후보지 논의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다. 제3후보지가 아니라 사드 배치 철회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4.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제3후보지를 내세워 사드 한국 배치 저지투쟁에 나선 주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정치인과 보수단체 등을 앞세워 제3후보지를 띄우고 이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민 분열과 갈등을 유도하고 있다. 정책 결정자가 자기 임무를 포기하고 주민에게 부지를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주민 분열을 노린 매우 불순하고 비열한 정략적 의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정부가 주권자로서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지배하고 제압할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주민들에 대한 각종 탄압을 병행하여 사드 배치 반대투쟁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제3후보지를 내세운 주민 분열공작과 탄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5. 이에 우리는 정부에게 일체의 분열공작과 탄압을 중단하고 사드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 8. 19.

사드배치저지전국행동

국회는 사드 배치 철회에 나서라

-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특위 구성에 나서라

20대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지금, 우리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한미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국회가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난 7월 갑작스런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발표 이후 제3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정부의 일방적인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혼란과 갈등도 가중되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사드 배치를 위해 정부가 유로하고 있는 거짓주장들을 검증하고 종속적이고 일방적인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정부는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반도는 길이가 짧고 산악 지형이 많아 북한 미사일방어에 효용성이 없다. 이는 미 국방부와 의회 보고서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북한은 여러 방식으로 사드의 요격을 회피할 수 있다.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포함한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사드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사드의 요격 능력은 실전에서 검증된 바도 없다.

이번 한러, 한중 정상회담에서 확인되었듯이 주변국들도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강행하려는 핵심 이유가 사드 레이더(AN/TPY-2)를 통해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중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정보를 탐지, 추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직접 운용할 사드 레이더는 미국 MD와 직접 교신할 수 있게 고안되었다. 사드 배치가 미국의 동북아 MD구축의 일환이라는 것은 2013년 스키퍼모티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는 당시 미국의 한반도 MD 이행 전략이 진행 중이며 그 3단계가 사드와 같은 상층 방어체계와 X-밴드 레이더 배치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만 부인할 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모든 주변 국가들은 사드 한국 배치를 대일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로 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드 배치로는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의 핵무장 강화도 저지할 수 없다. 게다가 정부는 문제의 근원인 한반도 핵감등과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기보다는, 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쪽을 선택했다. 국민들의 불만을 조장하고 그 불만 심리에 편승하여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새로운 첨단 요격시스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기도 하다. 어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사드보다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느 누구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해곡이다. 많은 전문가들과 단체들이 대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의면했을 뿐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라도 정부와 여당이 오랫동안 외연해왔던 대화와 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사드의 대북 방어 효용성에 대해 신망처럼 믿기를 강요하는 정부의 억지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성산포대를 '최적지'라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제3후보지를 검토한다고 주민들의 혼란과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제3후보지 검토는 타당성 검증도, 사전 평가도 없이 졸속적으로 사드 배치가 결정되었음을 반증한다. 하지만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국론분열'이라며 입막음하거나 예극심을 앞세운다. 존재할 수 없는 '외부세력' 운운하며 지역주민들을 괴롭히고 저항을 무력화하려 한다. 사드 배치는 이처럼 박근혜정부의 비민주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문제이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한 국회의 대응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정부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 것을 기대하며 여소야대의 국회를 만들어주었다. 개원 3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들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바뀌고 있다. 사드 문제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국회를 철저히 외연한 채 사드 배치를 결정했음에도 국회는 정부의 일방 독주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현안 질의도 정부의 억지주장과 무성의한 답변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주권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라는 정부 입장을 그대로 읊으며 사드 배치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의 태도 못지않게 개탄스러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이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전략적 모호성' 운운하며 애매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달 야3당이 합의한 사드 특위 구성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당 대회 이후 추미애 신임대표가 약속한 사드 반대 당론 결정을 또 다시 미루는 등 사드가 쟁점이 되는 것을 극구 회피하고만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무책 입한 태도를 버리고 사드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은 물론 즉각 국회 사드 특위 구성에 나서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드 배치는 단순한 무기 배치의 문제가 아니다. 배치 지역 주민만의 문제도 아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사안도 아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았냐고, 확실하든 모호하든 모든 위협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 대응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이고, 정치군사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반드시 그 타당성과 절차에 대해 따져 묻고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부 주장대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으려면, 사드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군사적 대결과 위협을 중단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 역시 국회의 역할이다.

더 이상 정부에 맡겨 뒹구는 만 된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사드 철회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즉각

사드 특위를 구성하여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을 비롯하여 미국 MD 참여,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독립적 환경영향 평가, 비용 규모와 분담 주제, 정부내 의사결정 과정 등을 처음부터 검증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품속적이고 일방적인 강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야말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2016년 9월 6일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한반도 위기 고조 행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

지난 9월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또 다시 한반도가 격랑에 빠지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인류 절멸의 무기인 핵무기로 체제를 유지하려는 북한과, 핵무기를 동원한 무력시위 등 군사적 압박에 나서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태도에서 기인한다.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려는 온 데 간 데 없고 오로지 끝 모를 대결만이 한반도를 휘감고 있다. 참담한 노릇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남북이 모두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먼저 우리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비축, 사용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어느 나라도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실행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 실험과 핵 무반 능력 강화 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거듭할수록 역내 핵군비 경쟁은 고조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정세는 더욱 불안해질 뿐이다.

한미 정부 또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우리는 압박과 제재만으로 북한의 핵무기 잠학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오랫동안 확인해왔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한미 정부는 제재와 봉쇄 등 실패한 대북 강경책만을 고집했다. 북한과의 협상을 의미했던 보수정권 8년 동안 돌아온 것은 북한의 4차례의 핵실험과 핵능력의 고도화이다. 이는 정부가 대북정책과 주변국 외교에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무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또 다시 제재와 군사적 대결을 택했다. 북한 핵실험을 사전에 방지하지도 못했고, 전략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했던 정부는 지금 북한 봉쇄 유도, 대북 선제타격 등 이행할 수도, 책임질 수도 없는 말 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어제(9/12) 있었던 청와대와 여야 3당 대표 회동에서도 대통령은 대북제재와 군사적 대결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제공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야당 대표의 남북대화 제안을 거부한 대통령은 국제공조를 어렵게 하는 사드 배치 입장을 강변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핵무장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미군은 오늘(9/13) 전략 폭격기 B-1B 2대를 한반도 상공으로 전개하며 무력시위에 나설 예정이기도 하다. 급기야 정부는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가공할 무기를 동원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북한도 남한도 다르지 않다.

다시 강조하지만, 북한붕괴론에 기반 대화 없는 대북 강경책은 이미 실패했다. 정부는 군사적 압박과 제재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정책이 완벽히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자명해진 것은 대화와 협상 없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남북과 미국 정부에 위기를 가중시킬 더 이상의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군사적 긴장을 부채질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의 여건을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패한 정책을 반쪽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와 용단이다.

2016. 9. 13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통일나우,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인족통일운동본부

[논평]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사드 배치 철회 목소리를 봉쇄하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1. 국방부가 언론중재위에 통일뉴스 그림만평 '사드 배치의 진실'에 대한 정정보도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국방부는 통일뉴스 그림만평이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함으로써 ... 사드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야기시키고 ... 한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 정당한 노력과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국방부가 왜곡했다는 그림만평의 내용들은 이미 정지민, 전문가, 방송보도에서 수차례 제기되고 다뤄진 내용에 근거한 것들이다. 이를테면 만평 내용 중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주장이라는 점에서 애초부터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드 배치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운명유지비를 부담하거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내용이다.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중국 당국이나 미국 MD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켄지락 영향 문제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우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그림만평을 정정보도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국회와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과 우려를 묵살하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보도의 자유와 예술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더구나 국방부가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신청한 것은 명칭만 논리전개가 필요한 '기사'가 아니라 의인화된 사드가 등장하고 등장인물들이 말동선으로 대화하는 '그림만평'이다. 풍자를 특성으로 하는 만평에 대해 정정보도를 신청한 이번 국방부의 출생한 행태는 만평작가들의 상상력까지 검열·통제해야 할 정도로 사드 배치의 정당성과 명분이 없다는 현실의 반증이라 할 만하다.

4. 우리는 이번 국방부의 정정보도 신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한 사건이나 사드 관련 KBS 보도지침 사건에 이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국방부는 정정보도 신청에서 "해당 내용이 모바일과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 일로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시안인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 이에 우리는 국방부가 통일뉴스 만평에 대한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신청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드 배치에 관한 언론의 자유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18.09.13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북한 수해지원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북한 함경북도 지역의 홍수 피해가 심각하다. 사망, 실종자가 500명이 넘고 이재민만 14만 명이라고 알려졌다. 북한은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고,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17만 5천 달러를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긴급구호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북한 수해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식적인 요청이 없어 정부 지원을 먼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심분 감안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직간접적 입장이 표명되고 있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더욱이 민간단체들의 지원까지 불허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그 동안 정부는 대북재에서 인도적 지원은 예외임을 강조해왔다. 비록 지금 한반도의 긴장이 높고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수해 지원을 가로막을 충분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 모름지기 전쟁 중에도 인도적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학살과 같은 민족의 어려움을 돕는데 어떤 정치적인 이해독실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북한 수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직 북한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다고는 하나, 어려움을 겪는 상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나아가 어떤 지원을 남북 간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둘. 정부는 민간의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 이미 민간단체들이 수해 지원을 위한 행동을 시작했고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이웃보다 더 가까운, 같은 민족의 아픔을 모른 척 할 수 없다. 이번 피해가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전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그것이 곧 인도주의의 실현이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2016년 9월 26일(일)

경제정의실천연합 통일협회 / 나눔문화 / 남북평화나눔운동본부 / 대전평화여성회 / 민주주의국민행동 / 시민행동요청 /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 우리민족서모듬기운동 / 원불교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휴먼닷미 / 평화평화센터 / 평화네트워크 / 평화불만드는여성회 / 평화통일대우시민연대 / 평화통일시민연대 / 한겨레등돌문화재단 /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사드 배치 최적지는 없다! 사드 배치 결정 철회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 부지를 성주군 초전면의 성주골포장으로 변경, 확정하고 배치 임정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일당기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먼저 결사항전의 각오이러 사드 철회를 외치는 성주 군민과 김천 시민의 저항, 원불교의 성지 수호역시, 다수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가이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사드 조기 배치 결정은 한국 대선 등 정치 상황의 변동에 따른 사드 배치 결정의 변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평화와 안보를 도리어 위협롭게 만들고 경제적 피해와 부담을 안겨주며 주민의 건강과 삶, 지자체 존립을 위협롭게 하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성산포대가 최적지라면 국방부가 입장을 뒤집은 것은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는지 말해 준다. 사드도 북한 핵미사일을 막아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총성이 잦고 산악이 많은 한반도의 지형상 성산포대는 성주 롯데 골프장이든, 아니 대한민국 그 어디든 사드 미사일로 북의 핵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다. 2015년 미 의회보고서도 "한국에서는 미사일 방어가 효용성이 별로 없다"고 밝히고 있다. 코일 전 미 국방부 신무기 담당 국장도 "사드도북한 미사일 요격이 어렵다"고 시인하고 있다. 국방부가 이러한 사실을 모로코로 일관하여 롯데 골프장을 사드 배치 지역으로 재발표한 것은 사드의 대북 방어 효용성에 대한 의구 심과 국민적 반발을 무시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국방부는 새로 최적지로 결정된 성주 골포장이 성산포대 보다 포대 입지 환경에서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 예정지인 성산포대는 면적이 좁고 직경이 짧아 미 육군교범이 정한대로 레이더 500m 전방에 6개의 발사대를 부채꼴로 배치하기만 불가능한 반면, 롯데 골포장은 부지 면적이 넓어 사드 레이더와 6개의 발사대를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배치할 공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드 배치 부지 변경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 결정 과정에서 어떤 타당성 검증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선에서 졸속적으로 이뤄졌으며 부지 평가 기준에서도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없다. 국방부는 한미 공동실무단 합외서와 그 부속은 물론 성주 군민들이 요구한 최적 부지 평가포나 시뮬레이션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성산포대가 해발고도가 383m인 반면 롯데 골포장은 680m로 더 높고 인구 밀집지역인 성주읍에서 18km가 떨어져있고, 인근에 민가도 없어 사드 전자파 유해성으로 부터도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주 골프장은 김천시 첫담장을 맞대고 있으며 사드 레이더 방향에 김천시의 인구 밀집지역인 혁신도시를 향하고 있다. 또한 미 육군본부가 정한 통제금지 않은 인원의 출입을 제한하는 사드 레이더 3.6km 안에는 김천시 남면, 농소면 주민 2,1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전자파 위험 아래 그 누가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는가? 김천시는 이미 부동산 거래 감소, 농산물 판매부진, 지역 상권 매출 감소로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인구 감소로 지자체의 존립을 걱정해야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성주 롯데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한다면 1천억 원대로 알려진 비용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된다. 국방부가 비용 부담을 무효하기 위해 국방부 부지와 맞교환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가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이 사안은 한국이 미국 MD에 편입됨으로써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은 "분명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한국 배치 사드가 러시아의 이익을 침해 한다며 "(사드기) 북중러의 군사계학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사드 배치로 한국이 미일 MD확전의 전초기지로 전략함에 따라 전시에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대신한 '총알받이' 신세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핵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심각한 안보 환경의 변화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중대 사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려는 것은 국민의 주권 위법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중국 동북 지방 한중 교류 행사가가 잇달아 무산되는 등 중국이 사드 보복에 나서면 경제에 큰 부담과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파괴하고 경제에 피해와 부담을 안기며 주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게 될 사드 배치 결정이 국민과 국회,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 국민과 주변 국가의 반대를 모호히 일관하며 기어이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소모와 희생을 치르게 되는 것은 물론 급기야는 박근혜 정권의 안위마저 위태롭게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성주 및 김천 주민과 평화불수호하려는 원불교 교도를 비롯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민과 함께 사드 한국 배치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16. 9. 30.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공동서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서한

Dear Secretary-General Ban:

We are women leaders from 38 countries, including many from nations that fought in the Korean War. We are from academia, business, civil society and the military, and represent a diversity of ethnicities, nationalities, religions, and political views. We are united by our belief that diplomacy is the only way to end the Korean War.

On July 27, 1953 leaders from the United State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China signed the Armistice Agreement to halt the Korean War. They promised to re-convene within three months to replace the ceasefire with a binding peace agreement. This never occurred and an entrenched state of war has ever since defined Inter-Korean and U.S.-D.P.R.K. relations. This war must end.

We urge you as the leader of the UN, which was established "to save succeeding generations from the scourge of war," to fulfill a promise you made in a 2007 speech where you stated, "Beyond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with North Korea, we should aim to establish a peace mechanism, through transition from armistice to a permanent peace regimen."

Korea is the only nation to remain divided as a result of WWII. For three generations, millions of families have been separated by the world's most militarized border. We urge you to lead the process of bringing formal closure to the longest standing war before you leave your post in the United Nations.

During your remaining time as Secretary-General, we urge you to:

1. Initiate a peace process, together with the UN Security Council President, to replace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with a binding peace treaty to end the Korean War.
2. Aim to conclude this peace process by 2018, the 70th anniversary of Korea's division into two separate states.

3. Ensure that women are significantly represented in the peace process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UNSCR 1325.

On both sides of the De-Militarized Zone, the absence of a binding peace accord fuels fear,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economic deprivation caused by diverting resources in preparation for war. Since 1950 Korea has been threatened with nuclear weapons (first by the United States and now also by North Korea), North Korean missile tests, and U.S.-South Korean military exercises. Furthermore, the recent decision to install the U.S.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in South Korea is viewed by countries in the region as a highly provocative and potentially destabilizing move.

Peace is the most powerful deterrent of all. A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 with the mandate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e urge you to take steps now to help formally end the Korean War with a peace treaty. Doing so would lead to greater peace and security in the world by countering the escalating militarization in the region and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worldwide.

The global community can no longer ignore the tragedy suffered by the Korean people. We look to you to leave behind a legacy of diplomacy for peace in Korea, Northeast Asia and our world, and to continue your active engagement for peace in Korea in your private capacity. We would appreciate acknowledgment of your receipt of this letter to info@womenscrossdmz.org.

Sincerely Yours,

1. Abigail Disney, USA, Filmmaker and Philanthropist
2. Aiyounng Choi, USA, Steering Committee Member, Women Cross DMZ
3. Alice Slater, USA, Coordinating Committee Member, World Beyond War
4. Alice Walker, USA, Author and Activist
5. Amina Mams, Nigeria/USA, Professor,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6. Amira Ali, Ethiopia, Author and Activist
7. Ana Oliveira, USA, Philanthropist
8. Anasuya Sengupta, India, Feminist author and activist, co-founder Whose Voices?
9. Ani DiFranco, USA, Singer, Songwriter, Poet, Multi-instrumentalist & Businesswoman
10. Anne Delaney, USA, Artist and Philanthropist
11. Anuradha Mittal, USA, Executive Director, Oakland Institute

12. Ann Patterson, Northern Ireland, Peace People
13. Ann Wright, USA, Retired US Army Colonel & Diplomat
14. Anne Beldo, Norway, Lawyer and Partner of Hegg & Co. Law Firm
15. Annette Groth, Germany, Member of Bundestag
16. Annie Isabel Fukushima, USA, Professor, University of Utah
17. Audrey McLaughlin, Canada, Former President, Socialist International Women
18. Betty Baardon, USA, Founding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n Peace Education
19. Brinton Lykes, USA, Professor, Boston College
20. Charlotte Wiktorsson, Sweden, Swedish Physicians Against War
21. Christine Ahn, USA, International Coordinator, Women Cross DMZ
22. Chung-Wha Hong, USA, Executive Director, Grassroots International
23. Cindy Weisner, USA, Grassroots Global Justice Alliance National Coordinator
24. Coleen Baik, USA, Twitter @Design Alumna
25. Cora Weiss, USA, Founder, Hague Appeal for Peace
26. Cynda Collins Arsenault, USA, Philanthropist, Secure World Foundation
27. Cynthia Erloe, USA, Professor, Clark University
28. Deann Borshay Liem, USA, Filmmaker
29. Don Mee Choi, USA, Poet & Translator, International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
30. Dorchon A. Leidholdt, USA, Attorney, Professor, Feminist
31. Ekaterina Zagladina, Russia, Permanent Secretariat, Nobel Peace Summit
32. Elaine H. Kim, USA, Professor,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33. Eleana J. Kim, Professor, Department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34. Elen Carol DuBois, Professor, History and Gender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35. Emilia Castro, Canada, Co-Representative of Intl. Committee, Americas Region, World March of Women
36. Eve Ensler, USA, Playwright
37. Fiona Dove, Netherlands, Executive Director, Transnational Institute
38. Fragkiska Megalocoudi, Greece, Journalist
39. Frances Kissling, USA, University of Pennsylvania; former President, Catholics for Choice
40. Francisca de Haan, Netherlands, Professor, Central European University
41. Gabriela Zapata Alvarez, Mexico, 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
42. Gay Dillingham, USA, Filmmaker, Former Advisor to Governor Bill Richardson
43. Glenda Paige, USA, Secretary, Governing Council, Center for Global Nonkilling
44. Gloria Steinem, USA, Writer and Activist,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 Awardee
45. Grace Cho, USA, Professor, College of Staten Island, City University of New York
46. Gwyn Kirk, USA, Women for Genuine Security
47. Hassi Smith, United Kingdom, Professor,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48. Helen Caldicott, Australia, Founding President of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49. Helena Wong, USA, U.S. National Organizer, World March of Women
50. Hope A. Cristobal, Guam, Former Senator
51. Hye-jung Park, USA, Filmmaker, Community Media Activist
52. Hye-weol Choi, Australia, Professor,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53. Hyunja Bae, Republic of Korea, Central and Executive Committee, World Council of Churches
54. Ingeborg Breines, Norway, Co-President, International Peace Bureau; former Director UNESCO
55. Isabella Sargoyan, Armenia, Helsinki Citizens' Assembly
56. Isabelle Geukens, Netherlands, Executive Director, Women Peacemakers Program
57. Jackie Cabasso, USA, U.S. Mayors for Peace
58. Jane Jin Kaisen, Denmark, Artist and Filmmaker
59. Janis Alton, Canada, Co-Chair,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60. Jean Chung, Republic of Korea/USA, Founder, Action for One Korea
61. Jennifer Kwon-Dobbs, USA, Professor, St. Olaf College
62. Jodie Evans, USA, Co-founder, Code Pink
63. Judy Rebick, Canada, Former President, National Action Committee on the Status of Women
64. Julie Young, USA, Board Chair, Korean American Story
65. Justine Kwachu Kamche, Cameroon, Executive Director, Women in Alternative Action—WAA
66. Kate Dewes, New Zealand, Former Member of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s Advisory Board on Disarmament Matters; Co-Director of the Disarmament and Security Centre
67. Kate Hudson, United Kingdom, General Secretary,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68. Kavita Ramdas, USA, Ford Foundation
69. Khin Ohmar, Burma/Myanmar, Coordinator, Burma Partnership
70. Kim Ku'ulei Birnie, Hawaii/USA, Women's Voices, Women Speak
71. Kim Phuc, Canada/Vietnam, UNESCO Goodwill Ambassador
72. Koze Akibayashi, Japan, Intl. President,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73. Krassimira Daskalova, Bulgaria, Professor, University of Sofia
74. Krishanti Dharmaraj, USA, Executive Director, Center for Women's Global Leadership
75. Kyeong-Ho Choi, USA, Professor, University of Chicago
76. Laura Hein, USA, Professor, Northwestern University
77. Leymah Gbowee, Liberia, 2011 Nobel Peace Laureate
78. Lindsey German, United Kingdom, National Convener, Stop the War Coalition
79. Lisa Natividad, Guam, President, Guahan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80. Liza Masa, Philippines, former Parliamentarian; Gabriela Network
81. Hon. Rev. Lois Wilson, Canada, Senator; Former Moderator of United Church of Canada
82. Luisa Morgantini, Italy, Member, European Parliament
83. Lydia Alpizar, Mexico, Executive Director, AWD (Association of Women's Rights in Development)
84. Madeline Boes, United Kingdom, Secretary General,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85. Mairead Maguire, Northern Ireland, 1976 Nobel Peace Laureate
86. Maja Vitas Majstorovic, Serbia, Gender Coordinator,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87. Margo Okazawa-Rey, USA, Professor Emerita,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88. Marilyn Waring, New Zealand, Professor of Public Policy,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89. Marilyn Young, USA, Professor, New York University
90. Mary C. Murphree, USA, Sociologist
91. Medea Benjamin, USA,

Co-founder, Code Pink 92. Meenakshi Gopinath, India, Women in Security,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WISCOMP) 93. Megan Burke, USA, Director,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Cluster Munitions Coalition 94. Meredith Woo, USA, Open Society Foundations 95. Meri Joyce, Australia, Regional Coordinator, 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96. Mimi Han, Republic of Korea/USA, International Vice President, YWCA 97. Mimi Kim, USA, Professor, Cal State University, Long Beach 98. Mina Watanabe, Japan, Secretary General,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99. Nada Drobnjak, Montenegro, Member of Parliament 100. Namhee Lee, USA, Professor,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01. Nan Kim, USA, Professor, University of Wisconsin 102. Nancy Ruth, Canada, Senator 103. Naomi Klein, Canada, Journalist and Activist 104. Netsai Mushonga, Zimbabwe, Commissioner, Zimbabwe Electoral Commission; African Women Active Nonviolence Initiative for Social Change 105. Nighat Said Khan, Pakistan, Executive Chair, DidiBahrini 106. Nina Tsikhistevi-Khutsishvili, Georgia, Board Chair, International Center on Conflict and Negotiation 107. Nunu Kidane, USA, Board Member, Priority Africa Network 108. Patricia Thane, United Kingdom, Professor, Kings College 109. Penny Rosenwasser, USA, Founding Board Member, Jewish Voice for Peace 110. Phyllis Bennis, USA, Director, New Internationalism Project,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111. Regina Munoz, Sweden, Peace Activist 112. Rose Othieno, Uganda, Executive Director, Center for Conflict Resolution 113. Saloni Singh, Nepal, Executive Chair, DidiBahrini 114. Sandra Moran, Guatemala, Co-Representative of Intl. Committee, Americas Region, World March of Women 115. Setsuko Thurlow, Canada, International Educator, Hibakusha/A-Bomb Survivor 116. Sharon Bhagwan Rolls, Fiji, Executive Producer, FemLINKpacific; Board Chair,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117. Shirley Douglas, Canada, Actor and Activist 118. Simone Chun, USA, Journalist and Activist 119. Sophie Toupin, Canada, Women Peace and Security Network Canada 120. Sung-ok Lee, USA, Assistant General Secretary, United Methodist Women 121. Suzuyo Takazato, Japan, Okinawa Women Act Against Military Violence 122. Suzy Kim, USA, Professor, Rutgers University 123. Taina Bian-Aime, USA, Executive Director, International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124. Tani Barlow, USA, Professor, Rice University 125. Terrilee Kekoolani, Ke Pae'Aina Hawai'i, Kanaka Maoli 126. Terry Greenblatt, Israel/USA, The Ploughshares Fund 127. Rev. Ursu Lee, USA, Presbyterian Minister, Women for Genuine Security 128. Valerie Plame, USA, Former Covert CIA Operations Officer 129. Visaka Dharmadassa, Sri Lanka, Founder, Association of War Affected Women 130. Wei Zhang, USA, Folk Art Researcher and Philanthropist 131. Wendi Dantz, USA, Global Fund for Women 132. Winnie Wang, USA, Center for Global Nonkilling 133. Yayoi Tsuchida, Japan, General Secretary, Japan Council Against Atomic and Hydrogen Bombs 134. Yoonyoung Lee, Canada, Professor, University of Toronto 135. Youngju Ryu, USA, Professor, University of Michigan (List in formation) Note: Organizations/Affiliations Listed Only for Identification Purposes

South Korean Women's and Peace Organizations

1. Women Making Peace (평화여성회)
2. Korea Women's Association United (한국여성단체연합/7개 지부, 30개 회원단체)
3. Korean Association of Women Theologians (한국여성신학자협회)
4. The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Women's Committee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5. The Association of Major Superiors of Women Religious in Korea (한국천주교여성자수도회 장상연합회)
6. The Righteous People for Korean Unification (새로운 백년을 여는 통일여성)
7. The Gongju Women Human Rights Center (공주 여성인권)
8.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교회협의회)
9. The Christian Network for Peace and Unification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교연대)
10. beyondit (너머서)
11. Gledongmu Children in Korea (이민이 어제동무)
12. Women History Forum (여성역사포럼)
13. Peace Mother (평화어머니회)
14. Kyunggi Women's Association United (경기여성연합)
15. Kyunggi Goyang-Paju Women Link (경기 고양파주 인우회)
16. Kyunggi Women's Network (경기여성네트워크)
17.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8. Korea Women's Political Solidarity (여성연)
19. Korean Sharing Movement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참여연대)
21. Itopia (문화세상 이포도리아)
22. Ewha Women's Alumni Meeting for Democracy (이화민주동우회)
23. Kyunggi Jinbo Women United (경기여성자주연대)
24. Kyunggi Council of Women (경기여성단체협의회)
25. Chungcheong-namdo Education Center for Equality (충청남도 성평등교육문화센터)
26. 21st Century Seoul Women's Union (21세기 서울여성회)
27. Common Nourishing and Education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28. Ecumenical Youth Network (예규예니칼 청년 네트워크)
29. Women Ministers Association of Presbyterian Churches Korea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연합회)
30. Women Ministers' Association of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31. Korea Association Methodist Women In Ministry (기독교대한감리회 여교역자회)
32. Korea Methodist Women's Leadership Institute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33. Korea Church Women United (한국교회여성연합회)
34. Duraebang (두레방)
35. Sunlit Sisters' Center (햇살사회복지회)
36. United for Women's Rights Against US Military Bases' Crime (기지촌여성인권연대)
37. United Voice for the Eradication of Prostitution: Hansori (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Women Cross DMZ (www.womencrossdmz.org) Women Cross DMZ is an organization led by women working globally for peace in Korea. In May 2015, on the 70th anniversary of the division of Korea, Women Cross DMZ led a historic women's peace walk across the Demilitarized Zone from North to South Korea to draw global attention to the urgent need to end the Korean War with a peace treaty, reunite divided families, and ensure women's leadership in peacebuilding. Representing 15 countries, our 30-member international delegation walked with 10,000 Korean women on both sides of the DMZ. Our mission is to: 1.) Promote women's leadership in the peacebuilding process in Korea; 2.) Raise awareness about the urgent need for peace in Korea; and 3.) Expand and deepen relationships with women leaders and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around the world.

2016.08.27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권은 파탄과 파국의 정치를 당장 멈추고,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라!

민심이 들끓는다. 사회각계를 망라한 시국선언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시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바람 잘 날 없던 대한민국이 급기야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정상 궤도를 한참 벗어나 표류하고 있다.

국민들은 괴로웠다. 박근혜 정부가 준 삶이 너무나 침담했다.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서 스리저가는 아이들을 2년이 넘도록 끌어올리지 못하는 부모가 되라했고, 공권력의 몰대포에 굶주린 아버들을 둔 자식이 되라 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는 굶주린 한일합방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고 입을 다문 채 다시 한 번 희생자가 되라 했다. 이름을 당한 이들은 위로 대신 압박을 받고, 그 모든 진실은 암흑 속에 가려졌다.

그렇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래 대한민국은 하루하루 후퇴의 역사를 써왔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인권이 후퇴하고 생명과 평화의 가치마저 사라졌으며 2015년 12월 28일 드디어는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합의로 역사의 회보가 이루어졌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박근혜 정부에게 걸었던 기대는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박정희 정권은 65년 한일 행정으로, 박근혜 정권은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로 대를 이어 역사를 맡아먹은 꼴이다. 그도 모자라 국정을 킁 주무르듯 한 또 다른 권력이 그 뒤에 있었으니 더 이상 꼭두각시 정부에, 권력을 사유화한 도둑집단에 우리는 정권을 맡길 수 없다.

지난 8월 26일, 외교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12.28 한일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지리리 손 때 달라'고 호소했다. 이때 정권의 꼭두각시늬음과도 같았던 비상식적 12.28 합의는 어쩌면 그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 위에 앉아있던 최순실의 꼭두각시늬음은 아니었는지 그마저도 의심스러운 황당한 상황이니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 수장으로서의 권리를 쥐고 있게 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 등 그 장단에 맞춰 춤 춘 책임자들도 모두 책임을 지고 사회함에 마땅하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범죄를 깨끗이 씻어주려는 '화해치유재단'의 존재 이유는 처음부터 없었고 더 야심은 두고 볼 수도 없다. 즉각 해산하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민심을 잃지 못하는, 아니 외면하는 독단과 불통이 언제까지

[기자회견문]

우리 평화여성들은 박근혜의 퇴진과 국성농단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구속을 원한다

70년 이상을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고있는 여성들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그만 분단시대를 마감하고자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힘 없이 고인하고 실천하는 여성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한반도 분단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여성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여러종류의 폭력은 분단상황과 무관하지 않으며, 여성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처럼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는 여성혐오에 기반한 폭력사건과 밤길 여성의 불안은 분단에서 비롯된 군사주의, 폭력주의 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된 모습을 원하는 이 땅의 여성들은 오랫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판문점과 DMZ를 넘나들면서 이 땅의 생명 평화 상생을 기원하고 북측여성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기존의 남성중심, 군사중심, 안보중심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여성주의적 시각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쌓아올린 남북여성 간의 신뢰와 평화여성들의 노력은 박근혜 정권에서 치참히 무너져 왔습니다.

최근 북한주민 탈북권유에서처럼 박근혜정권은 돈금없이 북한붕괴론에 근거해 흡수통일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북핵사태를 계기로 한 개성공단 전면 폐쇄 사드 강행,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각 MD 구축정책, 즉 동북아 신냉전 시대를 도래케 할 3국 군사동맹 강화와 정보협정체결 명종등은 평화통일이 아닌 흡수통일예의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특히 9월 이후 국내외에서 거론되고 있는 북한 선제 공격론은 동북아 주변국과의 다양한 외교적관점의 이해관계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이에 집착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참수론 등을 등장시켜 북한정권을 자극함으로써 더 이상 대화와 협력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박근혜정권은 한반도 사드배치가 남북관계 및 국내외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치밀하고 객관적인 검증절차도 없이 미치 북핵위협에 대한 만능통치마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여 총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악화된 남북관계와 경제적 외교적 갈등 국면으로 치달는 중국과의 관계

를 고려할 때 급작스러운 사드 도입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드배치를 부추기는 이 땅의 분단세력들과 미국정부, 그리고 미 군산복합체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근 박근혜정부가 어떠한 정치철학도 없이 무속인의 지시에 따라 한반도를 통전통화의 위점에 빠뜨려왔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 평화여성들은 한반도의 통일은 반드시 대화와 협력이 전제가 된 평화적인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74남북공동성명을 필두로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929합의, 104선언 등 으로서도 증명된 바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대외적인 외교군사정책에도 실패한 박근혜 정권이 더 이상 이 땅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평화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하나. 박근혜와 최순실을 비호하고 방조했던 공범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하나. 공권력의 시늬로 전라한 검찰과 경찰, 국무위원 등을 처벌하라!

하나.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라!

하나. 524조치 해제하고, 남북어성교류 등 민간교류를 즉각 재개하라!

하나.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를 위협에 빠뜨리는 사드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분단 70년을 강제한 정전협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평화협정 체결하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여성개인과 단체들

2016. 11월 3일

[사국선언문]

민주주의, 평등, 정의가 실현되는 국민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 철저한 진상규명, 최순실과 권력자 전원 구속, 박근혜 정권 퇴진 -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여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와 참담함을 느끼며 국가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인(私人)인 최순실을 청와대에 자유롭게 출입하게 하고, 대통령의 중요한 일정과 국망, 외교, 문화체육 등 국정 운영 전반에 깊숙이 개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은 사인(私人)의 사업을 위해 청와대 실세들과 정부조직을 움직여 온갖 이권을 챙기고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대통령의 퇴진과 하야는 변함없는 단심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사상 초유의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 사건에도 반성하지 않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아 자격을 잃은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장관,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 인사를 기습적으로 발표하는 등 국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는 엄중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여전히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병우 민정수석 후임으로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임명했습니다. 최재경은 세월호 관련 수사를 담당하다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찰을 떠난 인물입니다. 교위직 검찰총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은 검찰수사를 회피우지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 역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을 긴급체포하지 않아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었고, 청와대 압수수색은 일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만 전달받는 '보여주기식 수사'에 그쳤습니다.

새누리당은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다고 발뺌하고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하고, 국정 전반에 관여한 집권여당으로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책임과 반성 없이 대통령과의 선긋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후안무치한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민주주의와 정대평등 후퇴에 대한 많은 우려와 비판을 해왔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양극화 심화로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여성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노동현장의 성차별과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겠다고 여성들을 저임금과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인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몰아갔고, 성별분업은 강화되었습니다. 4대악 근절의 구호를 내세웠지만 오히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혐오는 늘어났습니다. 특히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

들 비롯해 전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워온 세계 시민들을 분노케 하였고, 역사는 퇴보되었습니다.

3년 전 우리 여성단체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의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배제와 불평의 정치, 민주주의 후퇴, 민생파탄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3년 전보다 더 심각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 사건으로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명문도 모르는 상처를 입어야 했고 분노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국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적, 공개적으로 운영되며, 국가는 국민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여야 합니다. 헌법은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대통령에게만 국민 앞에 헌법을 준수할 것 등을 선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재임 중 헌법질서를 파괴하면 주권자인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독립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최순실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 구속, 박근혜 정권은 퇴진해야 합니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제2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별 받지 않고,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꿈을 지키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회, 민주주의와 평등,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세계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전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학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정책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성명서]

제1256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와 평화로는 할머니들과 국민들이 만들어 온 평화와 역사의 상징이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여성들이 전쟁 속에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우리는 이 거리를 지켜 왔다. 일본정부의 재대로 된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우리는 이 곳에서 직접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작년 한일 정부간의 일방적으로 발표한 한일합의는 돈과 역사를 잊어버리고, 전쟁과 평화를 잇바꾼 합의였다. 그리고 26년간 할머니들과 국민들이 외쳐왔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를 무시한 합의였다. 최근 이 정권의 처부가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한 민간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문화, 역사, 경제, 외교 국방을 비롯하여 전방위에서 국정이 운영되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일합의가 누구에 의해, 누구를 위해 이루어졌는지 밝히고, 결속적으로 진행된 한일합의를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

국정논란의 어지러운 시국을 틈타 2012년, 국민들의 거센 반대로 체결되지 못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주무부처인 외교부, 국방부가 일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총리는 할머니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덜끝안큼'도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 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범국가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국민의 인권을 돈으로 환산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는 정부는 이제 최순실의 딸이 아닌 국민의 책임을 겸허히 들어야 한다. 사상 최악의 한파 속에서도 평화로에서 폭잡을 지며 평화비의 길을 지켰던 국민들, 26년간 평화로를 지켜왔던 국민들, 국가폭력에 쓰러진 농민을 지키고자 했던 국민들이 주는 마지막 기회이다.

최순실-박근혜 정부는 모든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도, 대통령도 믿고 의지한다는 특정 개인도 아니다. 최순실-박근혜와 함께 했던 부패한 정치세력들, 입을 닫았던 언론들, 대가를 바라고 돈을 낸 기업들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이곳에 있는 국민들이다. 대한민국은 늘 그랬듯,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 것이다.

우리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울곧게 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 일본 정부는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진상규명,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하라!
- 한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에 앞장서라!
-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 국민의 목소리 무시한 12.28 한일합의 당장 폐기하라!
- 한국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당장 중단하라!

2016.11.9

제1256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일동 및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성명서]

사드 배치 절차 강행 즉각 중단하라

국회 동의 받아야 할 사안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아

오늘(11/16)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롯데 성주 CC와 경기도 남양주의 국유지를 교환하기 위해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눈 감고 귀 닫는 능력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 절차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토지 교환 방식으로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국회 동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 국유재산과의 교환 방식을 통해 부지를 취득하더라도, 이는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체결에 해당한다. 헌법상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임이 명백한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해당 협상의 절차와 실질 내용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회 동의는커녕 실질적인 보고도 없이 부지 취득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사드 배치와 관련된 그 어떤 일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러려고 대통령 했다 자괴감이 들어' 아무것도 안 하는 척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가장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이 사드 배치 강행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이다. 지난 11/4 민선트 브록스 한미연합사령관은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11/14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이 이뤄지자, 미국 국방부 게리 로스 대변인은 즉시 한 영의 뜻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도 미국 정부는 미일 MD 편양을 위한 수순을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열치없는 일이다.

사상 초유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사회가 분노했다. 지난 11/12 100만 촛불이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특정 인사들이 국방·외교·통일 정책에도 개입했을 가능성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 4년 국방·외교·통일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비롯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내치는 물론 외치에서도 손을 떼야 하는 이유는 넘쳐난다. 국회도, 국민도 철저히 무시한 오농의 사드 배치 부지 협상 발표는 대통령이 외치에만 전념하는 것이 더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사드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위협에 빠뜨리지 마라.

2016.11.16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이고도 반민주, 반평화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한일 양국 정부는 11월 1일 도쿄에서 1차 협의, 11월 9일 서울에서 2차 협의를 한 데 이어 11월 14일 도쿄에서 3차 협의를 진행하고 협정에 가서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달 내 협정 체결을 목표로 이미 범제치 심사까지 의뢰한 상황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에 강력히 항의한다. 모두가 기억 하듯이 이 협정은 지난 2012년 여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여 가서명까지 했다가 전 국민적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협정을 다시 체결하려는 것이다.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찬반을 떠나,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구인 국회의 의견도 묻지 않고 협정 체결을 추진한 것에 대해 민심은 분노했다.

이번에도 반민주적인 행태가 그대로, 아니 더 심각하게 재연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얼마 전까지도 “여건이 성숙되어야 협정 체결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여건 마련은 고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군사 작전하듯이 협정 추진을 결정해버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상황에서 강행되고 있다. 지난 11월 12일의 100만 촛불이 보여주었듯이 대다수 국민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헌법상의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고 최소한의 신뢰마저 저버린 박근혜 정부는 이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할 자격을 상실했다. 역설적으로 이번 협정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치뿐만 아니라 외치에서도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악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1년 전, 박근혜 정부는 종속적인 ‘위안부’ 합의를 통해 우경화와 역사 왜곡을 일삼아온 아베 신조 정권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이를 바로잡지는 못했지만 이번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통해 일본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주려고 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국민은 박근혜 정부가 일본 우파의 망동에 부화뇌동하는 모습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미 꿈틀거리고 있는 동북아 신냉전을 재촉할 것이다. 한국은 마일 동

명의 명시적인 적대국인 북한, 전략적인 경쟁자인 중국과 러시아에 가장 인접한 국가다. 마일 동명이 한국을 자신의 군사 전략에 편입시키려 해온 지정학적 요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을 최전방 척후병으로 만들면 전략적인 이점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협정 체결과 올해 7월 사드 한국 배치 결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남방 삼각동맹의 결속은 북중러 북방 삼각동맹의 결속을 야기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 그 결과는 동북아 신냉전과 군비경쟁 격화이며, 한반도 평화의 영구적인 상실이다. 냉전 시대 최대 피해자였던 우리 국민은 이러한 신냉전의 출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만큼 실용주의 차원에서 일본과의 군사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일 3국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을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의 안전 보장에 결코 기여할 수 없다. 2013년 6월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발간한 보고서 역시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운 미사일이 저고도로 수 분 내에 날아오기 때문에 3국 MD 공조로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당연한 지적이다.

북핵 고도화를 차단하는 길은 결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같은 군사적 대응책에 있지 않다. 이견 싹새한 정책의 확대재생산일 뿐이다. 한반도를 냉전과 열전의 위험 사이에 가둬두는 지혜적인 조치일 뿐이다. 동북아 신냉전을 기우가 아닌 현실로 만들고 인류 공동체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자원을 군비 경쟁으로 낭비하게 할 뿐이다.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은 결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협력의 목표는 평화 증진에 두어야 하며 그 방식은 바로 실용된 외교를 되찾는 데 두어야 한다. 8년 가까이 중단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끝 모를 추악을 거듭하고 있는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북일 관계도 풀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게는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 내지는 물론이고 외치에도 비선 실세의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는 것이 하나둘씩 확인되고 있다. 이 와중에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마저 강행하려 한다.

우리는 결단코 이러한 역사적 피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자질, 자격, 자세가 없고 문세의 실각성을 자각할 능력마저 상실한 정권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6년 11월 1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 시민사회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개인연명(225명)

장기수(광주전남거제하나 공동대표), 김대연(문화공화어기백미 원장), 김우일(전주교 재주교구장), 김은숙(대전충남장거제하나 공동대표), 강혜순(통근및생활협동조합 이사장), 고경연(한국여성발전회 설립대표), 고동혜(대전충남장거제하나 공동대표), 권오형(전국회합운동연합 공동의장), 행정호(인구사회복지발전연구소장), 권대선(한경신문운영부 공동대표), 김경희(부산거제하나 공동대표), 김경열(거제시), 김경태(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광민(시안한국연맹사무소 민간연희문화재단이사장), 김희정, 김공욱(한국여성단체연합 설립대표), 김기준(평화과학연구원 설립공동대표), 김나영(울산대학생거제하나 대표), 권대관(아시아역진구을 대표), 김동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석(사월학원의 공동의장), 김미현(여성미래연구소 사무국장), 김민욱(서울거제하나 대표), 김상열(직업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서진(가계담당기업연회 사무), 김진명(한글교사민간사학재단 워크 설립대표), 김선열(한국성인교육재단학원대표) 공동대표, 김성근(연봉조사학회개교구단 설립대표), 김성근(평화열람하는 여성회 이사장), 김성진(연호사), 김성진(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김은경미(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김수희(한국여성단체연합 부장), 김영희(상공화대학교 회계교수), 김영순(부산거제하나 공동대표), 김영희(한국농민회총연맹 회장), 김영희(경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옥동(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은경(전북거제하나 상임대표), 김윤환(전북거제하나 공동대표), 김재현(광주전남거제하나 공동대표), 김진섭(홍서단 사무총장), 김정수(우리의거제나되지 못했으면 이사), 김정연(연천교육대학교 교수), 김정혜(한국여성단체연합 부장), 김종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윤애(연천인), 김지영(박덕연언어이공우유사업본부장), 김지희(부산대학생거제하나 대표), 김진희(연호사), 김향근(대전충남장거제하나 공동대표), 김향수(고대이연구원 회장), 김현수(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김형태(전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김혜연(서울대학생거제하나 대표), 김효혜(원산태초운동회, 통일빛이 이사), 김우식(광주전남거제하나 공동대표), 김희민(전 국회의원, 통일빛이 이사), 나동균(시안언어이공우유사업본부 이사장), 노기림(전남거제하나 공동대표), 노병소(남도방송 회장위원장), 노후순(한문교인권위원회의 위원장), 유승열(홍서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영진성(남(개)업업 진성처럼 고문), 윤경희(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윤규환(평화과학동맹을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윤선리(국인의 명명 상임운영위원, 통일빛이 이사), 윤정연(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박규용(대전충남장거제하나 공동대표), 박근영(연호사 사무처장), 박근수(한국교원연구연합회 상임대표), 박대순(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박재관(인간중심 사회 소외), 박석민(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순실(동국대학교 석학학과 교수), 박영애(연천거제하나 대표), 박영희(숙명대학교 명예교수), 박정경(수경잡없는세상 활동가), 박정은(말이연대 활동사무처장), 박자옥(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박정림(사무), 박한수(경남거제하나 공동대표), 박혜광(대전충남장거제하나 공동대표), 박호섭(서강대학교 교수), 박희진(시립학원회 공동의장), 방윤송(전북거제하나 공동대표), 배희숙(이화민주노동자 대외협력위원회), 배근철(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배근수(광주전남거제하나 공동대표), 법인수(남(합)연대 공동대표), 변신희(한국조직원노동조합 회장), 변연숙(국제민주연대 대표), 서보현(말이연대 평화교육센터 집행위원), 서복경(서강대학교 원대정책연구소 연구원), 신명옥(목사), 손대희(한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송우희(사월학원의 공동의장), 송영혜(사월학회 공동의장), 송우영(민주화를위한민간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신어숙(한국성인교육재단학원대표 이사), 신석규(경남거제하나 상임대표), 신수경(사학재단) 공동대표, 신영수(부산거제하나 공동대표), 신인영(이화여자대학교 전 총장), 안정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안진정(말이연대 사무처장), 안규용(연호사), 양길송(서울민주연대 대표), 양동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치위원장), 양이현(말이연대) 공동대표, 양민석(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 양민석(전북거제하나 공동대표), 양홍숙(연호사), 오경민(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오경진(원불교회원연대 공동대표), 오민홍(사회평론자 친구들 이사장), 원우소(대전충남장거제하나 공동대표), 유경희(지역연대) 설립대표, 유병수(홍서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사무처장), 유영진(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 부위원장), 유일현(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 유재희(통일나무), 유정희(전북거제하나 공동대표), 윤대환(한성대학교대학원대학원회) 설립대표, 윤영희(서울연호사) 공동대표, 윤은주(부산) 뉴로키아 대표, 윤홍식(연세대학교 교수), 윤희숙(한국남녀연대 공동대표), 이경주(인화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기희(원진대학교 교수), 이남주(상공화대학교 교수), 이대석(대전충남장거제하나 공동대표), 이영혜(한양YWCA연합회장), 이미영(울산거제하나 공동대표), 이미혜(박덕연언어이공우유사업본부장), 이부영(동북아평화연대 명예이사장), 이상영(유네스코 전 한국사무총장), 이상진(광주전남거제하나 공동대표), 이상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이상희(대전충남장거제하나 상임대표), 이상화(연호사), 이상희(경남거제하나 공동대표), 이슬환(시안대학로) 설립 공동대표, 이석영 (해수수도회 수녀), 이연희(우리의거제나되지 못했으면 사무총장), 이영희(대전충남장거제하나 공동대표), 이영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오영(인구사회복지발전연구소)오영 권 부위원장, 이윤혜(홍서단 이사장),

이은미(울산거제하나 공동대표), 이정희(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이재광(광국영학교육훈련원 대표), 이정미(부산 거제하나 청년대표), 이종수(사실학명회 이사장), 이진호(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이찬선(연호사), 이창복(15공통선선실현 남북유일회 상임대표의장), 이상수(법민권사회연구소 대표), 이태희(참어연대 정책위원장), 임정진(민북거제하나 공동대표), 임소희(나눔문화 이사장), 임수갑(평화나눔 네트워크 전국대표), 임흥대(한신대학교 교수), 임정영(민북총연합회 연구소 소장), 장영진(대진출판사거제하나 공동대표), 장외하(경주전남거제하나 공동대표), 장수진(한국여성단체연합 부설, 정영일(전) 국외 국방위원장, 통일맞이 이사), 장영림(부산거제하나 공동대표), 장승식(연호사), 장희하(서울대 명예교수), 장기효(사실학명회 감사), 장경자(참어연대 공동대표), 장기섭(사) 개성공단기업학회 회장, 정동호(사실학명회 상임의장), 정문자(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상익(원불교100년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정석규(갈남거제하나 공동대표), 정홍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인성(원불교 문화사회부설), 정원관(민사시대연대대의 정책위원장), 정현(백민족해방혁명반국민행위회 상임의장), 정현숙(총사단 사무처장), 정혜경(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정해림(사실학명회 공동의장), 조덕현(한국국민연맹 의장), 조인근(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조성위(우리거제하나되기 운동본부 이사장), 조수진(연호사), 조영삼(민주사회를위한연호사모임 전 사무총장), 조주영(김대중재단거제하나 대표), 조창환(경남거제하나 공동대표), 조현정(경남거제하나 공동대표), 조영수(연호사), 지은하(전 여성부 장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 기약단 이사장), 진영중(성공대학교 교수), 진로스(남우리거제하나되기 운동본부 이사), 최갑섭(전북거제하나 공동대표), 최병도(민주사회를위한연호사모임 전 회장), 최영희(우리거제하나되기 운동본부 이사), 최사평(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최병(광주재단 대표), 최병도(연호사), 최병연(대진출판사성회 대표), 최영애(사)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대표), 최승규(경남거제하나 공동대표), 최승규(경남대학교 학생거제하나 대표), 최승진(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최완희(사실학명회 공동의장), 최완호(부산거제하나 공동대표), 악우권(우리거제하나되기 운동본부 이사), 하대환(참어연대 공동대표), 한국(안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한대호(경주거제하나 대표), 한석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대이사위원장), 함영민(울산거제하나 공동대표), 방찬욱(사실학명회 이사장), 한승록(한국국민연대 상임대표), 허재일(경남거제하나 공동대표), 원지스(남우리거제하나 청년대표), 홍승현(한일교회 목사, 통일맞이 이사), 황진(사실학명회 감사), 황인주(전북거제하나 공동대표), 황인성(법민권사무회 운영위원장), 황인식(대진출판사거제하나 공동대표), 최인식(남우리거제하나 공동대표)

단체연맹(13개 단체)

(사)개성공단기업협회, (사)뉴스코리아, (사)한국전쟁현우 민간인회생지원국유특회, (세)어린아이학동지원본부, (사)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사)연희의 친구들, (사)연희의 동지들, (사)연희의동지시민연대, 6월민주요청, 경제총동맹, 참기어성단체연합, 갈남거제하나,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주거제하나, 광주전남거제하나, 국제민주연대, 금영공민선명회재단, 기독교여성회, 김해대학교 거제하나, 나눔문화, 녹색연맹,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출판사거제하나, 대전 평화여성회, 동근햇빛발전협동조합,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연호사모임 애국운동연구위원회, 민주화운동한민국교수 협의회, 부산거제하나, 부산대학생거제하나,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북녘어린이영양행사 일본부, 북녘어린이공유유사일본부,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사실학명회, 사회연도연대, 새사회연대, 새사람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우들, 새우거제하나, 새우대학생거제하나, 상해태운문제해결을위한한국연대, 성민시대산권네트워크, 수련여성회, 지원평화포럼, 아이여의 친구들, 여성사회교육원, 역사문제연구소, 열린단체통일시민연대, 우리거제하나(이)되기 운동본부, 울산거제하나, 울산대학생거제하나, 울산여성회, 원불교사회경제교우단, 원불교민사시대(이)네트워크,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한글연대, 여와인주총무회, 연진교우센터 '꿈', 안광동총서성당, 인천거제하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거제하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쟁없는 세상, 제주여성회, 제주여성권연대, 제주우먼지시연대, 정다성지연구소 여.세.연, 삼국총동맹(한국학부요회), 참어연대, 참원대학생거제하나, 안안여성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나눔, 통일맞이, 평화교육포럼(포)모, 평화나눔네트워크, 평화네트워크, 평화출판드는여성회, 평화바다, 평화활동지원연대, 평화여성들 일하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대우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포럼여성회,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당교회 여성지도 전국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영국특성당소, 한국어성노동자회, 한국어성단체연합, 한국어성연우회, 한국어성전국교, 한국어성연회, 한국어성당예인연합, 한국어성학자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연대, 한국영민대문제대책위원회, 한국빈민연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한국안부요청단, 한국외북여성회협의회, 함께하는우주모임, 울산시민단체운동본부

야3당의 '한일 군사정보협정 반대 결의안' 막은 새누리당 규탄한다 국민 의견 무시한 채 강행되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즉각 폐기하라

1. 어제(11/17) 새누리당의 반대로 야3당이 발의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촉구 결의안의 국회 외교동일위원회 처리가 무산됐다. 사실상 국정을 운영할 자격과 권한이 없는 박근혜 정부의 2중대 역할을 지임한 새누리당의 처사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오늘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촉구 결의안 역시 막아서는 안된다. 계속해서 국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고 나아가 퇴진 압박에 몰린 박근혜 정권의 희생 시도에 공범이 된다면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먹통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사드 배치,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등 외교국방 현안을 밀어붙여 사실상 퇴진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협의를 시작 한 지 약 2주 만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일본 언론에서도 "놀랄 정도의 속도"라며 이러한 속전속결 배경에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외교국방 현안으로 지금의 퇴진 압력을 타개해 보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했으며 의지를 말올린 자격도 권한도 없다는 것은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

3. 게다가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미일 MD 전개를 차질없이 진행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4 빈센트 보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11/14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시명이 이뤄지자, 미국 국방부 제리 보스 대변인은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4. 사상 초유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모자라 이미 2012년 국민적 반대와 분노로 무기 연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속전속결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과 독선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대의기관인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사드 배치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그 어떤 일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즉각 퇴진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2016.11.18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기자회견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중단! 대통령 재가 반대!

박근혜는 모든 국정에서 손 떼고 즉각 퇴진하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미르·케이(X)스포츠재단 설립 모금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실상 주범으로 직시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나라의 장래를 심각하게 위협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최종 서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핵해무익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관련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적 문제점은 그들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면서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국정농단이 한일관계, 남북관계, 한미관계 등 나라의 주권과 국방 문제까지 미친 것이어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완전히 잃었으며 내치든 외치든 국정을 이룰 능력도 자질도, 도덕성도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최저의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 몇 주째 지속되고 전국 각지에서 100만 명이 연속 2주째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으로 탄핵되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표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의 수족 노릇을 해온 검찰로부터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형사범죄의 주범으로 지목됨으로써 법률적으로도 탄핵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것이 국민의 일치된 요구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한국 배치에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강요와, 그들의 도움을 얻어 정권 연장을 피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계산이 결합된 결과로 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의 이유로 증대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보자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보다 북한에서 열라 떨어진 일본이 탐지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는 남한을 방어하는 '조기경보'의 효용성이 없다. 실제로 우리 군은 2012년 4월 13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54초 뒤 탐지했지만 일본은 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사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 해군의 대잠수함전 수행을 위해 일본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북한 잠수함(SLBM)이 실전화 된다 해도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최소 2500km를 넘기 때문에 남한용이 아니다.

국방부는 '우리나라는 러시아를 포함해 19개국과, 일본은 미국 등 6개국과 정보보호협정 체결로 동맹으로 발전한 나라가 없다'(국방부의 대 국회 보고내용)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여타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 목적과 교환되는 정보의 성격, 정보 보호 수준이 크게 다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단순의 군사교류에 머무는 협정이 아니라 대북 적대적 성격의 협정이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물품유통상호제공협정도 곧 가시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일 양국이 군사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주로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망과 동맹 구축의 일환이다. 한국에서 탈지된 중국 단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미국과 일본이 요격의 가능성과 기회를 높이고, 한국을 중국을 적대하는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끌어대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남한에 대한 재상륙과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일본은 안보법제 제'개정을 통해 정식, 중요명항사태시, 존립위기사태시, 무력공격사태시 등 모든 경우에 각종 명목으로 남한 영역에 들어오거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길을 열고 있다.

이처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과 일본에게는 이익이 될지언정 우리에게서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이런 협정을 이미 국민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공문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추진 발표 25일 만에 미지 군사사건 하듯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강행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내용상 헌법 60조 1항의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으려는 것은 국회의 권한, 조약체결 심의권을 침해하는 일로 우리는 결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최종 서명을 즉각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물러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국회가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대국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을 저지하고 이에 앞장서는 한일군 국방장관을 반드시 탄핵시킬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국민의 의사가 분명히 확인된 만큼 박근혜 퇴진을 위해 적극 나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1월 22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정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독립유공자유총회 / 한국독립유공자협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전면 무효다 박근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대형사고를 쳤다. 오늘 이곳에서 한국 국방부 장관과 주한 일본 대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사상 최초로 한국에 일본과 군사 분야 협정을 맺게 되는 것이다. 국정 운영의 자격도, 능력도 없는 박근혜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군사 작전하듯이 강행한 이 협정을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간부터 뒤흔드는 일이다. 2014년 12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6월 한미일 해상 MD 연합훈련, 7월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모두 매일 MD 편입의 연장선상에 있다. 누구보다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일이다. 한미, 미일 간에는 이미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일 협정만 추가되면 한미일 3국 간 법적 구속력을 갖춘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다. 한미일 군사 협력의 강화는 결국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군사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고, 동북아 냉전은 현실이 될 것이다. 한 정권 지원을 굳이 경쟁으로 낭비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모두 알고 있듯이 일본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인 재무장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무기수출 3원칙 폐지, 평화헌법 해석개선, 안보법제 재·개정어 차근차근 진행되었고, 현재 평화헌법 자체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아베 정권의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한국이 자위대를 군사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한다고 동남방네 자랑하는 것과 다름없다. 나아가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거나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한국 스스로 터주는 꼴이 된다.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침략 역사조사 부정하는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이러니를 넘어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회 동의는커녕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어떤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2012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꼼꼼 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0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여권이 성숙되어야 협정 체결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 모든 말은 거짓이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협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행정부 단독으로 밀어붙이며 입법부의 동의권을 명백히 침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위헌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다음 순서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이 될 것이다. 한국군과 일본군이 서로 물품이나 용역 등 군수 지원을 보장하는 협정으로, 예초에 군사정보 보호협정과 함께 논의되던 것이다.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 재무장대는 별개 사안이며 정보를 교류하는 기초 단계의 협력이라고 주장한다. MD 편입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지위대와 더 밀접한 군사 협력을 맺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무조건 부인하면 될 일인가? 한국은 아니라고 해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로써 박근혜가 청와대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지난 4년 동안 국방·외교·통일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남북 간 대화는 완전히 단절되었으며 남북 관계는 근래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다. 그러나 현 정권은 자신들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같은 적대와 대결 위주의 정책은 실패했다는 분석도 받아들여지 못한다.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현명한 외교 정책을 펼 능력이 예초에 없다. 평화에 대한 철학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위협에 빠뜨리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최종 서명을 중단해야 한다. 국회는 눈 감고 귀 닫은 채 협정을 추진한 현인구 국방부 장관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만약 협정이 최종 체결되더라도 국회의 동의권도, 사회적 합의도 철저히 무시한 채 서울 대통령의 지시로 체결된 이 협정은 전면 무효임을 선언한다. 시민사회는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이 협정을 취소시키고, 나아가 지금의 혼란을 초래한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6년 11월 23일

사드한국배지지지전국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정의당,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한국독립유공자협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반대민족운동본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범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의 날 결의문>

박근혜의 3차 담화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담화문에서 박씨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설명과는 달리,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승복하기를 거부한다고 공공연히 천명했다. 국정혼란과 공백은 퇴진을 거부하는 박근혜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전국 시민운동단체의 총의를 모아 요구한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

박근혜는 '임기단축' 가능성을 흘리며 국회에 공을 떠넘겼다. 국민의 즉각 퇴진요구와 국회의 탄핵소추를 회피하면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특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다시금 방해막이로 동원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국회는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을 온전히 대변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초정파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대의정치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에게 먼저 묻고, 광장과 촛불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대변하지 않은 채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여 정치적 이해를 앞세우면 국민의 불신임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는 우선, 박근혜의 지체없는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을 온전히 대변해야 한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 예정된 책임수궁 절차 역시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 박씨가 퇴진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수단인 탄핵소추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 임기단축을 위한 개인같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동할 변칙적 방법은 배제해야 한다.

박근혜가 임명한 내각은 국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해야 한다. 특히 황교안 총리는 이 정국을 수습할 과도적 내각을 이끌 수 없는 인물이다. 설사 지금 당장 사법적 추궁에서 벗어나 있다고는 하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국정파탄을 방조하고 자초한 무능한 총리에게 이후 국정수습을 맡길 수 없다. 국민 동의 없는 최근의 외교적 합의를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국민의 명령을 따라 즉각 사임해야 한다. 그것이 황 총리가 국정수습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시민의 행진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은 꺾음이 되어 전국 지방공공에서 더욱 거세게 타오를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은 모든 행동하는 시민들과 더불어 전국 지방공공에서 촛불이 더욱 번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특히 광장의 시민문화가 평화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성평등하고 소수자에게 열린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광장뿐만 아니라 생활공간에서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 시민의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형의행동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수단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광장의 열기가 진정한 참여민주주의와 속의민주주의로 숙성될 수 있도록

록 마을과 직장에서, 광장과 온라인에서 토론을 활성화하고 이를 수렴하는 민주적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이를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정의와 자유를 위해 행동하는 독립적인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랑이자 혼돈을 겪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 희망이다. 박근혜의 퇴진은 더 나은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박근혜 퇴진을 넘어 이 나라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된 민주 복지 평화 사회의 토대를 모두 함께 만들어 나가자.

경찰이 청와대 인간미잇기를 위한 행진을 전면 금지 통보했다. 특히 이번에 경찰은 세종문화회관 계단 이외의 행진은 모두 금지 통보했다. 이전의 이런 금지 통보보다도 더욱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행위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경찰은 신고된 행진을 6시간여 앞두고 금지통보를 해 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법원에 가처분을 구할 기회마저도 박탈하였다. 특히 어제 사실상 금지를 판단하고도 가처분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기 위해 일부러 누장 통보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신중 탄압 행위에 다름아니다.

경찰은 합법적인 1인 시위를 무단으로 가로막는가 하면, 때면 집시법 근거조차도 없는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행진금지통보를 시민들의 권익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남발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심지어 행진 자체를 금지하고 법원에 탄단을 구할 시간마저 박탈하는 언행을 저지르고 있다. 경찰은 금지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갈등에 대한 책임은 경찰에게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년 11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부록 】 2016년 발간자료 목록

2016년 발간자료 목록

발행일	자료명
2016.10	2016 여성평화걷기 사진전

평화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참여

평화여성회의 회원이 되시면,

- ◆ 문화행사, 토론회, 연구활동, 캠페인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관심분야에 따라 자원활동 및 다양한 회원모임에 참여합니다.
- ◆ 정기회비 납부로 평화여성회 활동을 후원합니다.
- ◆ 소식지와 자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 원 가 입 서

이름				주민번호		
이동전화				전자메일		
집 주소						
거래은행				예금주		
				약정금액		
계좌번호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관심 분야	<input type="checkbox"/> 정세대응 <input type="checkbox"/> 통일과제 <input type="checkbox"/> 국방과제 <input type="checkbox"/> 남북교류 <input type="checkbox"/> 관동해경 <input type="checkbox"/> 전쟁반대 <input type="checkbox"/> 평화교육 <input type="checkbox"/> 평화문화 <input type="checkbox"/> 여성운동 <input type="checkbox"/> 기타()					
가입 동기						
가입 일자						

후원계좌 : 388-810005-03104 (하나은행) 예금주 :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347-01-0018-351 (국민은행) 예금주 :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17년 제21차 평화●만드는여성회 정기총회

발행일: 2017년 2월 9일

발행인: 안김정애

발행처: 평화●만드는여성회



